

연암 박지원 가(家) 소장  
필사본의 가치와 위상  
- 열하일기와 연암집을 중심으로 -

---

■ 일시 \_ 2023년 9월 8일(금) 13:00 ~ 18:00

■ 장소 \_ 단국대학교 국제관 101호

■ 주최 \_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실학박물관 · 한국실학학회

---



# 연암 박지원 가(家) 소장 필사본의 가치와 위상

## - 『열하일기』와 『연암집』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국제관 101회]

13:00~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 정 성 희(실학박물관장)</li> <li>■ 환영사 : 이 중 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li> <li>■ 축 사 : 안 순 철(단국대학교 총장)</li> </ul>
-------------	--

사회 : 한준영(실학박물관 학예실장)

시간	발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13:20~13:50	제1발표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연구	발표 : 정재철(단국대) 토론 : 김혈조(영남대)
13:50~14:20	제2발표 燕巖 朴趾源 手稿本 『燕行陰晴』(坤)의 의미와 가치	발표 : 박철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토론 : 서현경(한국고전번역원)
14:20~14:30	휴 식	
14:30~15:00	제3발표 『연암집』 교감과 여러 異本의 평어에 대한 고찰 분석 - 散文을 중심으로	발표 : 김윤조 · 황동권(계명대) · 김종민(성균관대) 토론 : 김영진(성균관대)
15:00~15:30	제4발표 필사본 『과농소초』의 편찬 과정	발표 : 김문식(단국대) 토론 : 염정섭(한림대)
15:30~ 16:00	제5발표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	발표 : 권진옥(단국대) 토론 : 안세현(강원대)
16:00~ 16:20	휴식 및 장내 정리	
16:20~ 17:50	종합토론	좌장 : 안대회(성균관대) 발표자, 토론자 전원
17:5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 회 사 : 김 문 식(한국실학학회 회장)</li> <li>■ 기념촬영 : 발표자, 토론자 전원</li> </ul>	

---

## 목 차

---

-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연구 ..... 5  
    발표 : 정재철(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토론 : 김혈조(전 영남대학교 교수)
  
- 燕巖 朴趾源 手稿本 『燕行陰晴』(坤)의 의미와 가치 ..... 41  
    발표 : 박철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토론 : 서현경(한국고전번역원)
  
- 『燕巖集』 교감과 여러 異本의 평어에 대한 고찰-散文을 중심으로 ..... 65  
    발표 : 김윤조(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황동권(계명대학교 강사) ·  
        김종민(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 김영진(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필사본 『課農小抄』의 편찬 과정 ..... 93  
    발표 : 김문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 염정섭(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 ... 123  
    발표 : 권진옥(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론 : 안세현(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연구

발표 : 정재철(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토론 : 김혈조(전 영남대학교 교수)



#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연구

정 재 철(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열하일기(리)』
2. 초고본 계열 이본의 형태	(3) 『잡록(상)』·『행계잡록(5)』
3. 초고본 계열 이본의 내용	(4) 『곡정필담』
1) 『열하일기』 초고본	(5) 『행계잡록(1)(2)(3)』·『열하일기(원)(형)(정)』
(1)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3) 『열하일기』 증편본
(2) 『열하일기』	(1) 『연행음청(건)』
(3) 『잡록(하)』	(2) 『황도기략(1)』·『황도기략(2)』
2) 『열하일기』 교정본	4. 맺음말
(1) 『행계잡록(6)』·『행계집』	

## 1. 머리말

일본 동양문고에는 중국 사행 기록 3종을 합철하여 표제를 “燕巖”라고 적어놓은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김창업의 연행록인 『가재설총』 6책, 홍대용의 연행록인 『담헌설총』 6책, 박지원의 연행록인 『연암설총』 8책 등 총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암설총』 8책은 『연행음청』 2책과 『열하일기』 6책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후 연휘본이라고 칭함) 그중 『열하일기』 제1책에 수록된 「태학유관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른 이본에는 없는 연암의 글이 씌어 있어 주목된다.

내가 열하에 있을 때 별도로 「망양록」과 「곡정필담」을 두었는데, 13일 기미일에 기록한 것과 14일 경신일에 기록한 것이 앞뒤가 바뀌었다. 또한 汪新의 청지기에게 ‘여러 날 술을 실컷 마시자.’고 약속한 단락은 당연히 15일 아침에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뒤섞여 기록되어 있다. 보는 자들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聖廟를 알현하였다.’라고 말한 한 단락도 뒤섞여 이곳에 있는데, 당연히 11일 정사일에 있어야 하니 오류가 심하다. 대체로 日錄과 筆談이 서로 뒤섞여 어지러운 데다, 필담의 초고는 난잡하게 가로 세로가 뒤집혀 있어 스스로

살펴서 풀어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의 반은 연암에 두고 반은 서울집에 두고서 거처하는 곳에 따라 차례로 열람하였으므로,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위와 같이 많다. 성정이 나약하고 눈이 어두운데다 곁에 대필할 사람[倩手]이 없기에, 다시 정리하여 바로잡지 못하니 통탄스럽다. 三洲 雪屋에서 우연히 열람하고 이처럼 잘못된 것을 알았다. 지원이 제하다.<sup>1)</sup>

위의 글은 연암이 三洲 雪屋에 있을 때 연회본 『열하일기』 「태학유관록」에 써어 있는 내용이 오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연암은 그 오류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연암은 1780년 8월 13일에 열하에서 「망양록」을 썼고, 이어 8월 14일에 「곡정필담」을 썼다. 그러나 「태학유관록」에 8월 13일에 쓴 내용에는 “사신은 만수절 축하 반열에 참석하기 위해 궁궐로 갔다. 나는 곡정과 필담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새벽에 잠시 대궐 아래에 이르렀다.”<sup>2)</sup>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둘째, 8월 14일의 기사에는 광동안찰사 汪新의 청지기가 연암을 찾아와 다음날 정오에 왕신이 연암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한 것<sup>3)</sup>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암이 왕신의 청지기에게 왕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한 날은 8월 14일이 아니라 8월 15일 아침이었다. 셋째, 8월 14일의 기사에는 이날 오후에 세 사신이 聖廟를 알현한 것<sup>4)</sup>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 사신이 성묘를 알현한 날은 8월 14일이 아니라 8월 11일이었다.<sup>5)</sup>

연암은 위의 인용문에서 『열하일기』의 오류를 수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열하일기』의 내용은 크게 날자 별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日錄과 중국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筆談으로 나뉘는데, 이 두 유형의 기록들이 서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특히 筆談의 초고본은 난잡하여 가로 세로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 그 실마리를 풀어내기 더욱 어려웠다. 둘째, 연암은 『열하일기』의 원고 중 반은 개성 근처에 있는 연암협에 두고, 나머지 반은 서울집에 두어 거처를 옮겨 가며 차례로 열람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어도 이를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열하일기』를 교정하려면 교정본으로 사용할 필사본을 남의 손을 빌려[倩手] 쓰게 해야 한다. 그러나 연암은 당시 형편상 자신을 대신해 필사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열하일기』의 필사본은 현재 알려진 것만 어림잡아도 대략 30여 종이 있고, 이 필사본은 모

1) 동양문고본, 『연회(15)』, 『열하일기(1)』(일본 동양문고), 장57a~장57b. “余在熱河時, 別有亡羊錄及鶴亭筆談, 而十三日己未所記, 十四日庚申所記, 先後倒置. 且與汪新僕人, 屢日旺酬酌一段, 當在十五朝, 而混錄於此. 覽者詳之. 又入謁聖廟一段, 混錄在此, 而當在十一日丁巳, 謬甚矣. 大抵日錄及筆談混淆錯亂, 筆談草本尤亂雜橫縱豎倒, 自難審釋. 而半置燕巖, 半在京寓, 隨居閱次, 而自相矛盾者多此類. 性懦眼昏, 且旁無倩手, 不復釐正, 可勝歎哉. 三洲雪屋, 偶閱而識誤如此, 趾源題.”

2) 동양문고본, 『연회(15)』, 『열하일기(1)』(일본 동양문고), 장44a. “十三日己未. 曉少灑雨, 朝快晴. 使臣參萬壽節賀班, 五更赴闕. 余與鶴亭約筆談, 故曉暫至闕下.”

3) 동양문고본, 『연회(15)』, 『열하일기(1)』(일본 동양문고), 장54a~장54b. “俺乃廣東按察使汪老爺管幹也. 俺老爺向日遇老先生, 不勝之喜, 明日午刻當再來陪歡.”

4) 동양문고본, 『연회(15)』, 『열하일기(1)』(일본 동양문고), 장56a. “午後三使臣入謁大成殿.”

5) 필자는 초고본 계열 이본인 『행계잡록(3)』의 「태학유관록」과 연회본 『열하일기』의 「태학유관록」의 원문을 대교하였다. 『행계잡록(3)』 8월 13일의 기록에는 “余得穩睡. 朝起, 徐行至闕下.”(연민문고본, 『행계잡록(3)』, 장25a.)라고 수정되어 있다. 그러나 8월 14일에 왕신의 청지기가 연암을 찾아온 것과 세 사신이 성묘를 알현한 것은 『행계잡록(3)』의 8월 14일의 기사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써어 있다.

두 그 내용에 약간의 출입이 있다. 단순한 오탈자에 의한 차이도 있지만, 의도적인 왜곡과 개변이 작용하여 그 내용이 달라져 있기도 하다. 이는 명백한 원작의 훼손이다.<sup>6)</sup>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열하일기』의 이본을 수집 정리하여 그 선후 관계와 교정 양상을 밝히는 작업은 『열하일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과 실학박물관에는 연암이 친필로 쓴 『열하일기』 초고본과 이를 직접 수정한 교정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기관에 소장된 『열하일기』의 초기 이본들을 대상으로 이본의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초고본 계열 이본의 형태

현존하는 『열하일기』의 이본들은 편차나 개작 여부, 자구 수정뿐만 아니라 『연암집』의 체제와 『열하일기』 각 편의 小編次 등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가) 초고본 계열 : 가장 초창기에 필사되었으며, 아직 『열하일기』의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이본들.
- (나) 『열하일기』 계열 : 『열하일기』의 체계를 갖추었으나, 아직 『연암집』에는 통합되지 않은 이본들.
- (다) 『연암집』 외집 계열 : 『열하일기』를 『연암집』의 ‘외집’으로 통합하고자 한 이본들.
- (라) 『연암집』 별집 계열 : 『열하일기』가 『연암집』의 ‘별집’으로 통합되면서, 『연암집』의 권차가 부여된 이본들.<sup>7)</sup>

위의 네 가지 계열로 나뉘어 있는 『열하일기』의 이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초고본 계열의 이본들이다. 앞서 살폈듯이 이 이본들은 연암이 열하에서 날짜 별로 기록한 日錄과 중국 사람들과 나눈 筆談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돌아와 수시로 저술한 초고본과 이를 수정한 교정본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암이 친필로 쓴 초고본은 물론 교정본 또한 앞서 인용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원고용지를 구하거나 대필할 사람을 구할 때마다 친필로 교정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필자가 석주선기념박물관과 실학박물관에서 확인한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은 다음과 같다.

6) 김혈조, 『『열하일기』 정보화 작업의 제문제-신자료 소개를 겸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71집(한국한문학회, 2018), 8쪽.

7) 김명호, 『『열하일기』 이본(異本)의 재검토』, 『동양학』 48(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4쪽.

〈표 1〉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 및 소장처

	이본 명	소장처
1	『연행음청(진)(곤)』 2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2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3	『열하일기』 1책	실학박물관
4	『잡록(상)(하)』 2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5	『행계잡록(1)(2)(3)(5)(6)』 5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6	『행계집』 1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7	『열하일기(원)(형)(리)(정)』 4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8	『곡정필담』 1책	실학박물관
9	『황도기략(1)』 1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0	『황도기략(2)』 1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1	『양매시화』 1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2	『열하피서록』 1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계	12종 22책	

〈표 1〉에서 보듯이 현재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에 해당하는 이본은 총 12종 22책이 있다. 이를 이본별로 구분하면 『연행음청(진)(곤)』 2책,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2책, 『열하일기』 1책, 『잡록(상)(하)』 2책, 『행계잡록(1)(2)(3)(5)(6)』 5책, 『행계집』 1책, 『열하일기(원)(형)(리)(정)』 4책, 『곡정필담』 1책, 『황도기략(1)』 1책, 『황도기략(2)』 1책, 『양매시화』 1책, 『열하피서록』 1책 등으로 나뉜다. 이중 『열하일기』 1책과 『곡정필담』 1책 등 2종 2책은 실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연행음청(진)(곤)』 2책을 포함한 10종 20책은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8)</sup> 위와 같은 초고본 계열의 이본에서 『연행음청(곤)』 1책,<sup>9)</sup> 『양매시화』 1책,<sup>10)</sup> 『열하피서록』 1책<sup>11)</sup> 등은 그 내용상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의 유형

8) 이밖에 해외에 소장된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으로는, 중국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황도기략』(초본) 1책, 일본 궁내청 書陵部에 소장된 『遊華聞見』(초본) 1책 등 2종 2책이 있다. 김명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북경대학본 『황도기략』 1책에는 「황도기략」을 포함해 11편이 수록되어 있고, 궁내청본 『유화문견』 1책에는 「일신수필」을 포함해 24편이 초록되어 있다고 한다(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2022, 709쪽). 앞으로 이 해외본 2종의 원문과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의 원문을 대교하여 그 선후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9) 이 책은 표지를 포함해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연암은 『열하일기』를 저술하면서 80일간의 연행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연행음청(곤)』의 내용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정재철, 「신자료 『열하일기』 선행본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연구」, 『동양학』 89,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2, 6쪽).

10) 이 책은 서문과 총 32개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현전하는 『열하일기』 이본들에는 없는 逸編의 하나인 「양매시화」의 초고본으로 추정된다(김명호, 「『열하일기』 이본의 특징과 개작 양상」,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2022, 709쪽).

11) 이 책은 박지원이 『삼한총서』의 일부로서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避暑錄 手稿 半卷”이라는 제목 옆에 박규수의 글이 쓰여 있는데, 이로 보아 박규수가 박종채의 사후인 경자년(1840)에 박지원의 저작을 수습하고 교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김명호, 「『열하일기』 이본의 특징과 개작 양상」,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2022, 459쪽).

과 그 내용을 밝히는 데 유효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3종 3책을 제외한 11종 19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토할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11종 19책은 여러 유형의 판식을 갖춘 烏絲欄紙에 씌어 있다. 판식의 유형이 동일한 텍스트들은 같은 시기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판식은 이본들의 계통과 선후 관계를 추정하는 데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있다.<sup>12)</sup> 이를 위해 초고본 계열 이본의 판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의 유형별 판식<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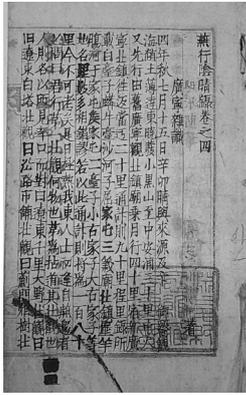
판식 유형	판식	이본 명
㉠	사주쌍변, 유계, 14행 20자, 상하내향사엽화문흑어미	『연행음청기(3)』, 『연행음청록(4)』
㉡	상하단변, 좌우쌍변, 유계, 10행 20자 상하내향이엽화문흑어미	『열하일기』
㉢	상하단변, 좌우쌍변, 유계, 10행 20자	『잡록(하)』
㉣	사주쌍변, 유계, 11행 20자, 상하내향사엽화문흑어미	『행계잡록(6)』, 『행계집』
㉤	상하단변, 좌우쌍변, 유계, 10행 20자	『열하일기(리)』
㉥	사주쌍변, 유계, 10행 20자, 상하향흑어미 판심하유선	『행계잡록(5)』, 『잡록(상)』
㉦	사주쌍변, 유계, 10행 20자, 상하향흑어미 판심하유선	『곡정필담』
㉧	사주쌍변, 유계, 10행 20자, 상하향흑어미	『행계잡록(1)(2)(3)』, 『열하일기(원)(형)(정)』
㉨	사주단변, 무계, 10행 20자	『연행음청(건)』
㉩	사주단변, 유계, 10행 20자, 상하향흑어미, 판심제 : 연암산방	『황도기략(1)』
㉪	사주단변, 유계, 10행 20자, 상하향흑어미, 판심제 : 연암산방	『황도기략(2)』

〈표 2〉에서 보듯이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11종 19책은 ㉠ 유형에서 ㉪ 유형까지 11유형의 판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잡록(상)』(㉥ 유형)과 『잡록(하)』(㉢ 유형), 『행계잡록(5)』(㉥ 유형)와 『행계잡록(6)』(㉣ 유형), 『열하일기(리)』(㉤ 유형)와 『열하일기(원)(형)(정)』(㉧ 유형) 등은 표제명은 같으나 판식이 다르다. 이와 달리 『행계잡록(6)』과 『행계집』(이상 ㉣ 유형), 『행계잡록(5)』와 『잡록(상)』(이상 ㉥ 유형), 『행계잡록(1)(2)(3)』과 『열하일기(원)(형)(정)』(이상 ㉧ 유형) 등은 표제명은 다르나 판식이 같다. 또한 『잡록(하)』(㉢ 유형)과 『열하일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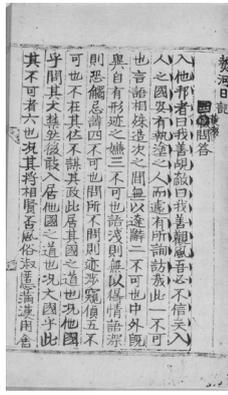
12)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 234쪽.

13) 이 표는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 234쪽에 제시된 다섯 유형의 판식을 참고해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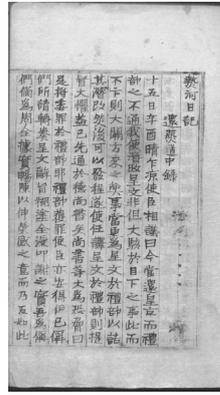
(E 유형), 『행계잡록(5)』(F 유형)과 『곡정필담』(G 유형), 『황도기략(1)』(J 유형)과 『황도기략(2)』(K 유형) 등은 판식은 같으나 용지가 다르다. 이 11유형의 판식으로 이루어진 초고본 계열의 이본을 사진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 『연행음청록(4)』  
(A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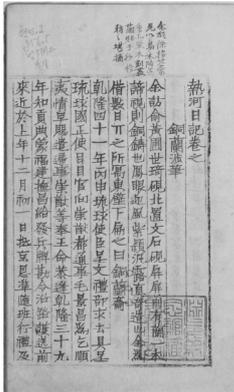
[사진 2] 『열하일기』  
(B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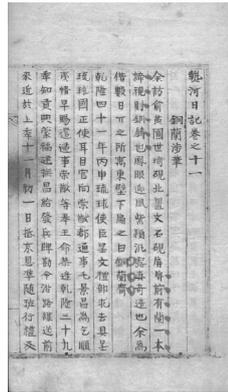
[사진 3] 『잡록(하)』  
(C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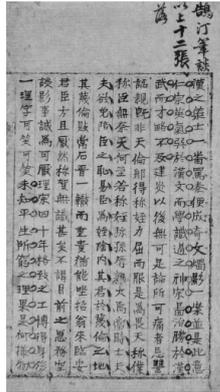
[사진 4] 『행계잡록(6)』  
(D 유형)



[사진 5] 『열하일기(리)』  
(E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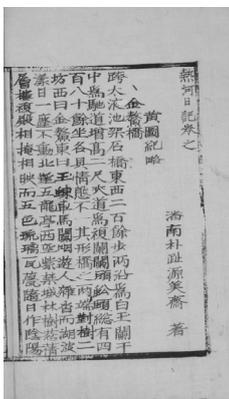
[사진 6] 『행계잡록(5)』  
(F 유형)



[사진 7] 『곡정필담』  
(G 유형)



[사진 8] 『행계잡록(3)』  
(H 유형)



[사진 9] 『연행음청(건)』  
(I 유형)



[사진 10] 『황도기략(1)』  
(J 유형)



[사진 11] 『황도기략(2)』  
(K 유형)

앞서 밝혔듯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 『열하일기』의 이본에서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들은 위와 같이 11유형의 판식에 찍어 있는 11종 19책을 주 자료로 삼아 특정한 편집 방향에 따라 그 편수와 편차를 다르게 필사한 것이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으로는 연휘본, 다백운루본, 옥류산장본, 만송문고본, 중국국도본, 일재본, 충남대본, 온재문고본 등 총 8종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이본들은 수록된 편수와 편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14)</sup>

필자는 초고본 계열 이본의 형태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고본 계열의 이본 11종 19책과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 8종의 원문을 대조하였다. 그 결과 초고본 계열의 이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휘본 『열하일기』의 편차에 맞추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의 형태 및 편명

형태	연휘본	초고본			교정본						증편본				
		A	B	C	D		E	F	G	H		I	J	K	
차례		연행음청기 (3)·연행 음청록(4)	열하일기	잡록 (하)	행계잡록 (6)	행계집	열하일기 (리)	잡록 (상)	행계잡록 (5)	곡정필담	행계잡록 (1)(2)(3)	열하일기 (원)(형) (정)	연행음청 (건)	황도기략 (1)	황도기략 (2)
1	도강록										도강록a				
2	성경 잡지	성경잡지									성경 잡지				
3	일신 수필	일신 수필지									일신 수필				
4	관내 정사										관내 정사				
5	막북 행정록										도강록b				
6	태학 유관록										막북 행정록				
7	경개록				경개록						태학 유관록				
8	황교 문답		황교 문답		황교 문답										
9	행재 잡록		회본 명목		행재 잡록										
10	반선 시말		행재 잡록		반선 시말										
11	회본 명목		반선 시말		회본 명목										
12	망양록					망양록		망양록				망양록			

14)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 8종의 소장처는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다. 연휘본에는 제1편 「도강록」에서 제 20편 「환연도중록」까지 총 20편이 수록되어 있고, 다백운루본, 옥류산장본, 만송문고본, 중국국가도서관 본, 일재본 등 5종의 이본에는 제1편 「도강록」에서 제20편 「피서록」까지 총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충남대본에는 제1편 「도강록」에서 제26편 「피서록」까지 총 26편이 수록되어 있고, 온재문고본에는 제1 편 「도강록」에서 제26편 「동란섭필」까지 총 26편이 수록되어 있다.

형태	연후본	초고본			교정보본						증편본				
		㉠	㉡	㉢	㉣		㉤	㉥		㉦	㉧		㉨	㉩	㉪
차례		연행음청기 (3)·연행 음청록(4)	열하일기	잡록 (하)	행계잡록 (6)	행계집	열하일기 (리)	잡록 (상)	행계잡록 (5)	곡정필담	행계잡록 (1)(2)(3)	열하일기 (원)(형) (정)	연행음청 (진)	황도기략 (1)	황도기략 (2)
13	필담 의례					필담 의례		필담 의례				심세편			
14	찰십 분포					찰십 분포									
15	환회기				환회기				환회기						
16	피서록				피서록				피서록						
17	동란 섭필				동란 섭필		동란 섭필		동란 섭필			동란 섭필			
18	곡정 필담					곡정 필담				곡정 필담					
19	(산장 잡기) ※ 구외 이문 급묘 소초			구외 이문 (산잡기) ※								구외 이문 (산장 잡기)※			
				환연 도중록								환연 도중록			
20	환연 도중록			금로 소초								금로 소초			
	옥갑 야어			옥갑 야어		옥갑 야화						옥갑 야어			
	황도 기략			곡정 필담									황도 기략	황도 기략	황도 기략
	알성 퇴술													알성 퇴술	알성 퇴술
	양엽기													양엽기	양엽기

※ (산장잡기)는 「야출고북구기」·「일야구도하기」·「만국진공기」·「승귀선인행우기」·「만년춘등기」·「매화포기」·「납취조기」 등 7편이 편명 없이 수록되어 있음.

〈표 3〉에서 보듯이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11종 19책에 수록된 편수는 총 54편이고, 이 54편은 연암이 친필로 쓴 초고본과 수정을 가한 교정보본, 그리고 후에 추가한 증편본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중 초고본은 ㉠ 유형부터 ㉢ 유형까지 세 유형에 12편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유형) 2편, 『열하일기』(㉡ 유형) 4편, 『잡록(하)』(㉢ 유형) 6편 등이다. 교정보본은 ㉣ 유형부터 ㉧ 유형까지 다섯 유형에 35편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행계잡록(6)』 8편·『행계집』(이상 ㉣ 유형) 5편, 『열하일기(리)』(㉤ 유형) 1편, 『잡록(상)』 2편·『행계잡록(5)』(이상 ㉥ 유형) 3편, 『곡정필담』(㉦ 유형) 1편, 『행계잡록(1)(2)(3)』 7편·『열하일기(원)(형)(정)』(이상 ㉧ 유형) 8편 등이다. 증편본은 ㉨ 유형부터 ㉫ 유형까지 세 유형에 7편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연행음청(진)』(㉨ 유형) 1편, 『황도기략(1)』(㉩ 유형) 3편, 『황도기략(2)』(㉫ 유형) 3편 등이다. 다음 장에서 위와 같이 세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초고본 계열 이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 초고본 계열 이본의 내용

#### 1) 『열하일기』 초고본

##### (1)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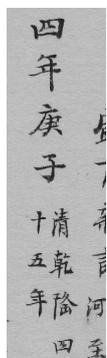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는 ㉠ 유형으로 된 판식에 찍어 있다(〈표 2〉 참고). 이 두 책은 『열하일기』의 「성경잡지」와 「일신수필」의 최초 원고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연행음청기(3)』은 표지를 포함해 총 32장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燕行陰晴錄”이라고 쓰여 있고, 다음 장에는 “燕行陰晴錄目錄”이라는 목록이 찍어 있다. 본문 제1장 제1행에는 “燕行陰晴記卷之三”이라는 표제와 권수가 찍어 있고, 제2행에는 “盛京雜識”라는 편명이 찍어 있다 ([사진 1] 참고).

『연행음청록(4)』는 표지나 목록 없이 본문만 총 30장으로 되어 있다. 본문 제1장 제1행에는 “燕行陰晴錄卷之四”라는 표제와 권수가 찍어 있다. 제2행에는 붉은 글씨로 “駟汎隨筆”이라는 편명이 찍어 있고, 제3행에는 “廣寧雜誌”라는 편명이 찍어 있다. 이로 보아 「일신수필」의 편명이 처음에는 「광녕잡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에 수록된 「성경잡지」와 「일신수필」의 이본별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연회본 『연행음청(1)(2)』와 『행계잡록(1)(2)』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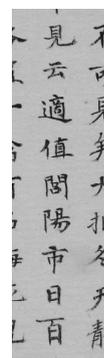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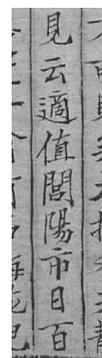
[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사진 17]

[사진 12]는 『연행음청기(3)』 「성경잡지」 제1장 앞면 제3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乾隆四十五年庚子” 8자가 찍어 있다. [사진 13]은 연회본 「성경잡지」 제1장 앞면 제3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四年庚子[清乾隆四十五年]”([ ] 표기는 주석을 뜻함)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연행음청기(3)』의 본문에 찍어 있는 청나라 연호를 주석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사진 14]는 『행계잡록(1)』 「성경잡지」 제1장 앞면 제3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연회본과 같다.

15) 정재철, 「신자료 『열하일기』 선행본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 연구, 『동양학』 89집(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2), 1쪽.

[사진 15]는 『연행음청록(4)』 「일신수필」 제11장 뒷면 제9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수정이 가해졌다. 먼저 “見”자 다음에 쓴 글자 위에 “云”자가 씌어 있다. 그리고 “云”자의 오른쪽 아래로 그은 선에 “適值” 2자가 씌어 있다. 또한 “閭陽市日” 아래에 쓴 글자가 ●으로 지워져 있다. [사진 16]은 연휘본 「일신수필」 제15장 뒷면 제8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見”자 다음에 “云適值閭陽市日百”이라고 씌어 있다. 이는 『연행음청록(4)』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사진 17]은 『행계잡록(2)』 「일신수필」 제17장 앞면 제7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연휘본과 같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의 「성경잡지」와 「일신수필」은 연휘본 『연행음청(1)(2)』와 『행계잡록(1)(2)』의 「성경잡지」와 「일신수필」의 선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㉔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이 책에는 「황교문답」, 「희본명목」, 「행재잡록」, 「반선시말」 등 4편이 수록되어 있다.<sup>16)</sup> 『행계잡록(6)』에는 이 4편의 차례가 「황교문답」, 「행재잡록」, 「반선시말」, 「희본명목」으로 바뀌어 있다. 위와 같은 『행계잡록(6)』 4편의 차례는 연휘본의 제8편부터 제11편의 차례와 같다(〈표 3〉 참고).

『열하일기』 「황교문답」은 총 23장으로 되어 있다. 본문 제1장 제1행의 권수제에 “熱河日記”이라 하여 아직 권차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제2행에는 “西藏問答”에서 “西藏” 2자가 ●●으로 지워지고 오른쪽에 “黃教” 2자가 씌어 있다(사진 2) 참고). 이로 보아 「황교문답」의 편명이 처음에는 「서장문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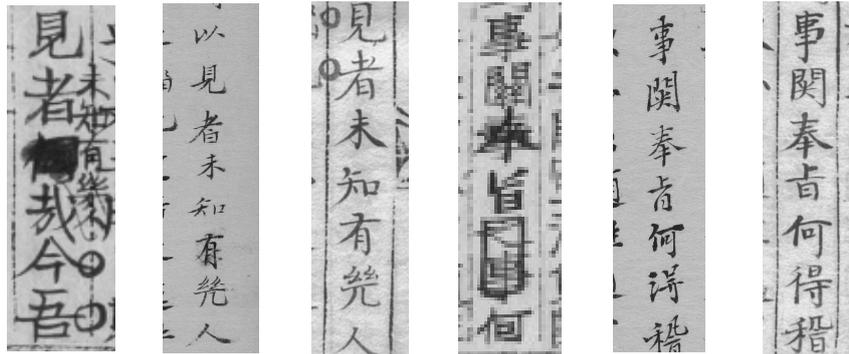
『열하일기』 「희본명목」은 총 2장으로 되어 있다. 본문 제1장 제1행의 권수제도 “熱河日記”이라 하여 아직 권차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어 제2행에는 “戲本名目”이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3행부터 “九如歌頌”로 시작하는 원문이 씌어 있다.

『열하일기』 「행재잡록」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제1행의 권수제도 “熱河日記”이라 하여 아직 권차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어 제2행에는 “行在雜錄”이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3행부터 “嗚呼”로 시작하는 원문이 씌어 있다.

『열하일기』 「반선시말」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제1행의 권수제도 “熱河日記”이라 하여 아직 권차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어 제2행에는 “班禪始末”이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3행부터 “班禪額爾德尼”로 시작하는 원문이 씌어 있다.

『열하일기』에 수록된 「황교문답」, 「희본명목」, 「행재잡록」, 「반선시말」의 이본별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휘본·『행계잡록(6)』의 원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열하일기』의 앞부분에는 판심이 ‘연암산방’ 사고지에 필사한 「구외이문」 21장(일부), 「황도기략」 1장(일부), 「이충열공묘지명」 8장, 「홍덕보묘지명」 2장이 합철되어 있다. 그중 「구외이문」 21장과 「황도기략」 1장에는 온재문고본 『열하일기』와 같은 내용이 ‘연암산방’ 사고지에 필사되어 있다. 또한 「구외이문」에는 초고본 계열인 『행계잡록(6)』에는 없는 “高麗珠”, “曹操水葬” 등의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소제목들은 온재문고본 『열하일기』와 같다. 이로 보아 『열하일기』의 「구외이문」은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인 온재문고본 『열하일기』와 비슷한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18]은 『열하일기』 「황교문답」의 제23장 뒷면 제2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見者” 다음에 “何”자가 ●으로 지워져 있고, 오른쪽 행간에 “未知有幾人” 5자가 씌어 있다. [사진 19]는 연휘본 「황교문답」의 제26장 뒷면 제1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見者” 다음의 본문에 “未知有幾人” 5자가 씌어 있다. 이는 『열하일기』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20]은 『행계잡록(6)』 「황교문답」의 제21장 뒷면 제1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연휘본과 같다.

[사진 21]은 『열하일기』 「행재잡록」의 제3장 앞장 제8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人旨之事” 4자에서 ‘人’자가 ‘奉’자로 바뀌고, “之事” 2자가 □으로 지워져 있다. [사진 22]는 연휘본 「행재잡록」의 제3장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人旨之事” 4자 대신 “奉旨” 2자가 씌어 있다. 이는 『열하일기』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23]은 『행계잡록(6)』 「행재잡록」의 제3장 앞면 제8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연휘본과 같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열하일기』의 「황교문답」, 「희본명목」, 「행재잡록」, 「반선시말」은 연휘본과 『행계잡록(6)』의 「황교문답」, 「희본명목」, 「행재잡록」, 「반선시말」의 선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 (3) 『잡록(하)』

『잡록(하)』는 ㉠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이 책에는 「구외이문」, 「야출고북구기」, 「일야구도하기」, 「진공만거기」, 「승귀선인행우기」, 「만년춘등기」, 「매화포기」, 「납취조기」, 「환연도중록」, 「금료소초」, 「옥갑야어」, 「곡정필담」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잡록(하)』의 「구외이문」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제1행은 표제명이 삭제되어 있다. 『잡록(하)』의 「환연도중록」에는 제1장 제1행에서 표제명이 “熱河日記”라고 씌어 있는 것으로 보아(사진 3) 참고), 위와 같이 삭제된 곳에는 “熱河日記”라고 씌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2행에는 “口外異聞”에서 마지막 글자인 ‘聞’자만 남아 있다. 제3행부터 소제목 없이 “盤羊”에서 “樵史”까지 10개 단락이 씌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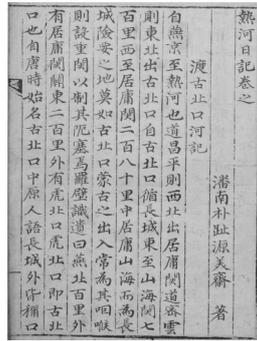
『잡록(하)』에는 「구외이문」에 이어 별도의 편명 없이 「야출고북구기」, 「일야구도하기」, 「진

공만거기, 「승귀선인행우기」, 「만년춘등기」, 「매화포기」, 「납취조기」 등 7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 7편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인 옥류산장본과 충남대본에는 이 7편이 통합되어 「산장잡기」라는 편명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진공만거기」는 『열하일기(정)』에서 「만국진공기」로 수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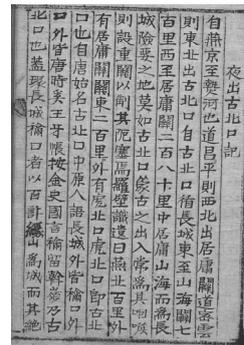
『잡록(하)』에는 「야출고북구기」의 작품명이 “夜出古北口記”라고 써어 있는데, 이 작품명이 옥류산장본에는 “渡古北口河記”라고 써어 있다. 위와 같이 작품명이 다른 두 이본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잡록(하)』, 옥류산장본, 『열하일기(정)』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24] 『잡록(하)』 「야출고북구기」



[사진 25] 옥류산장본 「도고북구하기」



[사진 26] 『열하일기(정)』 「야출고북구기」

[사진 24]는 『잡록(하)』 「야출고북구기」의 제1장이다. 이곳에는 제1행에 “夜出古北口記”라고 써어 있고, 제2행부터 “自燕京”으로 시작하는 원문이 써어 있다. 제8행에는 “唐時”에서의 “時”자가 ●으로 지워져 있다. [사진 25]는 옥류산장본 「도고북구하기」의 제1장이다. 이곳에는 제1행에 “熱河日記卷之”라는 표제 명이 써어 있고, 제2행에는 “潘南朴趾源美齋 著”라는 작가명이 써어 있다. 제3행에 “渡古北口河記”라고 써어 있고, 제4행에 “自燕京”으로 시작하는 원문이 써어 있다. 제10행에는 “唐時”에서의 “時”자가 그대로 써어 있다. [사진 26]은 『열하일기(정)』 「야출고북구기」의 제1장이다. 이곳에서 제1행과 제2행은 『잡록(하)』와 같다. 그러나 제8행에는 “唐時”에서의 “時”자가 삭제되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옥류산장본은 『잡록(하)』의 「구외이문」 다음에 별도의 편명 없이 써어 있는 「야출고북구기」 이하 7편을 분리하고, 이곳에 새로운 卷次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열하일기(정)』의 「야출고북구기」는 『잡록(하)』의 「야출고북구기」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7]은 『잡록(하)』 「승귀선인행우기」의 제1장 앞면 제1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山莊” 다음에 쓴 세 글자가 ■■■로 지워져 있다. [사진 28]은 옥류산장본 「승귀선인행우기」의 제1장 앞면 제1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山莊望見”이라고 써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29]는 『열하일기(정)』의 「승귀선인행우기」 제1장 앞면 제1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옥류산장본과 같다.



[사진 27]



[사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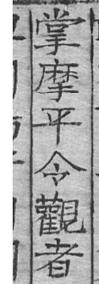
[사진 29]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사진 30]은 『잡록(하)』 「납취조기」의 제1장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掌”자와 “平”자 다음에 쓴 “撫”자와 “鋪”자가 □로 지워져 있다. [사진 31]은 옥류산장본 「납취조기」의 제1장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掌摩”라고 씌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32]는 『열하일기(정)』 「납취조기」의 제1장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옥류산장본과 같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잡록(하)』의 「승구선인행우기」와 「납취조기」는 옥류산장본과 『열하일기(정)』의 「승구선인행우기」과 「납취조기」의 선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잡록(하)』의 「환연도중록」은 총 1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제1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라는 표제명이 씌어 있다([사진 3] 참고). 제2행에는 “還燕道中錄”이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3행에는 “十五日”로 시작되는 원문이 씌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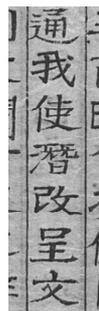
『잡록(하)』에 수록된 「환연도중록」의 이본별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잡록(하)』, 옥류산장본, 『열하일기(정)』의 「환연도중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3]



[사진 34]



[사진 35]



[사진 36]



[사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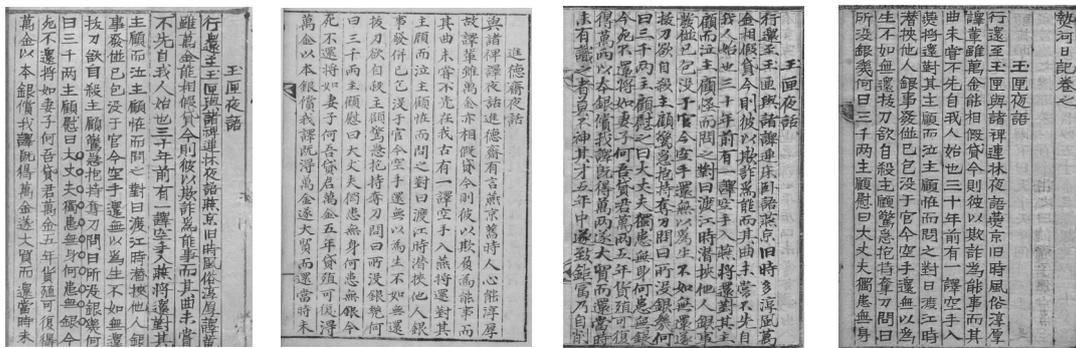
[사진 38]

[사진 33]은 『잡록(하)』 「환연도중록」의 제1장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通”자 다음에 쓴 5자 위에 “我使潛改呈文” 6자가 씌어 있다. 이로 인해 1행당 20자로 이루어진 판식에서 제5행에는 한 글자가 추가되었다. [사진 34]는 옥류산장본 「환연도중록」의 제1장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我使潛改呈文” 6자가 1행 20자에 맞게 씌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35]는 『열하일기(정)』 「환연도중록」의 제

1장의 앞면 제5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옥류산장본과 같다.

[사진 36]은 『잡록(하)』 「환연도중록」의 제7장 앞면 제6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行”자 다음에 쓴 3자 위에 “出塞外” 3자가 씌어 있다. [사진 37]은 옥류산장본 「환연도중록」의 제7장 앞면 제6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出塞外” 3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이 책의 필사자가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出塞外” 3자의 자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공란으로 남겨 놓은 듯하다. [사진 38]은 『열하일기(정)』 「환연도중록」의 제7장 앞면 제6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도록 지시한 “出塞外” 3자가 제대로 씌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잡록(하)』의 「환연도중록」은 옥류산장본과 『열하일기(정)』 「환연도중록」의 선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39] 『잡록(하)』 「옥갑야어」

[사진 40] 옥류산장본 「진덕재야화」

[사진 41] 『행계집』 「옥갑야화」

[사진 42] 『열하일기(정)』 「옥갑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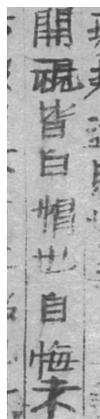
『잡록(하)』의 「옥갑야어」는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제1행에는 “玉匣夜語”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2행에는 “行還至玉匣”으로 시작되는 원문이 씌어 있다. 이 책에서 제1행부터 제4행까지 편명을 비롯한 총 4행은 종이를 붙여 다시 쓴 것이다([사진 39] 참고). 이로 인해 제2행부터 제4행에는 총 65자가 씌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10행 20자로 된 판식에서 다섯 글자가 추가되었다. 또한 제10장 뒷면 4행부터 “或曰”로 시작되는 새로운 내용의 後識가 씌어 있는데, 이곳의 후지도 종이를 붙여 새로 쓴 것이다.<sup>17)</sup>

옥류산장본에는 제1장 제1행에 “進德齋夜話”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2행에는 “與諸俾譯”으로 시작되는 원문이 씌어 있다([사진 40] 참고). 제10장 뒷면에는 제4행부터 “余年十二時”로 시작되는 후지가 씌어 있다. 이로 보아 『잡록(하)』 「옥갑야어」의 최초 편명은 「진덕재야화」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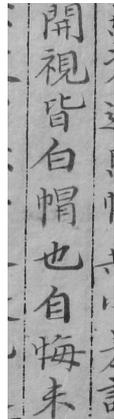
17) 연암은 『잡록(하)』의 「허생전」 뒤에 붙여 놓은 후지가 그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사용된 용어로 보아, 자신의 글이 순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처음에 쓴 후지 위에 종이를 붙여 놓고, 이곳에 복별론의 허구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후지를 다시 써놓았다(정재철, 『『열하일기』 <옥갑야화> 수록 허생후지 연구』, 『대동한문학』 68, 대동한문학회, 2021, 132쪽).

『행계집』의 「옥갑야화」는 제1장 제1행에 “玉匣夜話”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2행에는 “行還至玉匣”으로 시작되는 원문이 씌어 있다. 제1장의 앞면과 뒷면은 모두 종이를 붙여 다시 쓴 것이다([사진 41] 참고). 또한 제9장 제7행부터 “或曰”로 시작되는 후지가 씌어 있는데, 이곳의 후지도 종이를 붙여 새로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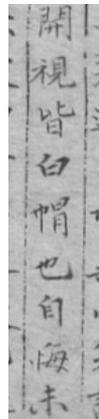
『열하일기(정)』의 「옥갑야어」는 제1장 제1행에 “熱河日記卷之”라는 표제명이 씌어 있고, 제2행에는 “潘南朴趾源美齋 著”라는 작가명이 씌어 있다. 제3행에 “玉匣夜語”라는 작품명이 씌어 있고, 제4행에 “行還至”로 시작되는 원문이 씌어 있다. 제4행부터 시작되는 원문은 1행당 20자에 맞추어 씌어 있다([사진 42] 참고).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43]



[사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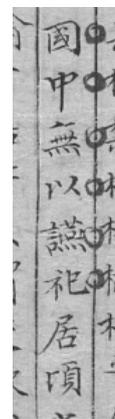
[사진 45]



[사진 46]



[사진 47]



[사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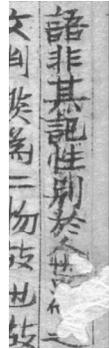
[사진 43]은 『잡록(하)』 「옥갑야어」의 제4장 뒷면 제2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開視”에서 “視”자가 다른 글자 위에 씌어 있고, “悔末”에서 “末”자가 “不”자 위에 씌어 있다. [사진 44]는 옥류산장본 「진덕재야화」의 제3장 뒷면 제2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開視”에서 “視”자가 제대로 씌어 있고, “悔末”에서 “末”자가 제대로 씌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45]는 『행계집』 「옥갑야화」의 제3장 앞면 제8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옥류산장본과 같다.

[사진 46]은 『잡록(하)』 「옥갑야어」의 제5장 앞면 제7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國中” 다음에 쓴 3자 위에 “無以讌” 3자가 씌어 있다. [사진 47]은 옥류산장본 「진덕재야화」의 제5장 앞면 제7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無以讌” 3자가 제대로 씌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48]은 『행계집』 「옥갑야화」의 제4장 뒷면 제10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옥류산장본과 같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잡록(하)』의 「옥갑야어」는 옥류산장본 「진덕재야화」와 『행계집』 「옥갑야화」의 선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잡록(하)』의 「곡정필담」은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휘본 「곡정필담」은 서문과 총 29 단락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잡록(하)』의 「곡정필담」은 서문부터 단락 12의 전반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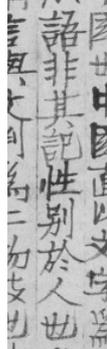
가 없다. 이는 『행계집』 「곡정필담」, 실학박물관본 『곡정필담』(사진 71 참고) 등과 마찬가지로, 서학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누락된 듯하다.<sup>18)</sup>



[사진 55]



[사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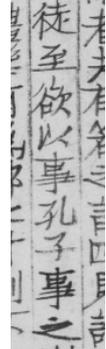
[사진 57]



[사진 58]



[사진 59]



[사진 60]

[사진 55]는 『잡록(하)』 「곡정필담」의 제27장 뒷면 제1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語”자 다음에 쓴 6자 위에 “其記性別於人也” 8자가 씌어 있다. 이로 인해 1행당 20자로 이루어진 판식에서 제5행에는 두 자가 추가되었다. [사진 56]은 『행계집』 「곡정필담」의 제27장 뒷면 제10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其記性別於人也” 8자가 1행 20자에 맞게 씌어 있다. 이는 『잡록(하)』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사진 57]은 『곡정필담』 「곡정필담」의 제28장 앞면 제10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행계집』과 같다.

[사진 58]은 『잡록(하)』 「곡정필담」의 제26장 앞면 제10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欲事以事孔子之禮” 8자가 씌어 있다. [사진 59]는 『행계집』 「곡정필담」의 제26장 앞면 제10행의 일부이다. 이곳은 『잡록(하)』와 같다. [사진 60]은 『곡정필담』 「곡정필담」의 제26장 뒷면 제10행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至欲以事孔子事之” 8자로 수정되어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잡록(하)』의 「곡정필담」은 『행계집』과 『곡정필담』의 「곡정필담」의 선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열하일기』 교정본

### (1) 『행계잡록(6)』·『행계집』

『행계잡록(6)』과 『행계집』은 ①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행계잡록(6)』에는 「경개록」·「황교문답」·「행재잡록」·「반선시말」·「희본명목」·「환회기」·「피서록」·「동란섭필」 등 8편이 수록되어 있고, 『행계집』에는 「망양록」·「필담의례」·「찰십륜포」·「곡정필담」·「옥갑야화」 등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두 책에 수록된 13편에서 「옥갑야화」를 제외한 12편의 편차는 연휘본 『열하일기』의 편차와 일치한다(〈표 3〉 참고).

18)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 245쪽~246쪽.

『행계잡록(6)』에 수록된 8편에서 「황교문답」·「행재잡록」·「반선시말」·「희본명목」 등 4편은 초고본인 『열하일기』 4편을 교정한 것이다(〈표 3〉 참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열하일기』와 『행계잡록(6)』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열하일기』·『행계잡록(6)』 「황교문답」·「희본명목」의 원문 비교

	『열하일기』	『행계잡록(6)』
「황교문답」	余問法王法術, 是名何道. <sup>19)</sup> ( ① )	余問法王法術, 是名何道. ①亨山曰: 所謂黃教. 余曰: 黃教乃黃老之道耶. 抑亦黃白之術耶. <sup>20)</sup>
「희본명목」	頃刻之間, 山移海轉, ②神出鬼沒, 凡易本搜戲之際, 不少遲延, 無一物參差, 無一事顛③錯. <sup>21)</sup>	頃刻之間, 山移海轉, ( ② ) 無一物參差, 無一事顛③倒. <sup>22)</sup>

〈표 4〉에서 『열하일기』 「황교문답」에는 “余問法王法術, 是名何道.”라고 하여, 연암이 형산에게 황교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 씌어 있다. 『행계잡록(6)』 「황교문답」에는 밑줄 친 ①에 “亨山曰: 所謂黃教. 余曰: 黃教乃黃老之道耶. 抑亦黃白之術耶” 24자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연암이 형산에게 ‘황교가 황제와 노자의 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연금술이나 신선이 되는 술법을 말하는지’라고 질의한 것이다. 연암은 이곳에서 황교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드러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24자를 추가한 듯하다.

〈표 4〉에서 『열하일기』의 「희본명목」에는 8월 13일 전후 3일에 걸쳐 행해진 희극의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씌어 있다. 이곳에는 밑줄 친 ②에 “神出鬼沒, 凡易本搜戲之際, 不少遲延.” 15자가 씌어 있다. 『행계잡록(6)』의 「희본명목」에는 밑줄 친 ②가 삭제되어 있다. 또한 밑줄 친 ③에 “錯”자가 “到”자로 씌어 있다. 연암은 이곳에서 희극의 장면을 밑줄 친 ②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순정하지 않다고 보고, 위의 15자를 삭제한 듯하다. 또한 “顛錯”보다는 “轉倒”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수정한 듯하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행계잡록(6)』의 「황교문답」과 「희본명목」은 초고본인 『열하일기』의 「황교문답」과 「희본명목」을 수정한 교정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열하일기(리)』

『열하일기(리)』는 ㉔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이 책은 총 4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는 제10장 두주에 “나는 금년 여름에 『내각시강의』를 교열했다[余於今夏, 校閱內閣詩講義.]”라는 내용이 씌어 있는데, 이는 1783년 5월(이하 음력) 이덕무가 『내각모시강의』를 교열한 사실과 부합한다.<sup>23)</sup> 이로 보아 『열하일기(리)』는 적어도 이덕무가 이 책에 두주를

19) 실학박물관본, 『열하일기』 「황교문답」 장17장b.

20) 연민문고본, 『행계잡록(6)』 「황교문답」 장16장a.

21) 실학박물관본, 『열하일기』 「희본명목」 장2b.

22) 연민문고본, 『행계잡록(6)』 「희본명목」 장2b.

2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돌베개, 2022), 81쪽.

쓴 1783년 5월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에서 「동란섭필」이 수록된 이본으로는 『행계잡록(6)』·『열하일기(리)』·『행계잡록(5)』·『열하일기(형)』 등 4종이 있다(〈표 3〉 참고). 위와 같은 「동란섭필」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4종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행계잡록(6)』·『열하일기(리)』·『행계잡록(5)』·『열하일기(형)』 「동란섭필」의 원문 비교

	『행계잡록(6)』	『열하일기(리)』	『행계잡록(5)』	『열하일기(형)』
사례 1	椶樹我國所謂① <u>덩가남부, 廣檟木</u> . 我國至賤, 而中原② <u>數千里未見一株</u> . <sup>24)</sup>	椶樹我國所謂① <u>自作木, 以爲冊板</u> . 我國至賤, 而中原② <u>墳墓前多此樹, 靑石嶺成林</u> . <sup>25)</sup>	椶樹我國所謂① <u>自作木, 以爲冊板作</u> . 我國至賤, 而中原② <u>墳墓前多此樹, 靑石嶺成林</u> . <sup>26)</sup>	좌동 <sup>27)</sup>
사례 2	奪王子③ <u>信城君及大臣金貴榮黃廷彧等以歸</u> . <sup>28)</sup>	좌동 <sup>29)</sup>	좌동 <sup>30)</sup>	奪王子③ <u>順和君及大臣金貴榮黃廷彧等以歸</u> . <sup>31)</sup>

〈표 5〉의 ‘사례 1’에서 『행계잡록(6)』에는 “밑줄 친 ①에 “덩가남부 廣檟木” 7자가 씌어 있고, 밑줄 친 ②에 “數千里, 未見一株.” 7자가 씌어 있다. 『열하일기(리)』에는 밑줄 친 ①에 “自作木, 以爲冊板.” 7자가 씌어 있고, 밑줄 친 ②와 같이 “墳墓前多此樹, 靑石嶺成林.” 11자가 씌어 있다. 이는 『행계잡록(6)』의 “덩가남부 廣檟木” 7자와 “數千里, 未見一株.” 7자를 수정한 것이다.

‘사례 1’에서 『행계잡록(5)』에는 밑줄 친 ①에 “自作木, 以爲冊板作.” 8자가 씌어 있고, 밑줄 친 ②에 “墳墓皆種此樹, 靑石嶺成林.” 11자가 씌어 있다. 이는 『열하일기(리)』의 “自作木, 以爲冊板.” 7자에서 “作”자를 추가한 것이고, “墳墓前多此樹, 靑石嶺成林.”에서 “前多” 2자를 “皆種” 2자로 수정한 것이다. 『열하일기(형)』은 『행계잡록(5)』와 같다.

〈표 5〉의 ‘사례 2’에서 『행계잡록(6)』에는 밑줄 친 ②에 “信城君”으로 씌어 있다. 『열하일기(리)』와 『행계잡록(5)』는 『행계잡록(6)』과 같다. 『열하일기(형)』에는 밑줄 친 ②에 “順和君”으로 씌어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초고본 계열의 이본에 수록된 「동란섭필」은 『행계잡록(6)』 → 『열하일기(리)』 → 『행계잡록(5)』 → 『열하일기(형)』의 순으로 교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4) 연민문고본, 『행계잡록(6)』 「동란섭필」 장7b.  
 25) 연민문고본, 『열하일기(리)』 「동란섭필」 장8b.  
 26) 연민문고본, 『행계잡록(5)』 「동란섭필」 장8b.  
 27) 연민문고본, 『열하일기(형)』 「동란섭필」 장8b.  
 28) 연민문고본, 『행계잡록(6)』 「동란섭필」 장26b.  
 29) 연민문고본, 『열하일기(리)』 「동란섭필」 장29a.  
 30) 연민문고본, 『행계잡록(5)』 「동란섭필」 장29a.  
 31) 연민문고본, 『열하일기(형)』 「동란섭필」 장29b.

## (3) 『잡록(상)』·『행계잡록(5)』

『잡록(상)』과 『행계잡록(5)』는 ㉔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잡록(상)』에는 「망양록」·「필담의례」 등 2편이 수록되어 있고, 『행계잡록(5)』에는 「환희기」·「피서록」·「동란섭필」 등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두 이본에 수록된 5편의 편차는 연후본 『열하일기』의 편차와 일치한다(〈표 3〉 참고).

『잡록(상)』의 「망양록」과 「필담의례」는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양록」에는 본문 단락(1)의 대부분과 단락(2) 전체 및 단락(3)의 전반부가 없는데, 이는 연암이 서학을 예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로 추정된다. 또한 단락(7)의 후반부와 단락(8)이 있는 제5장이 통째로 제거되어 있다.<sup>32)</sup>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에서 「망양록」이 수록된 이본으로는 『행계집』·『잡록(상)』·『열하일기(원)』 등 3종이 있다(〈표 3〉 참고). 위와 같은 「망양록」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3종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행계집』·『잡록(상)』·『열하일기(원)』 「망양록」의 원문 비교

	『행계집』	『잡록(상)』	『열하일기(원)』
사례 1	故謂①敝處六藝全部, 獨漏秦焰②也. <sup>33)</sup>	故謂①○○六藝全部, 獨漏秦焰②○流傳敝邦也. <sup>34)</sup>	故謂( ① )六藝全部, 獨漏秦焰, ②而流傳敝邦也. <sup>35)</sup>
사례 2	今先生③挾朱子定論, 其斥蘇更嚴於朱子, 未免爲高麗逞憾. <sup>36)</sup>	先生斥蘇更嚴於朱子, 未免爲高麗逞憾, ③是挾朱子定論. <sup>37)</sup>	今先生③挾朱子定論, 其斥蘇更嚴於朱子, 未免爲高麗逞憾. <sup>38)</sup>

〈표 6〉의 ‘사례 1’에서 『행계집』에는 밑줄 친 ①에 “敝處” 2자가 씌어 있고, 밑줄 친 ②에 “也”자가 씌어 있다. 『잡록(상)』에는 밑줄 친 ①에 2자가 ○○로 지워져 있고, 밑줄 친 ②에 “也”자가 ○로 지우고 왼쪽 행간에 “流傳敝邦也.” 5자가 씌어 있다. 『열하일기(원)』에는 밑줄 친 ①에 “敝處” 2자가 빠져 있고, 밑줄 친 ②에 “而流傳敝邦也.” 6자가 씌어 있다. 이는 『잡록(상)』에서 수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표 6〉의 ‘사례 2’에서 『행계집』에는 밑줄 친 ③에 “挾朱子定論, 其” 6자가 씌어 있다. 『잡록(상)』에는 밑줄 친 ③에 “是挾朱子定論.” 6자가 씌어 있다. 이는 『행계집』에서 문장의 중간에 쓴 “挾朱子定論” 5자를 문장의 끝부분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열하일기(원)』은 『행계집』과 같다. 이는 『잡록(상)』에서 문장의 끝부분으로 옮겨놓은 “挾朱子定論”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다시 문장 중간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32) 김명호, 『염암 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 242쪽.

33) 연민문고본, 『행계집』 「망양록」 장19a.

34) 연민문고본, 『잡록(상)』 「망양록」 장21a.

35) 연민문고본, 『열하일기(원)』 「망양록」 장22a.

36) 연민문고본, 『행계집』 「망양록」 장31a.

37) 연민문고본, 『잡록(상)』 「망양록」 장34b~장35a.

38) 연민문고본, 『열하일기(원)』 「망양록」 장35a.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초고본 계열의 이본에 수록된 「망양록」은 『행계집』 → 『잡록(상)』 → 『열하일기(원)』의 순으로 교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4) 『곡정필담』

『곡정필담』은 ㉔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이 책은 총 2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상단에는 “鵠汀筆談以上十二張落” 10자가 씌어 있다(사진 7 참고). 「곡정필담」은 ‘序’와 총 29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상단에 쓴 10자는 ‘序’부터 단락(11)에 해당하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잡록(하)』에는 서문부터 단락(12)의 전반부까지가 없고, 『행계집』에는 본문 단락(2)부터 단락(11)의 일부까지가 누락되어 있다.<sup>39)</sup>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에서 「곡정필담」이 수록된 이본으로는 『잡록(하)』·『행계집』·『곡정필담』 등 3종이 있다(〈표 3〉 참고). 그런데 『곡정필담』은 원문을 교정하면서 『행계집』보다는 『잡록(하)』의 원문을 중시한 듯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고본 계열과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에 수록된 「곡정필담」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열하일기』 이본 6종의 「곡정필담」 원문 비교

	『잡록(하)』	『행계집』	연휘본	『곡정필담』	옥류산장본	온재문고본
사례 1	余曰: 理宗有宋垂亡之末主, 其①典學與否, 本不足論. 而至以世主好學爲作聰明之資, 則先生之言誤矣. <sup>40)</sup>	余曰: 理宗有宋垂亡之末主, 其①學問本不足論, 而猶賢乎己也. 又況崇祀五賢之功, 歷代之所罕比者乎. <sup>41)</sup>	좌동 42)	余曰: 理宗有宋垂亡之末主, 其①典學與否, 本不足論. 而至以世主好學爲作聰明之資, 則先生之言誤矣. <sup>43)</sup>	좌동 <sup>44)</sup>	좌동 45)
사례 2	薄姬魏豹之美人, 孝景王皇后, 奪之金王孫, ②則蓋次公蕩腸之論, 深中漢室之所忌. <sup>46)</sup>	薄姬魏豹之美人, 孝景王皇后, 奪之金王孫, ②陰麗華之寤寐思服, 未知誰所歌詠乎. <sup>47)</sup>	좌동 48)	薄姬魏豹之美人, 孝景王皇后, 奪之金王孫, ②則蓋次公蕩腸之論, 深中漢室之所忌. <sup>49)</sup>	薄姬魏豹之美人, 孝景王皇后, 奪之金王孫, ②陰麗華之寤寐思服, 未知誰所歌詠乎. <sup>50)</sup>	좌동 51)

39)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 238쪽~246쪽.

40) 연민문고본, 『잡록(하)』 「곡정필담」 장1a.

41) 연민문고본, 『행계집』 「곡정필담」 장4장a.

42) 연휘본,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13장a.

43) 실학박물관본, 『곡정필담』 「곡정필담」 장2a.

44) 옥류산장본,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14a.

45) 온재문고본,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14a.

46) 연민문고본, 『잡록(하)』 「곡정필담」 장23b.

47) 연민문고본, 『행계집』 「곡정필담」 장24장a~장25b.

48) 연휘본,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33a~장33b.

49) 실학박물관본, 『곡정필담』 「곡정필담」 장24b, 장2a.

50) 옥류산장본,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36b.

51) 온재문고본, 『열하일기』 「곡정필담」 장36b.

〈표 7〉에서 ‘사례 1’의 『잡록(하)』에는 밑줄 친 ①에 “典學”에서 “誤矣”까지 28자가 씌어 있다. 이곳은 곡정이 송나라 理宗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황제의 자질이 총명하다고 말했는데, 연암이 곡정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행계집』에는 밑줄 친 ①에 “學問”에서 “者乎”까지 28자가 씌어 있다. 이곳은 연암이 理宗의 학문은 논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理宗이 五賢을 받들어 제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암은 이곳에서 理宗이 유학을 높였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위와 같이 수정한 듯하다.

‘사례 1’에서 연회본은 『행계집』과 같다. 이와 달리 『곡정필담』은 『잡록(하)』와 같다. 또한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인 옥류산장본, 온재문고본은 모두 『잡록(하)』와 같다. 이로 보아 연암은 『행계집』에서 수정한 理宗의 치적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옥류산장본을 비롯한 이본에서 이를 다시 수정하여 『잡록(하)』의 원문을 그대로 쓴 듯하다.

〈표 7〉에서 ‘사례 2’의 『잡록(하)』에는 밑줄 친 ②에 “則蓋次公蕩腸之諭深中漢室之所忌.” 15자가 지워진 글자 위에 씌어 있다. 이곳은 次公 蓋寬饒가 한나라 황실에서 말하기를 꺼렸던 외척 許伯의 방탕한 생활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행계집』에는 밑줄 친 ②와 같이 “陰麗華之寤寐思服, 未知誰所歌詠乎.” 15자가 씌어 있다. 이곳은 광무 황제가 陰麗華라는 여자를 오매불망 잊지 못하였다는 사례를 추가하고, 사람들은 위와 같은 추잡한 사실을 시로 짓거나 노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례 2’에서 『곡정필담』에는 밑줄 친 ②와 같이 『잡록(하)』와 같이 15자가 지워진 글자 위에 씌어 있다. 이와 달리 『열하일기』 계열에 속하는 연회본, 옥류산장본, 온재문고본에는 모두 『행계집』과 같다. 이로 보아 연암은 『잡록(하)』와 『곡정필담』에서 수정한 개관요의 언행이 신하의 본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에서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행계집』의 원문을 그대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 (5) 『행계잡록(1)(2)(3)』·『열하일기(원)(형)(정)』

『행계잡록(1)(2)(3)』과 『열하일기(원)(형)(정)』은 ㉞ 유형으로 된 판식에 씌어 있다(〈표 2〉 참고). 『행계잡록(1)』과 『행계잡록(2)』에는 「도강록」, 「성경잡지」, 「일신수필」, 「관내정사」 등 4편이 수록되어 있고, 『행계잡록(3)』에는 「도강록」, 「막북행정록」, 「태학유관록」 등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열하일기(원)(형)(정)』에는 「망양록」, 「심세편」, 「동란섭필」, 「구외이문」, 「산장잡기」, 「환연도중록」, 「금료소초」, 「옥갑야어」 등 8편이 수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행계잡록(1)』과 『행계잡록(3)』에는 내용이 다른 「도강록」이 수록되어 있다. 『행계잡록(3)』에 수록된 「도강록」을 제외한 나머지 13편의 편차는 연회본 『열하일기』의 편차와 일치한다(〈표 3〉 참고).

『행계잡록(3)』의 제1장에는 “燕行陰晴記目錄/渡江錄”이라는 표제 목록과 편명이 씌어 있고, 제3장 제1행에는 “燕行陰晴記”라는 표제가 씌어 있다(사진 8) 참고. 『행계잡록(3)』의 제4장에 씌어 있는 “도강록”은 표제가 “연행음청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卷次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행계잡록(3)』의 「도강록」은 『행계잡록(1)』의 「도강록」의 선행본으로서, 현

전하는 이본 중 「도강록」의 최초의 원고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sup>52)</sup>

『행계잡록(1)』의 「도강록」은 『행계잡록(3)』의 「도강록」을 교정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계잡록(3)』과 『행계잡록(1)』 「도강록」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행계잡록(3)』·『행계잡록(1)』 「도강록」의 원문 비교

	『행계잡록(3)』	『행계잡록(1)』
사례 1	①我人直前奪其鞭，擊其赤脚，②又擒下一胡，齊丈伏之，直開其鬢數之曰 吾們의大人 ③爾敢小覷 陪奉是何等物件. <sup>53)</sup>	①馬頭直前奪其鞭，擊其赤脚，( ② )曰：吾們의大人 ( ③ ) 陪奉是何等物件. <sup>54)</sup>
사례 2	排戶力猛，一推而覺. ( ④ ) 正使曰：俄者夢魘頗久矣. <sup>55)</sup>	排戶力猛，一推而覺. ④正使方呼燕巖，余猶恍惚應之. 問曰：此即何地? 正使曰：俄者夢魘頗久矣. <sup>56)</sup>

〈표 8〉의 ‘사례 1’에서 『행계잡록(3)』에는 6월 27일에 청나라 말몰이꾼이 연암 일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자, 마두가 그의 채찍을 빼앗아 맨다리를 후려치면서 말한 내용이 씌어 있다. 『행계잡록(1)』에는 밑줄 친 ①에 “我人”이 “馬頭”로 수정되어 있다. 그리고 밑줄 친 ②의 “又擒下一胡，齊丈伏之，直開其鬢數之.” 15자와 밑줄 친 ③의 “爾敢小覷.” 4자가 삭제되어 있다. 이곳에서 연암은 마두가 청나라 말몰이꾼에 취한 행동과 말몰이꾼이 연암을 ‘조금 얕본다[小覷]’라고 쓴 표현이 순정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한 듯하다.

〈표 8〉의 ‘사례 2’에서 『행계잡록(3)』에는 7월 6일에 연암이 연산관에서 밤에 술에 취해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후 그가 깨어나서 한 행동이 씌어 있다. 이곳에서 연암은 꿈에서 자신이 한양의 옛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밀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였다. 『행계잡록(1)』에는 이곳에 밑줄 친 ④에 “正使方呼燕巖，余猶恍惚應之. 問曰：此即何地.” 18자가 추가되어 있다. 연암은 『행계잡록(3)』에서 잠에서 막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俄者夢魘頗久矣”라고 말한 정사의 말을 쓰는 것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이곳에 정사와 문답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듯하다.

『행계잡록(2)』 「관내정사」의 제1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卷之”라는 표제가 씌어 있는데, 그중 “熱河日記” 4자는 “燕行陰晴” 4자를 지운 후에 덧쓴 것이다. 제3행에는 “관내정사”라는 편명과 함께 “起庚子止庚戌”로 시작되는 주석이 달려 있고, 제4행에 “聖上四年”으로 시작되는 원문이 씌어 있다. 「관내정사」는 총 4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제23장부터 제29장까지 「호질」이 포함되어 있다.

52) 김명호, 『『행계잡록(1)(2)(3)(5)(6)』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18쪽.

53) 연민문고본, 『행계잡록(3)』 「도강록」 장12a.

54)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도강록」 장11b~장12a.

55) 연민문고본, 『행계잡록(3)』 「도강록」 장44b.

56)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도강록」 장44b.



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주로 「황도기략」이 수록되어 있다. 연암의 친필로 추정되는 표지에 “燕行陰晴乾”이라는 표제가 씌어 있다. 제2장에는 “熱河日記卷之/ 潘南朴趾源美齋 著/ 皇都紀略”이라 씌어 있고, ‘금오교’가 수록되어 있다(사진 9 참조).

『연행음청(견)』의 뒷부분에는 앞부분의 「황도기략」과는 다른 「황도기략」의 일부가 제1장에 씌어 있다. 권수제로 “熱河日記卷之/ 潘南朴趾源美齋 著/ 玉蝨遊錄”이라 씌어 있고, ‘금오교’와 ‘경화도’가 수록되어 있다. 제2장에는 연암이 문하생인 崔鎭寬이 그의 계부 崔輝星을 위해 지은 ‘墓表陰記’가 씌어 있는데, 이 글은 연암이 1789년 최진관의 청탁으로 「癡庵崔公墓碣銘」을 지어 주었다.<sup>61)</sup> 이로 보아 연암이 『연행음청(견)』에 「황도기략」을 필사한 것은 1789년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행음청(견)』의 「황도기략」은 『황도기략(1)』과 『황도기략(2)』에서 적지 않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세 이본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휘본 『연행음청(견)』·『황도기략(1)』·『황도기략(2)』 「황도기략」의 원문 비교

	『연행음청(견)』	『황도기략(1)』	『황도기략(2)』
사례 1	是時明亡僅閱月，而我國從人①輩見武英殿龍墀，只有蝙蝠矢②云。③足想當時光景，④觸目寒心也。 <sup>62)</sup>	是時明亡僅閱月，而我國從人(①)見武英殿龍墀，只有蝙蝠矢(②)，③相視流涕。今駟卒刷驅，充斥殿庭，恣意遊觀，雖不識當時光景。④亦莫不侮紅帽而羞蹄袖，自視衣袴鴉結，而猶與錦繡者排突，小無愧沮。豈非吾東尊攘之義，亦根於阜隸之賤，而秉彝之所同得，有不可誣也耶。 <sup>63)</sup>	좌동 <sup>64)</sup>
사례 2	⑤我願天下之有金者，必感此哀痛之語，亟散于海內，不望報之人何也。 <sup>65)</sup>	⑤我願天下之人，有之不必喜，無之不必悲，無故而忽然至前，驚若雷霆，嚴若鬼神，行遇草蛇，未有不髮竦而卻立者也。 <sup>66)</sup>	좌동 <sup>67)</sup>

〈표 10〉의 ‘사례 1’에서 『연행음청(견)』에는 명나라가 망한 지 달포가 지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영전에 와서 보니, 천자의 섬돌에 박쥐 똥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씌어 있다. 이곳에서 연암은 당시의 광경을 상상하기만 해도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황도기략(1)』에는 위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있다. 먼저 밑줄 친 ①의 “輩”자와 밑줄 친 ②의 “云”자가 삭제되고, 밑줄 친 ③의 “足相” 2자가 “相視”에서 “不識”까지 20자로 바뀌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역졸과 마부들이 무영전을 마음껏 유람하고 구경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어 밑줄 친 ④의 “觸目寒心也” 5자가 “亦莫”에서 “也耶”까지 56자로 바뀌었다. 이곳은 우리나라 역졸과 마부들은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청나라 관인들의 의복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61) 김명호, 『『연행음청』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69쪽~70쪽.

62)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견)』 「황도기략」 장5b~장6a.

63) 연민문고본, 『황도기략(1)』 「황도기략」 장8a~장6a.

64) 연민문고본, 『황도기략(2)』 「황도기략」 장8a~장6a.

65)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견)』 「황도기략」 장14a.

66) 연민문고본, 『황도기략(1)』 「황도기략」 장19b~장20a.

67) 연민문고본, 『황도기략(2)』 「황도기략」 장19b~장20a.

되어 있다. 『황도기략(2)』은 『황도기략(1)』과 같다. 연암은 이곳에서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대폭 수정한 듯하다.

〈표 10〉의 ‘사례 2’에서 『연행음청(건)』은 「황금대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곳에는 연암이 사람들에게 황금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써여 있다. 이곳에서 연암은 황금을 소유한 사람은 황금으로 몸을 망쳐 애통해하는 사연들을 거울로 삼아, 속히 황금을 온 천하에 나누어주고 어떤 보답을 바라지 말라고 하였다. 『황도기략(1)』에는 밑줄 친 ⑤와 같이 『연행음청(건)』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있다. 이곳은 사람들이 황금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유 없이 황금이 생기더라도 천둥이나 귀신처럼 놀라고 무서워하고 뱀을 만나듯 물러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황도기략(2)』은 『황도기략(1)』과 같다. 연암은 이곳에서 의리에 맞지 않는 재물에 대한 경계를 강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대폭 수정한 듯하다.

## (2) 『황도기략(1)』·『황도기략(2)』

『황도기략(1)』은 ㉠ 유형으로 된 판식에 써여 있다(〈표 2〉 참고). 이 책은 총 5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황도기략」·「알성퇴술」·「양엽기」 등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별도의 표지 없이 오사란의 첫 장에 “皇都紀略 一”이라고 표제가 써여 있다. 본문 제1장에 “熱河日記卷之/皇都紀略”이라 써여 있고, ‘황성구문’이 수록되어 있다(사진 10) 참고).

『황도기략(2)』은 ㉡ 유형으로 된 판식에 써여 있다(〈표 2〉 참고). 이 책은 연암의 친필로 추정되는 총 5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황도기략(1)』과 같은 내용인 「황도기략」·「알성퇴술」·「양엽기」 등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별도의 표지 없이 오사란의 첫 장에 “皇都紀略 一”이라고 표제가 써여 있다. 본문 제1장에 “熱河日記卷之/皇都紀略”이라 써여 있고, ‘황성구문’이 수록되어 있다(사진 11) 참고).

『황도기략(1)』과 『황도기략(2)』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두 책에 써여 있는 「황도기략」의 원문을 『연행음청(건)』의 「황도기략」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회본 『연행음청(건)』·『황도기략(1)』·『황도기략(2)』 「황도기략」의 원문 비교

	『연행음청(건)』	『황도기략(2)』	『황도기략(1)』
사례 1	①天主者, 猶言②天地萬物之大宗也. 西洋人善治曆. <sup>68)</sup>	①■■■■, 猶言②盤古氏天皇氏之號也. 第其人善治曆. <sup>69)</sup>	①■■■■, 猶言②盤古氏天皇氏之稱也. 但其人善治曆. <sup>70)</sup>
사례 2	沛公殺項羽, ③黥布殺沛公, 長沙民殺黥布, 長沙民微史失其名. <sup>71)</sup>	좌동 <sup>72)</sup>	沛公殺項羽, ③其金四萬斤. 石崇之富有自來, 而乃反罵曰: 奴利吾財. <sup>73)</sup>

68)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건)』 「황도기략」 장10b.

69) 연민문고본, 『황도기략(2)』 「황도기략」 장15b.

70) 연민문고본, 『황도기략(1)』 「황도기략」 장15b.

71)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건)』 「황도기략」 장13a.

72) 연민문고본, 『황도기략(2)』 「황도기략」 장19b.

73) 연민문고본, 『황도기략(1)』 「황도기략」 장19b.

〈표 11〉의 ‘사례 1’에서 『연행음청(견)』은 「천주당화」의 중간 부분으로, 이곳에는 天主는 천지 만물의 大宗이라는 말과 함께 서양인들은 역법을 잘 다스린다는 내용이 써여 있다. 『황도기략(2)』에는 밑줄 친 ①의 “天主者” 3자가 ■■■로 지워져 있고, 밑줄 친 ②의 “天地萬物之大宗也. 西洋” 10자가 “盤古氏天皇氏之號也. 第其” 11자로 바뀌어 있다. 『황도기략(1)』은 밑줄 친 ①은 『황도기략(2)』와 같다. 그러나 밑줄 친 ②에서 “號”자는 “稱”자로 바뀌어 있고, “第”자는 “但”자로 바뀌어 있다.

〈표 11〉의 ‘사례 2’에서 『연행음청(견)』은 「황금대기」의 중간 부분이다. 밑줄 친 ③에는 鯨布는 劉邦을 죽이고 長沙 사람은 경포를 죽였는데, 장사 사람은 그 이름이 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써여 있다. 『황도기략(2)』는 『연행음청(견)』과 같다. 그러나 『황도기략(1)』에는 밑줄 친 ③과 같이 “其金”에서 “吾財”까지 21자가 써여 있다. 이곳은 유방이 항우를 죽이는 데 황금 4만 근을 썼고, 石崇이 진나라의 갑부가 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탐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 연암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황금을 탐하는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 위와 같이 대폭 수정한 듯하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보아 『황도기략(1)』은 『황도기략(2)』를 교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맺음말

학계에서는 현재 연암이 가장 초창기에 필사한 『연행음청(곤)』을 비롯해 그 존재가 처음 밝혀진 『부록』에 이르기까지, 총 35종에 달하는 『연암집』과 『열하일기』 이본에 대한 해제가 완료되었다.<sup>74)</sup> 이어 최근에는 『연암집』 39종과 『열하일기』 36종, 『과농소초』 및 보유 18종에 수록된 연암 작품을 교감하고 표점을 가한 ‘교감·표점본 『연암집』’과 ‘정본 『연암집』’이 완성되었다.<sup>75)</sup>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진행된 『열하일기』 연구의 후속 과정으로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11종 19책의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이 11종 19책은 총 11유형으로 이루어진 판식에 총 54편이 써여 있고, 이 54편은 초고본, 교정본, 증편본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고본은 세 유형에 12편이 있다. 박종채가 쓴 『과정록』에 따르면, 아버지 박지원은 글을 지을 때 반드시 오사란지에다 붓을 잡고 淨書하되 한 점 한 획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자구를 고쳐야 할 곳이 생기면 비록 한 편이 거의 끝나갈 때라도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써서 원고를 바꾸어 새롭게 하였다<sup>76)</sup>고 한다.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에서 『연행음청기(3)』·『연행음청

74)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 사업단,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75) 『연암집』 정본 사업단, 『2017년 선정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21.

76) 김윤조, 『역주 과정록』(태학사, 1997), 217쪽.

록(4)의 「성경잡지」, 「일신수필」 등 2편, 『열하일기』의 「황교문답」, 「행재잡록」, 「반선시말」, 「희본명목」 등 4편, 『잡록(하)』의 「곡정필담」, 「구외이문」, 「산장잡기」, 「환연도중록」, 「금료소초」, 「옥갑야어」 6편 등 12편은 위와 같이 연암이 淨書한 친필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정본은 다섯 유형에 35편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교정된 것은 「동란섭필」이다. 이것은 『행계잡록(5)』, 『열하일기(리)』, 『행계잡록(6)』, 『곡정필담』 등 네 곳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 동일 작품이 세 번 교정된 것은 「망양록」, 「심세편」 등 2편이다. 이 두 편은 『행계집』, 『잡록(상)』, 『열하일기(원)』에 수록되어 있다. 동일 작품이 두 번 교정된 것은 「환희기」, 「피서록」, 「곡정필담」, 「옥갑야화」 등 4편이다. 그중 「환희기」와 「피서록」은 『행계잡록(6)』과 『행계잡록(5)』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곡정필담」은 『행계집』과 『곡정필담』에 수록되어 있고, 「옥갑야화」는 『행계집』과 『열하일기(정)』에 수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교정본 35편은 대필로 쓴 필사본에 연암이 수정을 가한 것으로, 그중에는 연암이 직접 써서 교정한 친필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편본은 두 유형에 7편이 있다. 『연행음청(진)』의 「황도기략」 1편, 『황도기략(1)』의 「황도기략」, 「알성퇴술」, 「양엽기」 등 3편, 『황도기략(2)』의 「황도기략」, 「알성퇴술」, 「양엽기」 등 3편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 『연행음청(진)』의 「황도기략」, 『황도기략(2)』의 「황도기략」, 「알성퇴술」, 「양엽기」 등 4편은 모두 연암의 친필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열하일기』의 교정은 연암을 거쳐 그의 아들 박종채로 이어졌다. 박종채는 초고본 계열의 이본에 수록된 「망양록」을 교정하여 연민문고본 『연암집』(가제)에 수록하였고, 3년 상이 끝난 직후인 1807년에 이를 다시 교정하여 『고정망양록』을 편찬하였다. 이어 그는 『연암집』 외집 『열하일기』와 『연암집』 별집 『열하일기』를 차례로 편찬하였다. 그가 『연암집』 별집 『열하일기』를 편찬한 시기는 전남대본과 성호본의 「구외이문」에 써어 있는 두주의 내용으로 보아 1816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sup>77)</sup>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연암에 이어 아들 박종채까지 2대에 걸쳐 진행된 『열하일기』의 교정 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난마처럼 얽혀 있어 그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던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 이본의 실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계열로 이루어진 『열하일기』 이본의 선후 관계와 교정 양상을 규명하는 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7) 정재철, 「박종채의 『열하일기』 편집과 교정-연암산방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59집(대동한문학회, 2019), 8쪽.

## 참고문헌

### 〈자료〉

- 실학박물관본, 『열하일기』, 실학박물관.  
실학박물관본, 『곡정필답』(낙질본), 실학박물관.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건)(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잡록(상)(하)』,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2)(3)(5)(6)』,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행계집』,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열하일기(원)(형)(리)(정)』,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황도기략(1)(2)』,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양매시화』,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열하피서록』,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동양문고본, 『연휘』, 『연암설총』, 일본 동양문고,  
다백운루본, 『열하일기』,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옥류산장본, 『열하일기』,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만송문고본, 『열하일기』, 고려대 도서관.  
중국국도본, 『열하일기』, 중국국가도서관.  
일재본, 『열하일기』,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충남대본, 『열하일기』, 충남대 도서관.  
온재문고본, 『열하일기』, 국립중앙도서관.

### 〈논저〉

- 김명호, 「『열하일기』 이본(異本)의 재검토」,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2022.  
김윤조,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김철조, 「『열하일기』 정보화 작업의 제문제 - 신자료 소개를 겸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71집, 한국한문학회, 2018.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 사업단,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서현경, 「『열하일기』 定本の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 박사논문, 2008.  
『연암집』 정본 사업단, 『2017년 선정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21.  
정재철, 「박종채의 『열하일기』 편집과 교정-연암산방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59집,

대동한문학회, 2019.

정재철, 「『열하일기』 〈옥갑야화〉 수록 허생후지 연구」, 『대동한문학』 68, 대동한문학회, 2021.

정재철, 「신자료 『열하일기』 선행본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연구」, 『동양학』 89,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2.

#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 혈 조(전 영남대학교 교수)

기왕의 학계에서 짧은 산문 한 편을 정치하게 분석한 경향의 논문들이 있었다. 특히 하나의 산문이 심오한 사상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연암의 산문과 같은 경우에 그러한 연구는 종종 있었으며, 완결성을 갖춘 한 편의 논문으로 대접받아 왔다. 거기에 연구자의 화려하고 교묘한 논리까지 갖춘 논문이라면 더욱 환영받았으며, 연구자 역시 그러한 손쉬운 방법에 대한 논문의 유희를 뿌리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에 많은 자료를 읽고 이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려는 실증적 연구는, 특히 원전비평과 같은 연구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이라는 이유에서 애써 외면하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학계의 연구 풍토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정재철 교수가 발표한 업적은 그 자체 유의미한 것이고, 또 작업의 결과 거두어들이는 성과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정교수 논문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지만, 핵심은 초고본 계열의 『열하일기』를 그 필사 시기의 선후를 따져서 ‘초고본’, ‘교정본’, ‘증편본’의 세 가지 형태로 파악한 것에 있다. 그동안 『열하일기』의 이본은 ‘초고본 계열의 이본’, ‘『열하일기』 계열 이본’, ‘『연암집』 외집 계열의 이본’, ‘『연암집』 별집 계열 이본’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왔었는데, 정교수는 그동안 알려진 ‘초고본 계열의 이본’에다 새롭게 발견된 필사본인 『연행음청 곤』, 『연행음청 기3』, 『연행음청록4』, 『열하일기1책』 및 『곡정필담1책』을 추가하여 초고본 계열간의 성책 선후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필사용지의 판식을 중심으로 ‘초고본’, ‘교정본’, ‘증편본’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 방법론과 거둔 성과가 예사롭지 않고 또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으나,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첫째, 사용한 용어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이다. 연암의 친필본 12편을 초고본이라고 말한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교정본’과 ‘증편본’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다. 용어 자체도 문제이지만, 두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몇 글자의 수정

을 ‘교정본’이라고 명명하고, 내용의 대폭적 수정이나 추가가 있는 경우를 ‘증편본’이라고 이름한 것인가? 그 경계가 모호하다.

金聖七 선생은 「옛사람들의 文集校正-『열하일기』의 경우」라는 글에서 推敲와 校正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자 자신의 수정행위를 퇴고라고 말하고, 타인(문인, 자제, 후학)의 수정행위를 교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퇴고는 작품을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교정은 이미 완성된 작품에 대한 손질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이다. 김선생의 말을 따른다면 여기 ‘증편본’도 사실은 퇴고본의 하나일 것이다. 김선생의 말이 두 용어의 절대적 구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정본’과 ‘증편본’의 용어를 따져볼 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고본 계열을 3가지로 다시 세분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다. “㉠유형에서 ㉢유형까지 11유형의 판식”(발표요지 11쪽)이라고 하여 마치 11종의 판식이 사용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개의 유형인데 굳이 이렇게 11종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필사본의 판식에 의한 구분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분류 방법은 없을까? 예컨대 필사의 글씨체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암의 필체는 선이 굵은 예서체 모양의 해서로 아주 독특한 글씨체인데, 이를 가지고 친필 초고본을 비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친필 초고본은 정교수가 말한 12편보다 그 숫자는 증가하거나, 12편 안에도 과연 최초의 초고본일까 의심이 되는 편이 생긴다. 예컨대 『행계잡록5』의 「환희기」, 「피서록」 등은 연암의 친필인데, 이는 초고본이 아닐까 한다.

셋째, 『열하일기』의 이본의 4가지 계열 분류는 김명호 교수의 논지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김교수의 분류기준이 과연 진선진미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김교수는 특히 책의 체제를 분류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토론자는 책의 내용 즉, 자구의 수정 혹은 개작된 부분이 분류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고본을 여과없이 그대로 필사한 경우, 이는 초고본 계열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열하일기의 체제를 갖춘 ‘열하일기 계열의 이본’에 분류된 책자들 중에는 저자의 퇴고 이전에 필사된 책자가 있다.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된 책들은 여기에 소속되어야 한다. ‘연휘본’, ‘일재본’, ‘만송문고본’, ‘옥류산장본’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필사 성책한 필사본이다.

오늘 발표자도 서론에서 말한바 있는 ‘연휘본(동양문고소장)’의 일부는 바로 저자의 퇴고 이전의 최초의 초고본에 해당한다. 여기 수록된 관내정사의 「호질」은 연암이 퇴고 이전의 본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본이다. 연암은 「호질」 본문과 그 후지의 내용 중 80자 정도를 삭제하였으나(『행계잡록2』-발표요지 29쪽), 연휘본은 이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다. 곧 퇴고 이전의 작품을 필사한 것이다. 그야말로 초고본을 그대로 복사한 필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삭제 표시를 해놓은 「호질」이 수록된 『행계잡록2』를 ‘초고본 계열의 이본’으로 분류하면서, 삭제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연휘본’의 일부가 초고본 계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모순이다.

넷째, 작품의 내용이 초고본과 퇴고본 혹은 교정본과 다를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내용상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 타인의 교정 특히 고의적 훼손이라면 보다 초고본을 우선해야 함이 물론이지만, 초고본과 저자 자신의 퇴고본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것을 택할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초고본을 택하면 퇴고를 거친 작품보다도 초고를 통하여 작가의 긴박한 호흡을 더 가까이 체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작가의 최종적인 의도를 존중해서 퇴고본을 따라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연암은 서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그 불똥이 『열하일기』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수정하였다. 『망양록』은 내용과 순서를 바꾸어 서학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게 중간으로 배치하였고, 『황도기략』의 「천주당」과 「천주당화」는 그 제목을 「풍금」과 「양화」로 각각 수정하고 내용 역시 손질을 가하였다(발표요지 32쪽). 『일신수필』의 총각의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 역시 당시 양반의 도덕성에 비추면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삭제하였다. 위에 예를 든 「호질」처럼 80자를 삭제한 것이라든지, 『옥갑야화』에서 역사적 실제 인명을 ‘훈척권귀’로 바꾼 것, 後識를 전면 교체한 것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느 것을 따르냐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터이다. 위에서 언급한 「호질」 후지의 삭제된 부분은 작품의 저자 문제를 확정하거나, 주제 사상을 해결할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저자의 퇴고본을 따르기 어렵다.

다섯째, ‘초고본 계열의 이본’들이 갖는 자료적 가치는 무엇인가?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그 가치가 살고 빛이 날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물음이다. 저자의 친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 이외에 어떤 답이 있을까? 수많은 이본, 특히 교정된(고의적 왜곡과 훼손, 필사의 실수 등이 있는) 이본들과 초고본이 상이할 때, 초고본은 원저자의 작품을 규명하는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것 역시 평범한 답이다. 일반인들에게 여기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연암 관련 저작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을까?

18세기에 만들어진 조선의 달항아리 하나가 미국 경매장에서 한화 60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도자기와 서책의 가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연암의 친필 초고본도 역시 현재의 시세로 환금해서 말해야 그 중요성이 환기될까? 연암과 생몰연대가 비슷한 이태리 출신의 난봉꾼, 희대의 기인인 카사노바는 말년에 불어로 된 자서전을 집필하였다. 그 원본이 독일에 흘러 들어가 민감한 부분을 빼고 출판되었으며, 최근에 프랑스 정부와 국립도서관은 그 원본을 126억원에 매입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자서전에 사용된 18세기 불어의 언어학적 가치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매입을 결정했다고 하는 프랑스 문통부장관의 발언은 우리에게 꿈같은 이야기이다. 특히 역사가 뒤로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더욱 기대난망이다.

친필 초고본은 연암이라는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의 정신적 고뇌에서 나온 우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카사노바 자서전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대우하는 것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최소한

의 예우일 것이다. 그렇다고 연암의 저작을 한 기관의 비밀 금고 속으로 束閣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야 한다.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초고본의 체계적인 정리, 실물의 공개, 영인 작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번역의 문제-호질의 삭제된 부분(발표요지 29쪽)

是猶不足以肆其暴焉，則或歌而殺焉，或哭而殺焉，或看而殺焉，或笑中有刀。

이곳에서 사람들 서로 노래하며 죽이고, 울어가며 죽이고, 바라보면서 죽이고, 웃으면서 칼을 휘둘러 죽인다

→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극도의 포악한 짓을 자행하였으니, 어떤 여자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노래 부른 여인을 죽였고, 어떤 인간은 초상이 나서 한밤중에 곡하는 틈을 타서 곡하는 사람을 죽였고, 어떤 인간들은 잘생긴 사람을 구경하게 하여 그 등쌀에 그를 병들어 죽게 만들었고, 어떤 인간은 대화하는 웃음 속에 상대를 해치는 칼을 숨기기도 하였다.

〈漢나라 呂太后는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되자 戀敵이었던 戚夫人을 투옥하고 그녀가 감옥에서 방아노래 舂歌를 부르자 그 노래가 아들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노래라고 얹어매어 척부인의 아들 趙王을 죽였으며 척부인의 수족을 자르고 측간에 넣어 人屍라고 불렀다. 成漢의 武帝 사후에 그의 조카 李班이 즉위하자 무제의 친자인 李越은 이반이 밤중에 곡하는 틈을 타서 그를 시해하고 자신의 동생 李期를 왕위에 올렸다. 晉나라 衛玠는 미남자였는데, 그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등쌀에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看殺衛玠). 당나라 李義府는 남과 대화를 할 때 온화한 미소를 짓지만 자신의 뜻에 어긋난 사람은 반드시 해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웃음 속에 칼을 감추었다(笑中有刀)고 하였다.〉





燕巖 朴趾源 手稿本  
『燕行陰晴』(坤)의 의미와 가치

발표 : 박철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토론 : 서현경(한국고전번역원)



# 燕巖 朴趾源 手稿本 『燕行陰晴』(坤)의 의미와 가치

박 철 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 | 목 차 |

- |                     |                          |
|---------------------|--------------------------|
| 1. 시작하는 말           | 3. 『燕行陰晴』(坤)과 『열하일기』의 관계 |
| 2. 『燕行陰晴』(坤)의 서지 검토 | 4. 맺음말                   |

## 시작하는 말

‘燕巖’은 조선후기 한문학의 큰 關鍵이다. 그리고 『熱河日記』는 연암 문학의 핵심이다. 특히 19세기 한문학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연행문학에서 『열하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보다 크다. 당연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근래에는 연암 후손가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異本 연구가 활발해진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熱河日記』의 형식에 주목하였다. 『熱河日記』의 체제가 다른 연행록과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熱河日記』가 단순한 ‘연행록’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熱河日記』의 본래 모습이 궁금했다. 그러던 중 卷子本 형태의 『熱河日記』를 발굴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sup>1)</sup> 연암은 귀국 후 상당히 오랫동안 연행에서 기록한 쪽지들을 정리하여 몇 권의 『열하일기』로 완성했다고 하였다.<sup>2)</sup> 여기에는 자신이 일정을 기록한 日記는 물론이고, 筆談資料, 書信, 記文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연암은 이들 자료를 오랫동안 정리하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열하일기』로 엮었던 것이다. 원자본 『열하일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정리 자료 중 하나를 전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열하일기』의 새로운 異本으로서 『열하일기』의 탄생과 유통 과정을 생각해볼 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암이 직접 정리한 연행록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燕行陰晴’(坤)이란 제목의 燕行錄이 소장되어 있는 것

1) 2019년 4월 20일 제128차 대동한문학회 학술대회 <연암그림 문헌의 새로운 이해(2)>에서 「신발견 卷子本 『熱河日記』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2) 朴趾源, 『燕巖集』 권2, <答李仲存書>. “及其歸後, 非但物議不到, 反有羨吾之是行者. 山居無聊, 掇拾故紙, 編成幾卷, 此其所以爲熱河日記也.”

을 확인하였다.<sup>3)</sup> 보는 순간 연암 친필의 연행록임을 알 수 있었다.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현전하는 『熱河日記』의 최초 모습임이 분명했다. 이를 활용하여 정재철 교수는 『熱河日記』 선행본 연구를 진행하였다.<sup>4)</sup> 다만, 정재철 교수의 논문은 『熱河日記』의 선행본 연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필자는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熱河日記』의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2. 『燕行陰晴』(坤)의 서지 검토

정재철 교수의 논문에는 ‘燕行陰晴’, ‘燕行陰晴錄’, ‘燕行陰晴記’ 등의 서명이 등장한다. 이들 서명은 『熱河日記』라는 제목으로 완성되기 전의 모습이다. 특히 ‘燕行陰晴錄卷之四’ 마지막 면에는 ‘熱河日記卷之’라 묵서되어 있는데, 이는 ‘연행음청록’이 ‘열하일기’로 서명이 바뀌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燕行陰晴錄卷之四’ 뒤에 붙어 있는 ‘燕行陰晴記卷之三’의 목록 표기는 ‘燕行陰晴錄目錄’, 표제는 ‘燕行陰晴錄’이다. 이는 ‘연행음청록’, ‘연행음청기’란 서명이 혼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燕行陰晴』(坤)이란 서명의 책이 있다. 이는 형태적으로 볼 때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간행한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에 수록된 『燕行陰晴』(乾)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燕行陰晴』(乾)은 『열하일기』 중 「黃圖紀略」을 주로 필사한 것인데, 표지에 ‘燕行陰晴 乾’이란 표제가 있고, 우측에 ‘關內程史 本艸’, ‘天涯結隣集 脫出 在散稿 第二冊中’이라 묵서되어 있다. 그런데 내제는 ‘熱河日記卷之’이다. 이는 형태적으로 ‘燕行陰晴錄’과 유사하다. 반면에 『燕行陰晴』(坤)은 체제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체제가 전혀 다른데도 ‘乾’, ‘坤’으로 묶은 것은 연암이 한 게 아니라, 연암 사후 원고 정리과정에서 추가로 써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책은 형태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책으로 봐야 한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서명은 『燕行陰晴』(坤)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서지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책은 표지 포함 22장이다. 표지는 ‘燕巖山房’이라 인쇄된 용지를 사용했는데, 표제는 ‘燕行陰晴’이고, 제목 아래로 ‘貧經附’라 묵서되었고, 그 아래로 추가로 써 넣은 ‘坤’자가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貧經’, ‘熱河宮殿記’가 묵서되어 있다. 제2장~5장까지는 「貧經」이란 글이 있고, 제6장은 ‘燕行路程’이 간단히 묵서되어 있다. 제7장은 「熱河宮殿記」이고, 제8장부터 연행일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연행일기’에 ‘貧經’과 ‘熱河宮殿記’를 추가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그런데 ‘燕行路程’이 기록된 곳부터 여백과書眉에 細筆의 기록들이 있

3) 이 자료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기수연 선생이 발굴하여 제공한 자료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4) 정재철, 「신자료 『열하일기』 선행본 『연행음청기』(3)·『연행음청기』(4) 연구」, 『東洋學』 제8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10.

다. 이 기록들은 『燕行陰晴』(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맨 앞에 붙어 있는 「빈경」은 제1행 상단에 ‘貧經’이란 제목이 묵서되어 있고, ‘冷朝陽 輯 李陽氷 校’라는 글자가 2행~3행의 하단에 기록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 보면 ‘冷朝陽이 모이고 李陽氷이 교정을 했다’는 의미다. 冷朝陽은 당나라 시인이고, 李陽氷은 篆書로 이름을 남긴 당나라 書家이다. 이 책은 ‘貧’에 관한 구절을 여러 책에서 뽑아 만든 것이다. 처음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자공(子貢)이 말했다. “가난한데도 아침하지 않고 부유한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대답했다. “괜찮지만, 가난한데도 즐거워하며 부유한데도 예(禮)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sup>5)</sup>

『論語』 「學而」에 있는 글이다. 「빈경」은 이러한 글 14조목을 뽑은 것이다. 마지막 조목은 『史記』 「管仲列傳」에 기록된 管仲과 鮑叔 관련 글이다.<sup>6)</sup>

管仲이 말했다. “내가 일찍이 포숙과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나누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갔지만 포숙은 날 탐욕스럽다 여기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날 낳은 분은 부모지만, 날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

이 글 뒤로 ‘貧經’이라는 제목의 글이 추가로 이어진다. 그런데 뒷부분의 글은 현실 세상에선 옛날 포숙과 같은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옛날이야기 속의 ‘千古鮑叔’은 있어도 현실 세계에서 ‘萬一鮑叔’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는 이런 책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연암이 가난을 주제로 쓴 글인데,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萬一鮑叔’이 있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 좀 더 확대하면 〈許生傳〉의 시작이 되는 관점도 확인된다. ‘冷朝陽’이 편집자로 되어 있고, ‘李陽氷’이 교정자로 되어 있지만, 이는 가탁일 뿐이다. 이들 이름에 가난을 상징하는 ‘冷’과 ‘氷’이 들어 있는 것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떨렁한 아침 햇살이 편집, 수면위의 얼음이 교정’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이 글은 연암의 문집에 실리지 않은 것이고, 처음 발굴된 것이다.

이어서 燕行路程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雨渡 鴨綠江’, ‘露宿 九連城’, ‘柵門’, ‘鳳城 鳳凰山’, ‘宿 松站’, ‘通遠堡’ 등이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일기에서는 6월 24일에 ‘雨渡鴨綠江’이라 하였고, 25일 기록에는 ‘露宿九連城’이라 하였다. 또 27일에는 ‘入柵’, 28일에는 ‘中火鳳凰城’과 ‘宿松站’, 29일에는 ‘宿通遠堡’의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일기의 주요 일정을 소재목으로 뽑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 시도하다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5) “子貢曰, 貧而不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也”.

6) “管仲曰, 吾嘗與鮑叔賈, 分利多自與, 鮑叔不以我爲貪, 知仲貧也.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叔也”.

제7장의 「熱河宮殿記」 또한 『열하일기』에 실리지 않은 글이다. 이 글의 앞부분은 진시황의 阿房宮과 漢高祖의 未央宮을 거론하며 宮室園囿가 德義에 害가 됨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尹嘉銓이 『論語』 「八佾」에 있는 ‘喪與其易也寧戚, 禮與其奢也寧儉’이란 구절을 인용하여 문장을 논한 이야기를 太史 高棅生에게 전하자, 高棅生이 ‘知儉之爲美, 而不知雅則陋而已’라는 말로 尹嘉銓의 이야기를 칭찬했다는 내용이다. 연암은 이에 대해 ‘雅’는 ‘儉之光輝’이라는 말로 글을 맺고 있다. 이는 연암이 열하궁전을 보고 느낀 감회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儉’자를 통해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여백지에는 앞뒤로 빼곡히 여러 글들이 細筆로 묵서되어 있고, 다음 장부터는 일기가 시작된다. 일기에는 별도의 제목이 없고, ‘庚子五月初十日’로 시작되며, 이어 다음 줄에는 ‘自燕巖入中京’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1780년 5월 10일에 燕巖에서 中京으로 온 것을 기록한 것이다. 첫째 줄 하단에는 ‘陳賀兼謝恩使行’이라는 문구가 초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에 쓴 게 아니라 후에 써넣은 것이다. 이어서 일자별로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17일자 기록이다.

十七日乙未. 還京寓居平洞李在誠仲存家, 妻子時先已自鄉來寓. 李妻亦來待, 皆無恙可喜.

17일 을미(乙未). 서울에 돌아와 평동(平洞) 이재성(李在誠) 중존(仲存)의 집에 임시로 살았다. 아내와 자식은 이때 먼저 이미 시골에서 돌아와 살고 있었고, 이처(李妻, 이씨에게 시집간 딸)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별 탈 없으니 매우 기뻐다.

이어 21일자부터는 연암이 연경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송별하러 찾아온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二十一日. 晴. 洪進士大應伯理昆季來別, 各有贐什. 族侄宗五聖徽, 族孫南壽[有贐什]來別.

21일. 맑음. 진사 홍대응(洪大應, 자는 伯理)과 그의 막내 동생 홍대형(洪大衡) 곤계(昆季)가 전별하러 왔는데, 각각 전별시가 있다. 족질(族侄) 종오(宗五, 자가 聖徽인 듯), 족손(族孫) 남수(南壽)[전별시 있다]가 전별하러 왔다.

이렇게 시작된 일기는 7월 30일까지 남아 있다. 『열하일기』로 보면 「渡江錄」, 「盛京雜識」, 「駙汎隨筆」 및 「關內程史」의 일부 일정이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열하일기』는 6월 24일부터 시작되지만, 『연행음청』(근)은 5월 10일 연행을 위해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부터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열하일기』로는 알 수 없었던 박지원의 연행 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貧經」과 「熱河宮殿記」라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두 편의 새로운 글도 확인되었다. 서체로 볼 때 연암의 친필이 분명하지만, 연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귀국 후 다시 정리한 초기 원고로 볼 수 있을 듯하다.

### 3. 『燕行陰晴』(坤)과 『열하일기』의 관계

박지원은 여행에서 귀국한 뒤,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 내외 2편을 보게 되었다. 박지원은 이 책의 내용이 자신의 『열하일기』 내용과 같은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사흘 만에 독파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끝에 친필의 <북학의서>를 지어 붙였는데,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에 남아 있다. 박지원이 1781년(정조 5) 重陽日에 쓴 <北學議序>이다.

내가 연경에서 돌아오자 在先이 그의 『북학의』 內外 2編을 보여주었다. 대개 재선은 나보다 앞서 연경에 들어간 사람이다. 농업, 잡업, 목축, 성곽, 궁실, 배, 수레로부터 기와, 삿자리, 문방구, 자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눈여겨보고 속으로 따져보지 않은 게 없었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 책을 펼쳐봤더니 나의 日錄과 어긋나는 게 없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였다. 이게 바로 기꺼이 내게 보여준 이유이며, 내가 기쁘게 사흘을 읽고도 싫증을 내지 않은 까닭이다.<sup>7)</sup>

박지원은 이 글에서 자신의 글을 ‘日錄’이라 하였다. 이는 연암이 여행에서 돌아와 공식적으로 『熱河日記』를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 처남 이재성에게 보낸 편지에도 초기 여행기록에 관한 언급이 있다.

나는 지난번에 멀리 여행하면서 일정, 숙박, 날씨, 日時를 모두 기록하였다.<sup>8)</sup>

돌아온 뒤로는 物議가 이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이 여행을 부러워하는 자도 있었다. 산에 살면서 무료해지자 옛날 종이를 수습하여 몇 권으로 엮었다. 이것이 『열하일기』를 지은 연유다.<sup>9)</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지원이 여행에서 기록한 게 『熱河日記』가 아니라, 일정, 숙박, 날씨, 일시 등을 기록했는데, 훗날 이들을 정리한 게 『열하일기』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행록을 단순히 정리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연행음청』(곤)의 개략적인 서지 사항은 살펴보았다. 정재철 교수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연행음청』(곤)에 수록된 글의 일부가 『연행음청록』(4)이 아닌 『열하일기』의 다른 편을 저술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을 밝혔다.<sup>10)</sup> 이는 『연행음청』

7) “余自燕還，在先爲示其北學議內外二編，蓋在先先余入燕者也。自農蚕畜牧城郭宮室舟車，以至瓦簞筆尺之制，莫不目數而心較，目有所未至，則必問焉，心有所未諳，則必學焉。試一開卷，與余日錄，無所齟齬，如出一手。此固所以樂而示余，而余之所欣然讀之三日而不厭者也”。

8) 朴趾源, 『燕巖集』 권2, <答李仲存書>. “吾曩於遠遊也，其行程頓宿，陰晴日時，未可以無記也。”

9) 朴趾源, 『燕巖集』 권2, <答李仲存書>. “及其歸後，非但物議不到，反有羨吾之是行者。山居無聊，掇拾故紙，編成幾卷，此其所以爲熱河日記也。”

10) 정재철 앞의 논문 8쪽~10쪽.

(곤)이 『열하일기』로 발전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연행음청』(곤)에 실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연행음청』(곤)이 『열하일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연행음청』(곤)의 기록과 『열하일기』의 기록 비교

『연행음청』(곤)은 일반적인 여행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행 일정 중심으로 아주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열하일기』의 뼈대라 할 수 있다. 『연행음청』(곤)의 기록이 『열하일기』에서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6월 25일의 『연행음청』(곤) 기록으로 살펴보겠다.

二十五日曉大雨午稍霽. 以方物未及到. 又露宿九連城.

날짜와 날씨, 방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 구련성에서 노숙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사실 서장관도 아닌 사람이 달리 기록할 게 없었을 것이다. 이날 『열하일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二十五日壬申. 朝小雨, 午晴. 各房及譯員等諸屯, 處處出晒衣衾, 見濕於夜雨故也. 刷馬驅人中, 有負酒而來, 戴宗【宣川奴, 御醫卞主簿馬頭.】沽獻一瓶, 遂相携臨溪命酌, 渡江後望絕東酒, 而今忽得之, 非但酒味大佳, 暇日臨流, 趣不可勝. 馬頭輩爭投竿釣魚, 余醉, 奪一緡投之, 即得二小魚, 蓋魚未慣釣故也. 以方物未及到, 又露宿九連城.

밑줄 친 부분은 『연행음청』(곤)의 기록 그대로다. 약간의 윤색이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여기에 연암은 함께 여행 가는 사람들이 밤비에 젖은 옷을 말리는 이야기, 馬頭가 술을 사와 함께 마신 이야기, 낚시한 이야기 등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당연히 이 이야기들은 훗날 써넣은 것이다. 일부는 기억을 떠올려 기록했을 것이고, 일부는 아주 재밌게 풀어냈을 것이다. 대부분 여행 중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후에 정리과정에서 삽입한 이야기 들이다. 『연행음청』(곤)의 모든 기록은 이런 과정을 거쳐 『열하일기』에 포함된 것이다.

## 2) 『연행음청』(곤)과 『열하일기』의 일자별 날씨 비교

『연행음청』(곤)은 바로 이재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대로 ‘여행일정, 숙박, 날씨,日時’ 등을 기록한 책이다. 일반적인 여행록인 셈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열하일기』와 『연행음청』(곤)에 기록된 날씨 부분을 비교해보겠다(〈표 1〉 참조).

<표 1> 『열하일기』와 『연행음청』(곤)의 날씨 표기

일자	『열하일기』	『연행음청』(곤)	비고
6.24	朝小雨, 終日乍灑乍止.	雨	渡江錄
25	朝小雨, 午晴.	曉大雨, 午稍霽.	
26	朝霧晚晴	朝霧晚晴	
27	朝霧晚晴	朝霧晚雨	
28	朝霧晚晴	朝霧	
29	晴	晴	
7.1	曉大雨	曉大雨	
2	曉大雨, 晚晴.	晴	
3	曉大雨, 朝晝快晴, 夜又大雨達曙.	雨. 夕大雨連夜.	
4	自昨夜達曙大霽.	一雨連朝.	
5	晴	快晴	
6	晴	晴	
7	晴	晴	
8	晴	晴	
9	晴	晴	盛京雜識
10	雨卽晴	小雨	
11	晴	晴	
12	小雨卽晴	小雨	
13	晴大風	晴大風	駙汎隨筆
14	晴	晴風	
15	晴	晴	
16	晴	晴	
17	晴	晴	
18	晴	晴	
19	晴	晴	
20	朝晴晚雨	晴	
21	乍雨乍晴	雨	
22	晴	霽	
23	小雨卽晴	微雨	關內程史
24	晴	晴	
25	晴	陰	
26	晴, 午後大風雷雨, 卽止.	午風雷雨電	
27	晴	晴	
28	朝晴, 午後風雷大作.	朝晴	
29	晴	晴	
30	晴	晴	

이 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첫째는 『열하일기』와 『연행음청』(곤)의 날씨 표기가 다른 곳이 여럿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하일기』의 기록이 좀 더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연암이 『열하일기』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약간의 潤色을 가했을 가능성이다. 어떤 경우라 해도 『열하일기』의 정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 3) 『연행음청』(곤) 여백지의 기록의 의미

제6장 전후 여백과 제7장 「熱河宮殿記」 다음의 제8장에는 16개 항목의 글이 細筆로 묵서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고 근거를 표시하면 <표 2>와 같다. 이중 9개 항목의 글은 『江漢集』에 실린 記文에서 뽑은 것이다. 나머지 글은 박지원의 창작인지 다른 책에서 뽑은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된 16개 항목의 글 중에서 7개 항목은 『열하일기』 「銅蘭涉筆」, 1개 조목은 「太學留館錄」, 1개 항목은 「鶴汀筆談」에 수정되어 실렸다. 따라서 여백지의 글은 『연행음청』(곤)이 『열하일기』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표 2> 『연행음청』(곤) 여백지 기록의 근거

연번	『燕行陰晴』(坤) 여백지 기록	출전	
		내용	서명
1	丁丑十一月二十二日,正朝使韓亨吉,書狀官李後陽之行,載紅柶三十馱而行,勅使又督納二(萬箇).十一月英俄兒代,馬福塔,戴雲曾之來,在道馳獵,責納房妓,少不如意則鞭朴狼藉,倭人亦請馬三(百鷹)三百(野鶴)三百.	崇禎丁丑十一月二十二日,正朝使[與建州和解後]韓亨吉,書狀官李後陽之行,定例外別貢紅柶三十馱,勅使又督納二萬箇,其時勅使英俄兒,馬福塔,戴雲曾,在道馳獵,責納房妓,少不如意,則鞭扑狼藉,倭人亦求馬三百鷹三百野鶴三百.今此使行所持方物,不過紙席,而中國賜賚供給,留館員役,常費十餘萬云,比諸清初,可謂反爲貽弊中國.	『열하일기』 「銅蘭涉筆」
2	皇明崇禎十一年,李時英率兵五千入建州,與明都督祖大壽戰於松山,清人以時英兵爲前行,而土兵李士龍,獨礮不入丸,凡三發無傷者.遂見殺.大壽聞之,乃大書旂上曰,朝鮮義士李士龍,以風其軍.建州人望見其旗,亦義之.土龍星州人,星州玉川上有忠烈祠.	皇明崇禎十一年,我國將李時英率兵五千,入建州,清人劫時英爲前行,與明都督祖大壽戰於松山,土兵皆精砲,祖軍多殲,下令軍中,虜頭一顆,予銀五十兩,鮮人一級,予銀百兩.土兵李士龍,星州人也,獨礮義不入丸,凡三發無傷,欲以明本國之心也.清人覺之,遂斬士龍以徇,祖軍望見皆大哭,大壽乃大書旂上曰,朝鮮義士李士龍,以風時英軍.今星州玉川上,有忠烈祠,卽士龍俎豆之所.苟使皇帝聞士龍名,合當特予美諡.余過松山,作文以吊士龍之魂.	『열하일기』 「銅蘭涉筆」
		此義士李士龍祠也.毅宗皇帝十一年,李時英率兵五千入瀋陽,士龍與焉.瀋陽兵與明都督祖大壽,戰于松山,以時英兵爲前行,而士龍礮不入鉛,凡三發,無一傷者,遂見殺.大壽聞之,乃大書旂上曰‘某國義士李士龍’,以風其軍.瀋陽人望見其旂,亦爲之動容.	『강한집』 〈星州忠烈祠記〉
3	崔孤雲幼入唐,學文章,舉乾符元年及第,爲侍御使內供奉,賜紫金魚袋.黃巢叛,都統高駘辟從事,光啓元	公諱致遠,幼入唐,舉乾符元年及第,爲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黃巢叛,都統高駘辟從事.光啓元	『강한집』 〈崔孤雲廟記〉

연번	『燕行陰晴』(坤) 여백지 기록	출전	
		내용	서명
	元年, 充詔使歸事金氏, 爲翰林侍讀學士, 兵部侍郎, 知瑞書監事. 乾寧元年, 上十事, 新羅主不能用, 乃棄官入伽耶山. 一朝脫其冠履, 遺之林中, 不知所終. 至今以爲神企. 歸本國二十一年, 唐左僕射裴樞等三十八人, 坐清流, 死白馬驛, 唐遂亡. 二十九年, 新羅國除.	年, 充詔使, 歸事金氏, 爲翰林侍讀學士, 兵部侍郎, 知瑞書監事. 乾寧元年, 上十事, 主不能用, 乃棄官, 入伽耶山, 一朝脫其冠與履, 遺之林中, 不知所終. 案國史, 公歸本國二十一年, 左僕射裴樞等三十八人, 坐清流, 死白馬驛, 唐遂亡, 又二十九年, 金氏國滅.	
4	陝川海印寺紅流洞, 有元戎閣, 藏明中軍都督太子太保李如松笠與袍, 其時所爲詩一篇. 壬辰倭寇, 公以提督遼薊保定山東軍務, 率師疾趨平壤, 破平行長於牡丹峯下, 遣壯士婁國安, 入行長軍, 奪王子及陪臣而歸. 後六年, 公戰死遼東, 詔具衣冠而葬之, 贈少保, 諡忠烈. 當時進兵踰鳥嶺, 自聞慶還忠州.	我國陝川海印寺紅流洞, 有元戎閣, 藏明中軍都督太子太保李如松笠與袍, 其時所爲詩一篇, 余嘗遊海印寺, 出袍笠觀之. 笠帽可三圍, 可驗其頭腦, 揀寺僧最長者, 著其袍, 委地尺餘. 萬曆壬辰, 我東被倭寇, 公以提督遼薊保定山東軍務, 率師東援, 疾趨平壤, 破倭將平行長於牡丹峯下, 遣壯士婁國安, 行長營, 奪王子順和君及大臣金貴榮黃廷彧等以歸. 後六年, 戰死遼東, 詔具衣冠而葬之, 贈少保, 諡曰忠烈. 公東來時, 進兵踰鳥嶺, 自聞慶還忠州, 故其袍笠遺在陝川. <b>公本朝鮮人, 自其遠祖英, 洪武時始入中國, 居襄平, 我國人鮮有知其本者.</b>	『열하일기』 『銅蘭涉筆』
5	經, ‘天子畿內之民, 爲天子齊衰三月, 諸侯之大夫爲天子總衰七月, 諸侯之士與天子畿外之民, 皆無服.’	經, ‘天子畿內之民, 爲天子齊衰三月, 諸侯之大夫, 爲天子總衰七月, 諸侯之士與天子畿外之民, 皆無服.’	『강한집』 〈清州皇廟詩記〉
6	壬辰東救發帑銀八百萬兩.	萬曆壬辰, 神宗天子大發兵, <b>東救我國之難, 其時所發帑銀八百萬兩.</b>	『열하일기』 『銅蘭涉筆』
7	崇禎九年, 南漢之被國也. 毅宗皇帝, 命陳洪範, 率青州, 濟南, 蓬萊樓船, 出長山, 命金日觀, 楚繼功, 率萊州, 即墨, 昌邑兵, 出東江以救之.	其後崇禎中, 瀋陽騎, 自義州入圍南漢. 毅宗皇帝躬大義, 惻怛東顧, 欲爲瀋輔救其急, 命陳洪範率青州, 濟南, 蓬萊樓船之卒出長山, 命金日觀, 楚繼功率東萊, 即墨, 昌邑之卒出東江.	『강한집』 〈清州皇廟詩記〉
8	管幼安, 避地遼東三十年, 以蜀漢章武三年, 自遼東浮海歸魏. 至帝禪延熙四年, 率於魏. 管貢稱幼安居魏, 著故在遼東所有白布單衣. 初其父母文帝時, 爲太中大夫, 不至. 明帝時, 爲光祿勳, 命青州刺史, 以安車徵詣行在, 又不至. 史云, 幼安上魏疏稱草莽臣. 孟子曰, 在國曰市井之臣, 在野曰草莽之臣, 明帝疑幼安爲漢不仕, 問青州刺史程喜曰, 寧爲守節高乎. 我東遼安龍溪上, 有幼安祠.	管幼安, 避地遼東三十年, 築室山中, 講書詩, 習俎豆, 訢訢然若將終身, 彼所謂漢之遺老也. 然幼安以昭烈章武三年, 自遼東浮海歸魏, 至曹叡時, 嘗上疏稱草莽臣, 烏在其爲漢遺老也. 管貢言幼安居魏也, 著遼東時所有白布單衣, 祠其父母. 幼安故在遼東時, 漢猶未亡, 則所有白布單衣, 蓋漢服也. 漢既亡, 猶著遼東白布衣, 祠其父母, 則其志必在於漢也. 初曹丕舉爲太中大夫而不至, 曹叡又舉爲光祿勳, 命青州刺史, 以安車徵詣行在, 而又不至. 於是曹叡疑幼安爲漢不仕, 問刺史曰, 寧爲守節高乎. 幼安爲漢守節高, 則其不稱臣於魏也, 亦明矣.	『강한집』 〈管幼安祠堂記〉
9	順川故屬唐安東府, 高宗所置, 總章元年, 取高氏四十二州, 命左威衛大將軍薛仁貴, 兵二萬來鎮之.	順故屬唐安東府. 安東者, 高宗所置也, 總章元年, 取高氏四十二州, 命左威衛大將軍薛仁貴, 率師二萬以鎮之.	『강한집』 〈清遠樓記〉
10	順天府鸞鳳山下有烈武觀, 明特進光祿大夫前軍都督府左都督南昌劉公綰, 視師之地. 從李如松, 追行長於聞慶, 如松還, 劉獨戍星州. 八莒城與陳璘擊行長順天海口, 圍曳橋十餘日, 行長遁, 東師凡首尾七年, 功最多. 後二十年, 死深河之役. 嘉靖時倭數爲中國患, 自杭州入江寧, 直犯南京. 又自丹陽襲通州, 窺桑河之口, 京師震. 義州北距瀋陽, 僅五百里, 倭渡海, 不數月, 已趨淇上, 將由義州趨瀋陽也. 暴師, 萬里之外, 不憚七年之久者, 蓋欲存瀋輔, 以捍	明特進光祿大夫前軍都督府左都督南昌劉公綰, 字子紳, 喜用大刀, 重百二十斤, 號劉大刀. 全羅道順天府, 烈武觀, 乃其壬辰東援時, 視師之地也. 綰從李提督, 進剿倭酋行長於聞慶, 提督還而綰獨戍星州, 入莒城, 與都督陳璘合擊行長于順天海口, 圍曳橋十餘日, 行長遁, 而東師首尾七年, 功最多. 後二十年, 死深河之役. 當皇明出師之時, 綰請以步卒五千擊倭, 神宗皇帝壯而許之. 明史行長潛出兵千餘騎, 綰遂退云者, 皆誣史也. 史又稱杜松兵敗, 楊	『열하일기』 『銅蘭涉筆』

연번	『燕行陰晴』(坤) 여백지 기록	출전	
		내용	서명
	中國. 劉請以步卒五千擊倭, 神宗壯而許之. 倭既平, 告于太廟, 中原遂無倭患. 明史行長潛出千餘騎, 劉遂退, 此誣史也. 史又稱杜松兵敗, 楊鎬馳騎召公, 騎未至而公已死云. 劉字子紳, 喜用大刀, 重百二十斤. 征緬甸, 羅雄, 播州, 建昌, 皆有功. 天啓元年, 贈少保.	鎬馳騎召緹, 騎未至而緹已死云. <b>今清天子正朝, 必先宗廟而親謁堂子, 或稱鄧將軍廟, 或稱劉大刀祠, 中原人甚祕諱之. 或曰, 劉緹暴歿, 其神甚靈, 天子不親祀, 則天下大疾疫凶歉, 宗廟輒有災異不寧云.</b> 嘉靖時, 倭奴數為中國患, 自杭州入江寧, 直犯南京. 又自丹陽襲通州, 窺秦河之口, 北京遂震, 而諸將莫之能禦, 中國之耻也. 義州北距遼陽城, 堙四百里, 倭奴過海, 不數月疾趨淇上者, 將由義州而入遼陽也。 夫暴天下之師, 戰守海隅, 而不憚萬里之遠, 七年之久者, 蓋欲存藩輔, 以捍中國也. 公諱緹, 字子紳, 喜用大刀一百二十斤. 征緬甸, 羅雄, 播州, 建昌, 皆有成功, 而於東感憤請行, 故功尤大. 天啓元年, 贈少保.	『강한집』 〈烈武亭記〉
11	朴松堂英, 讓寧大君外孫, 天資超邁, 家又富厚, 年十七, 親往遼東, 買鳩鷓以還.	朴松堂英, 讓寧大君外孫, 天資超邁, 家又富厚, 年十七, 親往遼東, 買鳩鷓以還. <b>余至遼東, 店中所養鷓鷄, 千百為群, 既夕飛還, 各尋其家, 店中大石槽, 預灌灰水. 鷓鷄朝出遼野, 飽豆而歸, 爭飲灰水, 皆吐豆則以飼馬.</b>	『열하일기』 「銅蘭涉筆」
12	崇禎甲戌六月二十日, 勅使盧有齡宦官也. 二十四日盧詔使詣成均館謁聖. 本國館學儒生, 參班而出, 贈白金五十兩. <b>物貨發賣之際, 市民有被打而死者.</b>	崇禎甲戌六月二十日, 詔使盧有齡來, 乃宦官也. 二十四日, 盧詣成均館謁聖, 館學儒生例參班, 盧出贈白金五十兩.	『열하일기』 「太學留館錄」
13	安州百祥樓, 未知於何代. 當天下無事時, 中國學士大夫, 被詔書出使吾東者, 皆工詞章, 有禮讓, 而王國迂勞之使, 又極選當時文章之士, 詔使至, 百祥樓觴酒賦詩. 至崇禎間, 登萊遼瀋數千里之間, 舟車幾絕, 而詔使不復至焉. 後八年, 聖安皇帝既即位, 禮部尚書文淵閣太學士高弘圖言, 朝鮮臣順朝廷二百年, 乃遭大難, 宜遣詔使慰諭之, 王子褒納. 於是, 南都士大夫, 皆欲假節為使者, 告禮王國. 其年十月, 高弘圖以太子少師戶部尚書, 致仕歸會稽, 而王國慰諭之使, 不出果. 雖欲復置酒百祥樓, 與王子詔使, 倡酬歌詩, 以頌詠太平, 得乎. 州人為賓客, 禱以百祥故名其樓云.	崇禎九年, 瀋陽兵圍南漢, 遼廣之間數千里, 舟車幾絕, 則詔使不果至焉. 其後十年, 文淵閣太學士高弘圖言, 屬國臣順朝廷二百年, 乃蒙大難, 宜遣詔使慰諭之, 有勅褒納. 於是南都士大夫皆欲假節為使者, 宣揚中國之德美矣. 是歲十月, 高公以太子少師戶部尚書, 乞致仕, 退居會稽, 而屬國慰諭之議, 卒不行. 屬國士臣老且死, 而不得見明衣冠, 雖欲置酒百祥樓, 復與詔使作歌詩, 何可得邪. 樓舊在安州城北, 宋時使者, 為天子禱以百祥而名之云爾.	『강한집』 〈百祥樓記〉
14	萬曆時, 荊門人康國泰坐法, 徙遼陽, 都督劉緹征建州, 國泰從戰死. 子世爵年十七, 直入虜軍, 求父屍. 兵部熊廷弼置之麾下. 遼陽陷, 世爵亡走馬登山, 夜泗壕出塞保, 鳳凰城城陷, 入金石山, 日食木葉, 得不死. 間出義州, 遂避地居會寧府, 常冠楚幘, 而自號其堂曰楚幘.	萬曆時, 荊門人康國泰坐法, 徙遼陽, 都督劉緹征建州, 國泰從戰死. 世爵年十七, 直入虜軍, 求父屍, 兵部熊廷弼置之麾下, 及遼陽陷, 世爵亡入馬登山, 夜泗壕出塞保, 鳳凰城城陷, 入金石山, 日食木葉, 得不死. 間出義州, 遂避地居會寧府, 常冠楚制而自號其堂曰楚幘. <b>過金石山, 義州刷馬驅人輩, 指點言世爵隱身處, 多奇聞.</b>	『열하일기』 「銅蘭涉筆」
15	自山西兵興以來, 崇禎皇帝疏食, 容貌憔悴, 周皇后具饌將進, 瀛國夫人奏言, 夜夢孝純太后流涕曰, ‘為我語帝云云’, 帝再拜舉匕箸, 與皇后相向而泣. 嘗朝昭妃劉氏於慈寧宮, 輒坐而睡, 昭妃戒勿驚, 已而帝攝衣冠, 起而謝曰, 每夜目不交睫, 今夜太妃之前, 困不自持也. 昭妃為之泣下. 帝享國十七年, 憂勞天下如此.	自山西兵興以後, 先帝疏食, 容貌憔悴, 周皇后具饌將進, 會瀛國夫人奏言, “夜夢孝純太后流涕曰, ‘為我語帝, 食無過苦,’” 饌方進而奏亦至, 先帝追念孝純太后, 於是再拜舉匕箸, 與皇后相向而泣, 何暇懸金石之樂, 而作水戲哉. 嘗朝昭妃劉氏於慈寧宮, 輒坐而睡, 昭妃憐之, 戒勿驚, 乃命尚衣謹護之, 已而先帝攝衣冠, 起而謝曰, “每夜目不交睫, 今在太妃之前, 困不自持,” 昭妃為之泣下	『강한집』 〈水嬉圖後記〉

연번	『燕行陰晴』(坤) 여백지 기록	출전	
		내용	서명
16	萬曆九年,利瑪竇入中國,留京師二十九年,稱漢哀帝元壽二年,耶蘇生于大秦國,行教於西海之外,自漢元壽至明萬曆一千五百八十,耶蘇之教,不見於中國之書,豈耶蘇出自遠外,而中國未之聞歟.抑中國久已聞耶蘇之教,而史不之書耶.大秦國,一曰拂林,洪武四年,捏古倫,自大秦國,入中國謁高皇帝,而不言耶蘇之教,何耶.大秦國未始有所謂耶蘇之教,而利瑪竇始託天神,以惑中國也耶.是未可知也.夫佛與耶蘇之教,具出夷狄,相詆排攻擊如仇讐,然,其以異端亂天下,未始不同也.浮屠之教,以形爲幻妄,詩云,天生烝民,有物有則,從浮屠之教,則烝民無物無則也.耶蘇之教,以理爲氣數,詩云,上天之載,無聲無臭,從耶蘇之教,則是上天有聲有臭也.蓋耶蘇以被髮之圖,入中國不六十年天下亂,則未始非此圖漸之也.	萬曆九年,利瑪竇入中國,留京師二十九年,稱漢哀帝元壽二年,耶蘇生于大秦國,行教於西海之外,自漢元壽至明萬曆一千五百餘年,所謂耶蘇二字,不見於中國之書,豈耶蘇出於絕洋之外,中國之士未之或聞耶.雖久已聞之,以其異端而史不之書耶.大秦國,一曰拂林,所謂歐羅巴,乃西洋總名耶.洪武四年,捏古倫,自大秦國,入中國,謁高皇帝而不言耶蘇之教,何耶.大秦國未始有所謂耶蘇之教,而利瑪竇始託天神,以惑中國耶.篤信輪回,爲天堂地獄之說,而詆排佛氏,攻擊如仇讐,何耶.詩云,天生烝民,有物有則,佛氏之學,以形器爲幻妄,則是烝民無物無則也.今耶蘇之教,以理爲氣數,詩云,上天之載,無聲無臭,今乃安排布置,爲有聲臭. <b>這二教孰優也.</b>	『열하일기』 「鶴汀筆談」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江漢集』에 실린 記文에서 뽑아 抄錄한 게 9개 항목이다. 순서대로 보면 <星州忠烈祠記>, <崔孤雲廟記>, <淸州皇廟詩記>, <管幼安祠堂記>, <淸遠樓記>, <烈武亭記>, <百祥樓記>, <水嬉圖後記> 등 8종의 기문에서 초록했는데, <淸州皇廟詩記>에서 2개 항목을 초록했다. 이들은 대부분 약간의 수정과 윤색을 거쳐 초록한 것인데, 이는 활용을 염두에 둔 초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중 2개 항목은 『열하일기』 「銅蘭涉筆」에 수록되었다. 그중 하나는 <항목 2>로 <星州忠烈祠記>에 수록된 李士龍의 일을 적은 것이다. 박지원은 『江漢集』에 실린 글을 뽑아 정리하여 『연행음청』(곤)에 초록하였고, 이를 다시 뽑아 『열하일기』 「銅蘭涉筆」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銅蘭涉筆」의 글이 좀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윤색되었다. 게다가 끝에는 다음 글이 추가되었다.

苟使皇帝聞士龍名, 合當特予美諡. 余過松山, 作文以吊士龍之魂.

자신이 松山을 지나면서 글을 지어 이사룡의 혼을 달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박지원은 이사룡을 위해 지은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박지원은 송산을 지나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이사룡의 일을 정리하여 집어넣고 자신의 경험을 추가한 것이다. 이것이 『열하일기』의 창작 과정의 일단 이란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烈武亭記>에서 뽑은 <항목 10>의 기록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 劉綎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은 <烈武亭記>에서 뽑은 것이지만, 끝에는 자신의 견문을 추가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추가한 글은 다음과 같다.

今淸天子正朝, 必先宗廟而親謁堂子, 或稱鄧將軍廟, 或稱劉大刀祠, 中原人甚祕諱之. 或曰, 劉綎暴歿, 其神甚靈, 天子不親祀, 則天下大疾疫凶歉, 宗廟輒有災異不寧云.

劉縉과 관련된 당시 청나라 황실과 관련된 소문을 집어넣음으로써 현장감 있는 글이 된 것이다. 다음은 출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이 7편이다. 이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열하일기』에 수록되었다. <항목1>은 ‘今此使行所持方物’, <항목 11>은 ‘余至遼東’, <항목 14>는 ‘過金石山’ 등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삽입한 이야기들이다. <항목 4>는 李如松 관련 이야기 이다. 박지원이 이 이야기를 정리한 것은 연행 당시 宣武門 안에서 만난 李鴻文이란 소년이 전해준 인쇄본 『鐵嶺李氏世譜』 2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銅蘭涉筆」에는 이여송 관련 다른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이후 추가된 내용과 함께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항목 6>은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여 실었고, <항목 12>는 일부 산삭하여 실었다. <항목 16>은 불교와 예수교를 비교하며 설명한 글인데, 끝에 ‘這二教孰優也.’란 구절을 추가하여 「鵝汀筆談」에 실렸다. 이 글은 박지원과 尹嘉銓의 대화 형식에서 박지원이 말을 한 부분이므로 그의 창작이 분명하다.

#### 4) 『연행음청』(곤) 書眉의 기록의 의미

‘燕行路程’이 기록된 제6장부터 끝까지 書眉에 세필로 기록된 글들이 있다. 이는 여백지에 기록된 글과는 필사 시점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24개 항목에 이른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흥미로운 건 이중 6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이덕무의 『耳目口心書』, 『叢葉記』, 『雅亭遺稿』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중 10개 항목이 『열하일기』의 「銅蘭涉筆」, 「還燕道中錄」, 「太學留館錄」에 수록되었다.

<표 3> 『연행음청』(곤) 書眉 기록의 근거

연번	『燕行陰晴』(坤) 書眉 기록	출전	
		내용	서명
1	新羅斯多含,年十五六,風標清秀,志氣方正,時人奉爲花郎,其徒千餘人.明陸瓊臺,天資高邁,會講東林,年未三十,弟子已八百人.此二事相類.	新羅斯多含,年十五六,風標清秀,志氣方正,時人奉爲花郎,其徒無慮一千人.明陸瓊臺,天資高邁,會講東林,年未三十,弟子已八百,此二事相類.蒲衣八歲而堯師之,宰子生五歲而贊禹,項橐七歲而爲孔子師.	이덕무 『耳目口心書』(6)
		新羅斯多含,年十五,風標清秀,志氣方正,時人奉以爲花郎,其徒千餘人.余學以比達海之夙成,憑秉健笑曰,新羅花郎之號,絕勝理學先生.芬人齒頰.明陸瓊臺,天資高邁,年纔弱冠,會講東林,摳衣趨隅,立弟子之列者,一朝八百人.	『열하일기』 「銅蘭涉筆」
2	王元美宛委餘篇,載女子爲男子官者,若軍司馬孔氏,顧深母也.貞烈將軍王氏,王厥女也.侯氏,唐氏,王氏,俱唐行營節度許叔冀果毅也.陳女白頸鴉,爲契丹懷化將軍.獨不知唐太宗追贈新羅德女主,爲光祿大夫,冊眞德女主,爲柱國,封樂浪郡王.旣薨,高宗贈開府儀同三事也.	王元美宛委餘篇,載女子爲男子官者,若軍司馬孔氏,顧深母也.貞烈將軍王氏,王厥女也.侯氏,唐氏,王氏,俱唐行營節度許叔冀果毅也.陳女白頸鴉,爲契丹懷化將軍.獨不知唐太宗追贈新羅德女主,爲光祿大夫,冊眞德女主,爲柱國,封樂浪郡王.薨,高宗贈開府儀同也.	이덕무 『叢葉記』(1) <女子爲男子官>

연번	『燕行陰晴』(坤) 書眉 기록	출전	
		내용	서명
3	五倫全備記, 卽丘瓊山諷世之演劇, 而葉疊青錢者, 逐段補之, 凡四卷. 今漢語諺翻, 同老乞大朴通事, 課講譯官.	五倫全備記, 記卽丘瓊山諷世之演劇, 而葉疊青錢者, 逐段補之, 凡四卷. 今漢語諺翻, 同老乞大朴通事, 課講譯官.	이덕무 『耳目口心書』(6)
4	阮亭池北偶談, 載清陰先生詩十餘聯, 甚稱美之. 今見阮亭帶經堂集, 有效元遺山論詩絕句三十六首, 自建安至崇禎末, 歷叙詩人第三十三. 詩曰, 澹雲微雨小姑祠, 菊秀蘭衰八月時, 記得朝鮮使臣語, 果然東國解聲詩. 注曰, 明崇禎中, 朝鮮使臣過登州作云, 蓋清陰詩也.	阮亭池北偶談, 載清陰先生詩十餘聯, 甚稱美之, 今見阮亭帶經堂集, 有戲效元遺山論詩絕句三十六首, 自建安至崇禎末, 歷叙詩人第三十三. 詩曰, 澹雲微雨小姑祠, 菊秀蘭衰八月時, 記得朝鮮使臣語, 果然東國解聲詩. 注曰, 明崇禎中, 朝鮮使臣過登州作云, 蓋首二句, 清陰詩也.	이덕무 『耳目口心書』(6)
5	讀都玄敬京師香山記, 千佛殿, 圓製極工. 成化初, 創於中官, 中官高麗人也. 嘗見其國金剛山, 有圓殿, 故倣寫移其製云, 而金剛山未嘗有圓殿. 惟正陽寺, 有六稜閣, 疑此製歟.	讀都玄敬京師香山記, 入寺觀千佛殿, 殿圓製極工. 成化初, 創於中官, 中官高麗人也. 嘗見其國金剛山, 有圓殿, 故移其製於此云. 金剛山未嘗聞有圓殿, 正陽寺, 有六稜閣, 疑其製歟.	이덕무 『耳目口心書』(6)
6	王貽上集, 載兵部侍郎李輝祖神道碑. 有曰, 鐵嶺李氏, 自寧遠伯成樑, 以閩閩顯勝國, 至本朝, 其門益大, 入參帷幄, 出爲將帥. 李之先出於朝鮮, 其徙襄平, 自英始, 英以軍功, 授鐵嶺衛都指揮使. 子文彬, 文彬子五人, 長春美, 春美子涇, 涇生寧遠, 次春茂, 春茂子潤, 潤子成功, 成功三子, 長曰如樅, 知太原府, 三曰如梓, 如梓子恒忠, 官副都統, 世襲一等阿達哈哈番, 子三人, 長輝祖云云. 其從兄蔭祖, 亦官兵部尙書, 輝祖三子, 錕, 鉉, 錯, 皆有官. 蓋恒忠降於清也, 寧遠之派, 死國事, 獨陵替, 如松之裔, 流落東土者, 能知此否乎.	王貽上集, 載兵部侍郎李輝祖神道碑. 有曰, 鐵嶺李氏, 自寧遠伯成樑, 以閩閩顯勝國, 至本朝, 其門益大, 入參帷幄, 出爲將帥. 李之先出於朝鮮, 其徙襄平, 自英始, 英以軍功, 授鐵嶺衛都指揮使, 子文彬, 文彬子五人, 長春美, 春美子涇, 生寧遠, 次春茂, 春茂子潤, 潤子成功, 成功三子, 長曰如樅, 知太原府, 三曰如梓, 如梓子恒忠, 官副都統, 世襲一等阿達哈哈番, 子三人, 長輝祖云云. 其從兄蔭祖, 亦官兵部尙書. 輝祖三子, 錕, 鉉, 錯, 皆官. 蓋恒忠降於清也, 寧遠之派, 死國事, 獨陵替, 如松之裔, 流落東國者, 能知此否乎. <b>如樅子哈哈番思忠墓誌, 汪堯峯著.</b>	이덕무 『耳目口心書』(6)
7	我朝翰林焚香故事, 其誓文有曰, 薦非其人, 殃及厥世, 蓋重其選也. 清康熙時戊辰, 考試官徐軋學, 作誓文曰, 某等敢以瓣香, 昭告司盟, 某等荷朝命, 典試禮闈, 學術固陋, 大懼弗克得士以備國家任, 使致寒僑抑而不章, 用是矢諸神明, 其有偏私玩易, 弗虛公於乃心, 弗恪恭于迺職, 上負聖恩, 下負多士, 神其殛之, 俾蒙蔽賢顯謬, 禍罰及於厥世, 謹告. 此如翰林誓文, 同其意.	我朝翰林薦, 不罷時, 其誓文有曰, 薦非其人, 殃及子孫, 蓋重其事也. 清康熙戊辰, 考試官徐軋學, 作誓文曰, 某等敢以瓣香, 昭告司盟, 某等荷朝命, 典試禮闈, 學術固陋, 大懼弗克得士以備國家任, 使致寒僑抑而不章, 用是矢諸神明, 其有偏私玩易, 弗虛公於乃心, 弗恪恭於迺職, 上負聖恩, 下負多士, 神其殛之, 俾蒙蔽賢顯謬, 禍罰及於厥世, 謹告. 此如翰林薦誓文, 同其意.	이덕무 『耳目口心書』(6)
8	<b>震澤長語</b> 云, 祖宗時歲用, 以黃蠟一事言之, 國初歲用不過二千斤, 景泰天順間, 加至八萬五千斤, 成化以後, 加至十二萬斤, 其餘可推知也. 又正德十六年, 工部奏, 中帽局缺內侍靴鞋, 合用紵絲紗帽皮張等料, 成化間二十餘萬, 正德八九年, 至四十六萬, 未年至七十二萬, 卽此者其餘可知.	<b>震澤長語</b> 云, 祖宗時歲用, 以黃蠟一事言之, 國初歲用不過二千斤, 景泰天順間, 加至八萬五千斤, 成化以後, 加至十二萬斤, 其餘可推知也. 又正德十六年, 工部奏, 中帽局缺內侍靴鞋, 合用紵絲紗帽皮張等料, 成化間二十餘萬, 正德八九年, 至四十六萬, 未年至七十二萬, 卽此者其餘可知云.	『얼하일기』 『銅蘭涉筆』
9	石奮, 與長子建次甲次乙次慶, 皆官至二千石, 於是號奮爲萬石君. 然慶方爲丞相時, 諸子孫至二千石者十三人, 則爲六萬二千石, 若共合計祖父萬石則七萬二千石.	石奮, 與長子建次甲次乙次慶, 皆官至二千石, 於是號奮爲萬石君. 然慶方爲丞相時, 諸子孫至二千石者十三人, 則爲二萬六千石, 合慶丞相祿四千石, 則爲三萬石, 合奮祿則爲三萬二千石.	이덕무 『盜葉記』(1) 〈三萬二千石〉
10	世傳燒酒, 出於元時, 然宋田錫曰, 暹羅酒, 以燒酒, 復燒二次云, 則非元時物也, 又唐時有劔南燒春. 我國有再煎酒, 謂之還燒酒, 亦暹羅法也.	醫方燒酒, 出於元時, 然宋田錫曰, 暹羅酒, 以燒酒, 復燒二次云, 則非元時也, 又唐時有劔南燒春, 則已先於宋矣. 我國有再煎酒, 名曰還燒酒, 亦暹羅法也.	이덕무 『盜葉記』(1) 〈燒酒〉

연번	『燕行陰晴』(坤) 書眉 기록	출전	
		내용	서명
11	楊無咎游娼館, 作折枝梅於短壁, 往來士大夫多往觀之, 娼藉此以壯門戶, 其後有竊去者, 從此車馬頓衰. 張逸人嘗題崔氏酒壚云, 武陵城裏崔家酒, 地上應無天上有, 雲遊道士飲一斗, 醉臥白雲深洞口, 自是酌者愈衆. 詩畫小技也, 能使妓酒, 頓添聲價.	昔楊無咎遊娼館, 作折枝梅於短壁, 往來士大夫多爲觀此歷訪, 娼藉此以壯門戶, 其後有竊去者, 從此車馬頓衰. 張逸人嘗題崔氏酒壚云, 武陵城裏崔家酒, 地上應無天上有, 雲遊道士飲一斗, 醉臥白雲深洞口, 自是沽者益衆. <b>大約中國名士大夫, 不以娼館酒肆爲嫌, 故呂氏家訓, 所以戒行步出入於茶酒之肆也.</b>	『열하일기』 『還燕道中錄』
12	宋董道錢譜, 載海東蕃錢凡四樣, 曰三韓重寶, 東國通寶, 東國重寶, (海東通寶). 按高麗肅宗二年丁丑, 始鑄錢, 則此樣或其時所鑄也. 朝鮮通寶, 譜不載也.	宋董道錢譜, 載海東蕃錢凡四樣, 曰三韓重寶, 東國通寶, 東國重寶, 海東通寶. 按高麗肅宗丁丑, 始鑄錢, 則此樣或其時所鑄也. 朝鮮通寶, 譜不載也.	이덕무 『耳目口心書』(6)
		宋董道錢譜, 載海東蕃錢凡四樣曰, 三韓重寶, 三韓通寶, 東國重寶, 東國通寶, 而朝鮮通寶, 譜不載焉. <b>推此可知其非久錢也.</b>	『열하일기』 『太學留館錄』
13	山海關三字楷書, 刻關門楣, 關外周以甕城, 又有敵樓則非可以通望也. 世傳李斯書山海關三字, 十里外已宛然望見云者, 妄也. 關城大將軍徐達築非秦長城況, 李斯時安有楷書. 此正與我東占者擲錢以朝鮮通寶爲箕子時錢, 最久通神, 此不曉事. 箕子時, 亦安有楷書.	周主簿曰, 朝鮮通寶, 高於漢五銖錢, 最久通神, 故爲占錢. 余曰, 何爲最久通神, 周曰, 是箕子時錢, 中原人若見之, 當以爲寶, 惜乎不能得帶來. <b>余曰, 此世宗時所鑄也, 箕子時安有楷字.</b>	『열하일기』 『太學留館錄』
14	張寧, 嘗於指揮胡籠寓所, 見其宣廟賜物, 如錢大者二, 形色絕似雲母, 以金相輪郭, 而衍之爲柄紐, 合爲一, 歧則爲兩, 老人眼昏, 張此雙眼, 便於看書字, 倍明大. 近者又於孫景章所再見, 景章云以良馬易得于西域賈胡滿刺, 似聞其名爲優逮. 余按此俗名眼鏡也. 今則至賤, 其種有三十餘, 不知此後復爲何許異製利用於人眼乎. 其未及於朱子晚年也. 優逮卽所謂鬘鬘也.	方洲雜誌, 明張寧著, 嘗以詔使來本國, 曰, 嘗於指揮胡籠寓所, 見其宣廟賜物, 如錢大者二, 絕似雲母, 以金相輪郭, 而衍之爲柄紐, 合則爲一, 歧則爲二, 老人張于雙目, 字明大加倍. 又於孫景章所再見, 景章云以良馬易得于西域賈胡滿刺, 似聞其名爲優逮. 考此諸說, 則借雲之優係, 爲眼鏡之名, 而自宋元已有之, 但不盛行, 故明宣宗時, 易以良馬, 今則人人用之矣.	『雅亭遺稿』11(書五) 〈金直齋鍾厚〉
15	高麗之初, 凡言語, 以大者爲王, 王氏將興之兆也. 高麗之末, 忽呼粳米爲李米, 此我朝將起之讖也. 在晉天福中, 浙中兒童, 市井間皆以趙字爲語助, 如云得則曰趙得云, 可則曰趙可, 其後宋祖受禪, 錢氏納土, 浙中皆屬于趙氏.	高麗之初, 凡言語, 以大者爲王, 此王太祖將起之讖. 高麗之末, 忽呼粳米爲李米, 此我朝將興之兆. 晉天福中, 浙中兒童市井, 皆以趙字爲語助, 如云得則曰趙得云, 可則曰趙可, 後宋祖受禪, 錢氏納土, 浙中皆屬趙氏.	이덕무 『耳目口心書』(6)
16	杭人, 削松爲小片, 薄如紙, 鎔硫黃塗其銳, 名曰發燭, 亦曰粹兒. 齊后妃貧者, 以發燭爲業, 此其始也. 清異錄曰, 枇杉染硫黃, 呼爲引光奴. 我東則只名石硫黃, 削柳蘸其尖.	杭人, 削松爲小片, 薄如紙, 鎔硫黃塗其銳, 名曰發燭, 亦曰粹兒. 齊后妃貧者, 以發燭爲業, 此其始也. 清異錄曰, 枇杉染硫黃, 呼爲引光奴. 東國則削柳木爲之, 只名石硫黃.	이덕무 『耳目口心書』(6)
17	我東以百文爲一兩, 彼以十文爲一錢. 彼以百六十分爲一鈔, 十六文爲一陌. 今俗以錢一文爲一分, 錢十分爲一錢, 十錢爲一兩. 其義出衡與度也. 十釐爲一分, 十分爲一寸, 十寸爲一尺, 錢一文之厚, 合十釐之積, 爲一分也, 十文之積, 合十分之厚, 一寸也. 百文之積厚, 可一尺也. 衡則十釐爲一分, 十分爲一錢, 十錢爲一兩. 今錢之名數, 取衡之名數也. 然今錢稍厚, 比大國錢厚大一分, 卽衡之二錢五分也.	我東以錢十文爲一錢, 以十錢爲一兩. 今中國以百六十分爲一鈔, 十六文爲一陌. 我俗以錢一文, 稱一分, 錢十分, 爲一錢. 李炯菴德懋, 謂其義出衡與度也. 十釐爲一分, 十分爲一寸, 十寸爲一尺, 錢一文之厚, 合十釐之積, 爲一分也. 十文之積, 合十分之厚, 一寸也. 百文之積厚, 可一尺也. 衡則十釐爲一分, 十分爲一錢, 十錢爲一兩. 今錢之名數, 取衡之名數也. <b>然今我錢大小厚薄不倫, 難以取準矣.</b>	『열하일기』 『銅蘭涉筆』
18	漢制, 三公月俸三百五十斛, 自中二千石至百石, 凡十四等, 中二千石月俸百八十斛, 百石月俸十六斛,	漢制, 三公月俸三百五十斛, 自中二千石至百石, 凡十四等, 中二千石月俸百八十斛, 百石月俸十六斛,	『열하일기』 『銅蘭涉筆』

연번	『燕行陰晴』(坤) 書眉 기록	출전	
		내용	서명
	<p>後漢大將軍三公月俸三百五十斛,中二千石月俸七十二斛錢九千,至百石月俸四斛八斗錢八百. 晉制,品秩第一,一千八百斛. 後周,凡九命三公,一萬石,至下士一命,一百二十五石. 唐制,正一品歲七百石錢三萬一千,至從九品五十二石錢一千九百七十. 宋,四十一等,宰相樞密使月錢三百千,至保章正二千. 明,正一品月支米八十七石,從九品五石. 高麗,中書尙書令門下侍中,歲米四百石,至助教十石. 國朝,正一品歲九十八石,紬六疋,十五疋,楮貨十張,從九品十二石,正布二疋,楮貨一張. 壬辰倭亂後,一品歲俸六十餘石,無紬布楮貨.</p>	<p>後漢大將軍三公月俸三百五十斛,中二千石月俸七十二斛錢九千,至百石月俸四斛八斗錢八百. 晉制,品秩第一等,一千八百斛. 後周,凡九命三公,一萬石,至下士一命,一百二十五石. 唐制,正一品歲七百石錢三萬一千,至從九品五十二石錢一千九百七十. 宋制,四十一等,宰相樞密使月錢三百千,至保章正二千. 皇明,正一品月支米八十七石,從九品五石. 大約較之春秋戰國時卿祿萬鍾,則漢制三公月俸已爲些略,攷今清制祿,州縣養廉,又些略於皇明之制矣. 高麗,中書尙書令門下侍中,歲米四百石,至助教十石. 我朝,正一品歲九十八石,紬六疋,正布十五疋,楮貨十張,從九品十二石,正布二疋,楮貨一張. 壬辰倭亂後,一品歲俸六十餘石,無紬布楮貨. <b>大約制祿,非儉於前代,官多冗員故也.</b></p>	
19	<p>自伏羲氏至今皇帝,正統天子總二百五十,若並計呂后武后及無統天子,自魏吳南北朝至五季總八十五,僭偽帝王,自后羿至吳三桂,總二百七十,春秋戰國之君,四百九十有奇.</p>	<p>自伏羲氏至今乾隆皇帝,正統天子總二百五十,若通計呂后武后無統天子,自曹魏孫吳南北朝至五季總八十五,僭偽帝王,自后羿至周弘化皇帝吳三桂,總二百七十,春秋之君,四百九十有奇.</p>	『열하일기』 『銅蘭涉筆』
20	<p>大明永樂年號,前涼張重華,五代蠻賊張遇賢僞年號俱永樂.明天啓年號,南朝陳時梁永嘉王莊,北朝魏時宋元法僧僞年號俱天啓.天子記年之號,乃與僞賊同,當時宰相,可謂不學.</p>	<p>明永樂年號,與前涼張重華,五代蠻賊張遇賢,宋方臘僞年號同.天順年號,與金楊叛兒,元阿速急八僞年號同.正德年號,與夏主李乾歸僞年號同.天啓年號,與南朝陳時梁永嘉王莊,北朝魏時宋元法僧僞年號同.案南詔,亦有天啓年號,日本亦有弘治永曆年號.堂堂天子年號,與僞賊同,而漠然不知,當時宰相,可謂不學.</p>	이덕무 『盜葉記』(1) 〈明年號〉
21	<p>楊用修丹鉛錄曰,龍產九子不成龍,一曰鼉屬,形似龜,善負重,今碑龜趺是也.二曰鴟吻,性好望,今屋獸.三曰蒲牢,性好吼,今鐘鈕.四曰狻猊,形似虎,立獄門.五曰饕餮,性貪食,刻鼎蓋.六曰蚣蝮,性好水,立橋柱.七曰睚眦,性好殺,立刀環.八曰金蛻,形類獅,好烟火,立香爐.九曰椒圖,形似螺蚌,性好閉,立門鋪首.按今義禁府廳事名虎頭閣,取龍第四子之義歟.</p>	<p>楊用修丹鉛錄曰,龍產九子不成龍,一曰鼉屬,形似龜,善負重,今碑龜趺是也.二曰鴟吻,性好望,今屋獸.三曰蒲牢,性好吼,今鐘鈕.四曰狻猊,形似虎,立獄門.五曰饕餮,性貪食,刻鼎蓋.六曰蚣蝮,性好水,立橋柱.七曰睚眦,性好殺,立刀環.八曰金蛻,形類獅,好烟火,立香爐.九曰椒圖,形似螺蚌,性好閉,立門鋪.</p>	『열하일기』 『銅蘭涉筆』
		<p>楊用脩丹鉛錄,龍生九子不成龍,一曰鼉屬,形似龜,好負重,今碑龜趺.二曰鴟吻,性好望,今屋上獸.三曰蒲牢,性好吼,今鐘鈕.四曰狻猊,形似虎,立獄門.五曰饕餮,好飲食,立鼎蓋.六曰蚣蝮,性好水,立橋柱.七曰睚眦,性好殺,立刀環.八曰金蛻,形似獅,好烟火,立香爐.九曰椒圖,形似螺蚌,性好閉,故立門鋪首.予按今義禁府廳事,名虎頭閣,取龍之第四子之義歟.</p>	이덕무 『耳目口心書』(6)
22	<p>呂惠卿曰,蔗橫生故蔗,从庶.余案左思蜀都賦,傍挺龍眼側生荔枝.黃山谷題楊妃病齒云,多食側生,損其左車,故知荔支之支,乃支庶之支也.</p>	<p>宋神宗,問呂惠卿,蔗字从庶何義,對曰,凡草木種之,俱正生,蔗獨橫生.盖庶出也,故从庶.案左思蜀都賦,傍挺龍目,側生荔枝,相如賦作離支.黃山谷</p>	이덕무 『盜葉記』(1) 〈蔗橫生〉

연 번	『燕行陰晴』(坤) 書眉 기록	출전	
		내용	서명
		題楊妃病齒圖云,多食側生,損其左車,亦知荔支之支,支庶之支也.	
23	東史云,檀君命彭吳,治國內山川,以奠民居,蓋洪水之世,若中國之有伯禹也.本紀通覽云,牛首州有彭吳碑,牛首州,今春川也.梅月堂詩云,壽春是貊國,通道自彭吳.余按漢書食貨志,武帝時彭吳穿穢貊朝鮮,置滄海郡,然則彭吳乃武帝時人,非檀君之臣也.東人何所據而之載之史.	東史云,檀君命彭吳,治國內山川,以奠民居云,蓋洪水之世,若中國之有伯禹也.本紀通覽云,牛首州有彭吳碑,牛首州即今春川也.金時習詩曰,壽春是貊國,通道自彭吳.按漢書食貨志,武帝時彭吳穿穢貊朝鮮,置滄海郡,然則彭吳,武帝臣也,非檀君臣也.東人之魯莽類也.	『耳目口心書』(6)
24	余嘗讀一統志及史傳記,孝子往往有割肝療親而不自死者,又讀陳鼎留溪外傳,有趙希乾,割胸探心,誤傷其腸尺餘,烹而療母,仍創合,糞從脇下以管受出.又孫阿堵,王祚昌,張三愛,潘煥,皆割肝療親,俱創合無恙,皆明清間事,記訂甚明.留溪又記李孝婦割肝療姑事.	余曰,留溪外傳,所有孝子,至有割肝療親,趙希乾之割胸探心,誤傷其腸尺餘,烹而療母,瘡合無恙.	『열하일기』 「太學留館錄」
		余嘗讀一統志及史傳記,孝子往往有割肝療親病而不自死者,而竊怪之.又讀留溪外傳,有趙希乾,割胸探心,誤割腸尺餘,烹而療母,仍創合,糞從胸下,以管出.又孫阿堵,王祚昌,張三愛,潘煥,皆割肝療親,俱創合無恙.又記李孝婦割肝療親事,此皆明清間事,記訂明白.又吳介茲,作閔孝子傳,孝子刺胸割心,療父病,以藥傅之,詰朝無創痕,此尤理之不可曉者也.	이덕무 『蝨葉記』(1) 〈割肝〉

書眉의 글을 초록하는 방식과 『열하일기』에 삽입하는 방식은 앞의 여백에 쓴 기록과 동일하다. 다만, 서미의 기록이 모두 이덕무의 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항목 1〉은 憑乘健과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현장감을 살렸다. 〈항목 21〉은 용의 아홉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덕무의 『耳目口心書』 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이덕무는 楊慎의 『丹鉛錄』에서 이 글을 초록하고, 끝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한 ‘按今義禁府廳事名虎頭閣, 取龍第四子之義獸’라는 문구를 넣었다. 박지원은 이덕무의 생각까지 그대로 초록했다가 『銅蘭涉筆』에 삽입할 때에는 이 부분을 빼고 집어넣었다. 나머지 항목들 역시 약간의 수정을 가하거나 문구를 추가하여 『열하일기』에 삽입하였다. 대부분 현장감을 살리거나 문맥을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열하일기』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 5) 『연행음청』(곤)에 실린 박지원의 시

『연행음청』(곤)의 7월 4일 일기 뒤쪽에는 박지원의 시 4수가 실려 있다. 제목 위로는 붉은 권점이 그려져 있고, 시에는 墨卷과 批點이 찍혀 있다. 붉은색 권점은 문집에 실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원은 시를 많이 짓지 않았고, 현전하는 시 또한 얼마 되지 않는다. 『映帶亭雜咏』에 실린 박지원의 시는 32수에 불과하고, 燕行에서 지은 시로 확정할 수 있는 게 7수다. 그러니 여기에 실린 4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4수마저 『映帶亭雜咏』에 실린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4〉).

〈표 4〉 『연행음청』(곤)에 실린 박지원의 시

詩題	『연암집』 권4 「映帶亭雜咏」	詩題	『연행음청』(곤)
〈滯雨通遠堡〉	塞雨淋淋未肯休, <b>皇華使者</b> 滯行輜, 遊談從古羞牛後, 眷屬還憐侍馬頭, 醉裏相看非故國, 人間何世又新秋, 前河報道關舟楫, 長日無聊那可由.	〈滯雨通遠堡〉	塞雨淋淋未肯休, <b>亂山愁鬱</b> 滯行輜, 遊談從古羞牛後, 眷屬還憐侍馬頭, 醉裏相看非故國, 人間何世又新秋, 前河報道關舟楫, 長日無聊那可由.
〈留宿潼關〉	前溪水漲又停車, 只得憑欄喚奈何, 自幼讀書中國事, 從茲觀俗大方家, <b>雨今雲古</b> 纔經夏, 暮四朝三幾渡河, (缺)	又	前溪水漲又停車, 只得憑欄喚奈何, 自幼讀書中國事, 從茲觀俗大方家, <b>風餐露宿</b> 纔經夏, 暮四朝三幾渡河, <b>我政</b> 喚君泥點額, <b>君還</b> 向我喚甚麼.
〈渡鴨綠江回望龍灣城〉	孤城如掌雨紛紛, 蘆荻茫茫塞日曛, 征馬嘶連雙吹角, 鄉山渲入萬重雲, 龍灣軍吏沙頭返, 鴨綠禽魚水際分, 家國音書從此斷, 不堪回首入無垠.	〈渡鴨綠江回望龍灣城〉	孤城如掌雨紛紛, 蘆荻茫茫塞日曛, 征馬嘶連雙吹角, 鄉山渲入萬重雲, 龍灣軍吏沙頭返, 鴨綠禽魚水際分, <b>故國</b> 音書從此斷, 不堪回首入無垠.
〈露宿九連城〉	臥念遼陽萬里中, 山河今古幾英雄, 樹連李勣曾開府, 雲壓東明舊住宮, 戰伐飛騰流水盡, 漁樵問答夕陽空, 醉歌出塞歌還笑, 頭白書生且櫛風.	〈露宿九連城〉	臥念遼陽萬里中, 山河今古幾英雄, 樹連李勣曾開府, 雲壓東明舊住宮, 戰伐飛騰流水盡, 漁樵問答夕陽空, 醉歌出塞歌還笑, 頭白書生且櫛風.

먼저 시가 수록된 순서가 연행노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映帶亭雜咏」에는 제일 먼저 〈渡鴨綠江回望龍灣城〉이다. 압록강을 건넌 뒤 龍灣城을 되돌아보며 지은 시다. 이어서 九連城, 通遠堡, 潼關의 순서이다. 그런데 『연행음청』(곤)에는 〈滯雨通遠堡〉 2수, 〈渡鴨綠江回望龍灣城〉, 〈露宿九連城〉 순서로 실려 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박지원 일행은 6월 29일에 通遠堡에 도착하여 머물렀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려 냇물이 불어나자 출발하지 못하고 7월 5일까지 그대로 머물렀다. 4수의 시는 바로 4일자 일기 뒤쪽에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앞의 〈滯雨通遠堡〉란 제목의 시와 ‘又’라고 쓴 또 한 수의 시는 모두 通遠堡에서 쓴 게 맞다. 다만 그 뒤의 〈渡鴨綠江回望龍灣城〉와 〈露宿九連城〉은 통원보 시를 쓴 뒤 함께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그러

면 문집에 실린 〈留宿潼關〉은 제목이 잘못된 것이다. 첫 구절 ‘前溪水漲又停車’는 비 때문에 통원보에 유숙하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고, 시 제목을 ‘又’라 한 것은 앞의 〈滯雨通遠堡〉란 시제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留宿潼關〉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연행음청』(곤)에는 마지막 구절이 ‘我政唉君泥點額, 君還向我唉甚麼’와 같이 온전히 실려 있는데, 문집에는 ‘缺’자를 넣어 마치 구절이 없어진 것처럼 표기해 놓았다. 이는 ‘甚麼’라는 白話를 썼기 때문에 일부러 없어진 구절로 처리한 듯하다. 게다가 앞부분 시구 ‘風餐露宿’은 ‘雨今雲古’로 수정하였다. 이 부분은 문집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혀 詩語로 볼 수 없는 ‘風餐露宿’을 ‘시 다운 구절’로 수정한 듯하다. 이밖에도 〈滯雨通遠堡〉의 ‘亂山愁鬱’은 ‘皇華使者’로, 〈渡鴨綠江回望龍灣城〉의 ‘故國’은 ‘家國’으로 바꿨다. 이는 구절은 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연암 박지원은 연행에서 돌아온 뒤 연행 중에 기록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열하일기』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암이 정리한 자료에는 日記를 비롯하여 筆談資料, 書信, 記文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원자료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특히 후손가에 전해오던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열하일기』에 대한 다양한 異本 연구가 있었지만, 일기 형식의 연행록조차 나타난 적 없었다. 『燕行陰晴』(坤)은 박지원이 연행에서 돌아와 정리한 초기 연행록이 포함된 그의 친필본이다. 맨 앞의 〈貧經〉은 해정한 楷書, 〈熱河宮殿記〉는 박지원 특유의 隸書, 일기 부분은 유려한 行草書로 기록했는데, 모두 박지원의 친필로 볼 수 있다. 박지원의 手稿本인 것이다.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1780년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79일간의 주요 일정, 날씨, 숙박, 일시 등이 기록되어 있다. 기존의 『열하일기』가 6월 24일부터 시작하고 있어, 연행을 떠나기까지 과정이나 국내에서의 旅程을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燕行陰晴』(坤)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貧經〉, 〈熱河宮殿記〉라는 박지원의 작품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특히 〈貧經〉은 가난을 소재로 자신의 곤궁한 삶을 투영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기존의 문집이나 『열하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글이다. 아울러 연행 중에 지은 박지원의 시 4수가 확인되었다. 이들 시는 모두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제목과 구절이 수정된 채 실린 게 확인되었고, 문집에서는 없어졌다고 표시된 구절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박지원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 문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백과 書眉에 30개 항목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李德懋와 黃景源의 글을 抄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항목 중에서 19개 항목이 수정이나 윤색을 거쳐 『열하일기』에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열하일기』의 형성 과정을 직접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燕行陰晴』(坤)에 수록된 일기에는 날씨를 비롯하여 주요 일정이나 간단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박지원은 여

기에 다른 사람의 글을 포함하여 많은 자료를 포함시키고, 여행 중 자신의 견문과 생각을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지원의 여행록은 새로운 문학작품으로 변모되어갔다. 그런 면에서 手稿本 『燕行陰晴』(坤)은 『열하일기』의 시작을 알리는 박지원의 친필본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열하일기』에 대해 유득공은 『古芸堂筆記』 권3 〈熱河日記〉조에서 이렇게 말했다.

燕巖은 약관에 글을 잘 지어 명성이 서울을 흔들었다. 그러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族兄 錦城都尉를 따라가 熱河를 여행하고 돌아와 『열하일기』 20권을 지었는데, 웃고 성내고 욕하는 이야기에 寓言을 섞었다. 〈상기(象記)〉, 〈호질(虎叱)〉, 〈夜出古北口記〉, 〈一夜九渡河記〉 등의 글은 읽으면 가슴이 툭 트이고 기이해서 한동안 사대부들이 서로 베끼고 빌려 봤는데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치지 않고 있다.<sup>11)</sup>

유득공의 언급에서 주목할 것은 『열하일기』에 대한 평, 즉 ‘嬉笑怒罵, 雜以寓言’ 여덟 글자이다. 유득공은 『열하일기』를 단순한 燕行錄이 아닌 ‘寓言’으로 본 것이다. 『열하일기』를 ‘우언’이라 한 유득공의 생각은 〈熱河日記序〉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서문에서 유득공은 著書家의 길은 『易經』에서 유래한 ‘寓言’과 『春秋』에서 유래한 ‘外傳’만이 있다고 단언한다. 『易經』의 글은 사물을 직접 설명한 게 아니다. 卦를 뽑으면 象이 나타나고 이 象을 설명한 것이니 말이 미묘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 『易經』의 글은 미묘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치를 이야기하는 寓言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春秋』는 명확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左丘明, 公羊高, 穀梁赤, 鄒德溥, 夾氏 등이 각각 傳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반박하면 이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지만 오히려 미묘해지는 것이다. 사건을 기록하는 ‘外傳’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莊子』의 경우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으니 外傳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알 듯 말듯 하므로 寓言이라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글의 실마리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怪변이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끝내 폐기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대한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著書家 중에서 으뜸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어디에 속할까? 寓言일까, 外傳일까? 유득공은 『열하일기』는 우언과 외전을 겸비한 저술이라고 말한다. 『莊子』에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으나, 『열하일기』엔 진실만 있고 거짓은 없다고 말한다. 이치를 이야기 함에도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利用厚生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저술가의 ‘立言設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득공이 본 『열하일기』는 바로 외전과 우언의 서술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후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본 것이다. 『燕行陰晴』(坤)은 박지원의 여행 과정을 간단히 기록한 여행록이라 할 수 있지만, 『燕行陰晴錄』이나 『연행음칭기』 등의 서명을 거쳐 『열하일기』로 완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寓言

11) 柳得恭, 『古芸堂筆記』 권3, 〈熱河日記〉. “燕巖弱冠善屬文, 名動京師. 既而落拓未第, 隨族兄錦城都尉使燕, 遊熱河而歸, 著日記二十卷, 嬉笑怒罵, 雜以寓言. 其象記, 虎叱, 夜出古北口, 一日九河等篇極恢奇, 一時士大夫傳寫借看, 數年而未已.”

과 外傳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燕行陰晴』(坤)을 통해서 유득공이 말한 ‘우언과 외전을 겸비한 저술 『열하일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燕行陰晴』(坤)의 진정한 가치 또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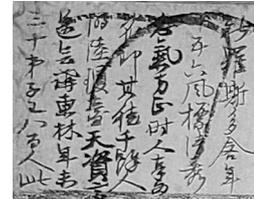
# “燕巖 朴趾源 手稿本 『燕行陰晴』(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론문

서 현 경(한국고전번역원)

주지하다시피 관심 영역에서 특정 자료의 발견은 해당 연구의 발전에 매우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발견이 연구자의 충실한 검토와 만날 때 그 의의는 더욱 빛난다. 박철상 선생님의 이번 논문은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신발굴자료 『燕行陰晴』(坤)은 무엇보다도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既刊 『燕巖集』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 담겨 있다. 특히 『熱河日記』에서 다루지 않는 국내 일정에 대한 기록, 그동안 제목으로만 노출되었던 「熱河宮殿記」의 실체, 燕行 중의 실제로 지어진 漢詩의 원형 등은 연구 기초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신발굴자료 『연행음청』(곤)의 여백 메모에 대한 본 논문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분석은 그동안 『연암집』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던 숨은 他者로서의 黃景源이 가지는 존재감, 暗示的으로 때로는 明示的으로 인용되던 李德懋의 영향력 등을 직접 확인<sup>1)</sup>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실 朴趾源 글쓰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낱것의 기존 자료를 가져다가, 새로운 해석을 가해서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유명한 「호질」과 「허생」도, 황경원과 이덕무의 기록이 『열하일기』 속에 녹여진 방식과 또 같은 방식으로, 『열하일기』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映 혹은 辛齋에게 들었다는 ‘허생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致富野譚을 분명하게 차용한 것이고, ‘호랑이가 위선적인 청인 학자를 꾸짖는 이야기’는 玉田縣의 沈由朋의 점포 벽에 “白鷺紙에다 가늘게 써서 格子를 만들어 한 폭 벽에 가득 써 놓은” 奇文을 손질한 것이다. 이 점은 박지원 스스로 밝혀놓은 사실이기도 하다.

독립체로서의 『열하일기』를 제쳐놓고, 그 일부분을 적출하여 해석의 과잉을 경쟁해온 맹목적

1) 『燕行陰晴』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 여백 좌측상단의 이 메모는 자체 삭제된 자료여서 논문의 분석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 또한 이덕무의 「耳目口心書」의 “新羅斯多舍. 年十五六. 風標清秀. 志氣方正. 時人奉爲花郎. 其徒無慮一千人. 明陸瓊臺天資高邁. 會講東林. 年未三十. 弟子已八百. 此”를 거의 全載해 둔 것이다. 이덕무는 박지원의 동료에 더 가깝고, 사제간으로 볼 수는 없는 인물이다. 차제에 이른바 연암그룹의 성원에 대해 신중하고도 공정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문은 박지원 글쓰기 방식을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열하일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이 논문은 『연행음청』(곤)을 통해, 手稿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었고, 유득공의 『열하일기』 평이 『열하일기』의 독립적 가치를 잘 지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열하일기』의 가치를 “외전과 우언의 서술방식을 이용하여 이용후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연결한 것도 훌륭한 지적이다.

좋은 자료와 좋은 논문을 읽고, 오랜만에 부드러운 토론문이 작성되었다. 몇 글자의 오자는 논문 게재 전에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신발굴자료 『연행음청』(곤)과 박철상 선생님의 논문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토론문을 갈음한다.

『燕巖集』 교감과 여러 異本의  
평어에 대한 고찰  
- 散文을 중심으로

발표 : 김윤조(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황동권(계명대학교 강사) ·  
김종민(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 김영진(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燕巖集』 교감과 여러 異本의 평어에 대한 고찰 - 散文을 중심으로

김윤조(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황동권(계명대학교 강사) ·

김종민(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4. 『연암집』 校勘에 대한 고찰
2. ‘교감표점’ 정본 『연암집』의 필요성	5. 『연암집』 평어에 대한 고찰
3. 『연암집』 校勘의 현황	6. 맺음말

## 1. 머리말

이 발표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암집』 정본 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정본 사업은 단국대학교가 주관하여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사업단은 연암의 저작을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燕巖集』에서 시문 부분, 『열하일기』, 그리고 『과농소초』와 『과정록』 등의 저작이다. 오늘 발표는 그중 연암 산문이 중심이 되는 시문 부분의 결과이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의 저작은 그의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 형태로만 유통되다가, 1932년이 되어서야 朴榮喆(1879~1939)에 의해 『연암집』(17권 6책, 연활자본)이 간행되었다. 박영철본이 간행되기 전에 이미 滄江 金澤榮(1850~1927)에 의해 『燕巖集』(1900년, 6권 2책, 全史字本), 『燕巖續集』(1901년, 3권 1책, 全史字本), 『重編燕巖集』(1917년, 7권 3책, 新活字本) 등이 選集 형태로 간행되었으나, 이는 연암이 남긴 저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130여년의 공백 동안 ‘필사’의 형태로만 전승되었다.

연암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종류의 小集들을 自編했는데, 이들 자편 수고본들은 차남 朴宗采, 처남 李在誠 등에 의해 수습되어 적어도 1829년(순조 29) 이전에 1차 편집이 완료되었고, 이 필사본들은 연암의 현손 朴泳範에게 전해졌다. 李家源 선생이 그중 80여 책을 입수하여 보관하다가 단국대학교에 기증하였다.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여 연암이 가장 초창기에 필사한 『杏溪雜

錄』을 비롯해 그 존재가 처음 밝혀진 『부록』에 이르기까지, 총 35종에 달하는 『열하일기』와 『연암집』 이본에 대한 해제가 완료되었다. 이들 자료는 연암이 자편한 수고본으로 『연암집』 정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학자로 조명되고 있는 연암의 사상과 문학에 관한 연구가 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를 비롯하여 국내외에 분산된 『연암집』 이본들을 비교 검토하고, 원문을 교감하고 표점을 가하는 종합적인 연구 위에서 연암 저작의 정본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sup>1)</sup> 그래서 사업이 시행된 당시에 확인되는 모든 『연암집』 이본과, 연암 작품의 片言隻字라도 인용된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모두 검토해서 한 자 한 자 대조 검토 비교하고,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사업에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이본들이 핵심 자료가 되었다.

## 2. ‘교감표점’ 정본 『연암집』의 필요성

2005년 연암 서거 200주년에 맞추어 김명호 선생은 ‘전문적 학술 번역’을 추구한 『국역 연암집』 1, 2를 간행하였고, 2007년에 둘째개 판 『연암집』 상·중·하를 내면서 “『한국문집총간』 標點本에 의거했던 원문 句讀를 전면 교열하여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연암 박지원 관련 자료들이 대거 공개되어 『연암집』의 새로운 이본들을 대상으로 삼아 초판의 번역문과 주해 및 원문을 크게 수정 보완하여 2012년에 개정판 『연암집』을 내었다. 『연암집』은 이처럼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다듬어져 왔다. 이 같은 국역 작업은 모두 박영철본 『연암집』을 대본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번역에서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학술 연구 논문의 자료로서도 박영철본 『연암집』은 연구자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이용된 문헌이었다. 일찍이 박영철본 『연암집』이 안고 있는 ‘착오·탈락’에 대한 언급과 검토가 있었다.<sup>2)</sup> 박영철본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명호 선생의 다음과 같은 언표가 정곡을 찌른 것으로 여겨진다.<sup>3)</sup>

- 의의 - 그동안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던 연암의 쏘 저술을 모아 최초로 공정한 점<sup>4)</sup>

1) 『연암집』 정본 사업 연구계획서 「연구의 필요성」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 홍기문(1960), 「연암집에 대한 해제」, 『박지원작품선집』; 김윤조(1992), 「박영철본 연암집의 ‘착오·탈락’에 대한 검토」, 『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김철조(1994), 「연암집 이본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7; 정재철(2012), 「박영철본 연암집 미수록 연암시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37.  
3) 김명호(2013),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225~226면. 박영철본이 저본으로 삼은 필사본이란 연암의 5대손 박영범 소장 필사본을 말한다. 이것이 自然經室本 『연암집』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자연경실본은 원래 풍석 서유구 집안의 필사본인 데다가 현재 낙질이 많아서 상호 대조하여 그 설을 확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자연경실본의 작품들과 박영철본을 면밀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4) 박영철본이 ‘필사본의 원문을 존중하여 함부로 고치지 않은 점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언표 또한 의미심장하다(김명호(2007), 『연암집』 「해제」).

- 문제점 - 필사본 원문 판독이나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탈자가 적지 않고, 필사본 원문 자체의 오류들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
  - 『연상각선본』 등 연암의 기존 시문 선집들을 그러모으는 데 그친 필사본 『연암집』의 체제를 답습한 결과 編次가 정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며, 여기에도 누락된 연암의 작품들이 적지 않음. 연암의 逸詩·逸文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해야 함.
  - 전 작품들을 문학 양식과 창작 시기에 따라 정연하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 연표에서는 상기 내용에 이어서 ‘앞으로 신활자본(=박영철본)과 필사본들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텍스트 연구를 바탕으로 완벽한 『연암집』 텍스트가 새로 출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연암집』 정보 사업’이 저본으로 삼은 본 역시 박영철본 『연암집』이다. 텍스트의 체제 면에서도 박영철본의 편차를 따랐다. ‘완벽한 『연암집』 텍스트’를 향해 현전하는 이본들을 충실히 교감하는 것은 당연할 터이다. 그런데 박영철본에 누락된 연암의 작품들을 기존 박영철본의 편차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속할 것인가? 이 질문은 박영철본에 누락된 연암의 작품들을 다시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유념해야 할 간단치 않은 문제다. 한편으로 언젠가 연암의 시문들을 재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 정보 사업의 결과물이 유용한 토대가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

‘정보’를 만든다는 것은 이전의 업적을 계승하고 더 발전한 면모의 텍스트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이다. 종전에 접하기 어려웠던 이본들과 활용되지 않았던 문헌들까지 교감의 대상으로 다룬 점, 현대적 의미의 표점을 가하여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인 점이 이 정보화의 특징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연민문고 소장 연암 필사본 자료들은 돌베개출판사의 개정판 『연암집』의 원문 교감에 활용된 바 있지만, 여전히 해명해야 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보고이고, 『연암산문정독』 1·2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암산문정독』에는 활용되었지만, 돌베개 판 『연암집』에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莽蒼齋本 갑·을’도 있고, 장서각 소장 『연암집』은 아직도 거의 이용이 되지 않는 상태인 듯하다. 『연암집』 정보화는 이러한 현전하는 제 이본을 가능한 한 다 검토하여 연암이 의도했던 원작의 면모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확정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한국문집총간』 소재 『연암집』과 『국역 연암집』, 그리고 돌베개 판 『연암집』 모두 ‘標點’을 표방했지만, 현대의 문장부호를 단 현대적 의미의 표점은 아니고 고릿점으로 句讀만 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정보화 사업에서는 마침표, 물음표, 쉼표, 따옴표, 書名 부호 등의 문장부호를 가한 텍스트를 제작하여 활용성·가독성이 높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고는 우선 『연암집』 정보화 사업’의 시문 부분 진행 과정을 서술한 다음 교감의 문제와 평어, 그리고 박영철본 『연암집』 미수록 연암 산문에 대해 거론하기로 한다.

5) 아울러 이본들의 계통을 파악하는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계서본→동양문고본→영남대본’으로 텍스트의 계통이 성립함을 추론하는 성과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명호, 앞의 책, 304면).

### 3. 『연암집』 校勘의 현황

#### 1) 『연암집』 이본 현황

본 연구팀은 본격적으로 이본 대조를 하기에 앞서 우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각종 『연암집』 이본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확인된 이본들을 확보했는데, 일부 확보하지 못한 이본들도 있었다.<sup>6)</sup>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이본은 확보하였다. 확보한 『연암집』 이본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암집』 이본 현황<sup>7)</sup>

	작품	소장처	약칭
초고류 계열	燕巖草稿(三)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초3
	燕巖草稿(四)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초4
	燕巖草稿(六)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초6
	燕巖草稿(八)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초8
	燕巖草稿(九, 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초9
산고류 계열	燕巖散稿(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산2
	燕巖散稿(三)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산3
	燕巖散稿(四)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산4
	燕巖散稿(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산5
소집류 계열	鐘北小選	연암후손가소장(돌베개출판사 간행 중복소선 참고)	중복
	謙軒漫筆(乾)(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겸1, 2
	罨畫溪集(乾)(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엄1, 2
	孔雀館集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공연
	映帶亭集(乾)(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영1, 2
	煙湘閣集	실학박물관	연상1
	煙湘閣集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상2
	煙湘閣選	개인 소장	연상4
	雲山萬疊堂集	실학박물관	운1
	雲山萬疊堂集	함양 개인 소장	운2
百尺梧桐閣集(乾)(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백연	

6) 사업을 진행할 시기에 燕巖草稿(七, 실학박물관 소장), 孔雀館集書(천리대도서관), 煙湘閣選(조선대 중앙도서관), 三洞集(실학박물관), 燕巖集(13·15·18, 실학박물관소장) 등의 이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발표 이후에 실학박물관 소장본을 살펴서, 그 결과가 반영된 최종 원고를 만들 예정이다.

7) 『『연암집』 정본 사업 연구계획서』에 있는 ‘<표 16> 『연암집』의 종류 및 소장처’를 기본으로 각 이본들을 수집·정리하였다.

	작품	소장처	약칭	
	百尺梧桐閣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백장	
	荷風竹露堂集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하연	
	荷風竹露堂集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하존	
	流觴曲水亭集(乾)(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유1, 2	
	沔陽雜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면연	
	沔陽集	한양대학교 도서관	면한	
별집류 계열과 선집류 계열	燕巖集(가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연가A 연가B	
	燕巖集(溪西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계서	
	燕巖集(東洋文庫本)	일본 동양문고	동양	
	燕巖集(嶺南大本)	영남대학교 도서관	영남	
	燕巖集(自然經室本)	승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자연	
	燕巖集(韓氏文庫本)	연세대학교 도서관	한씨	
	燕巖集(庸齋文庫本)	연세대학교 도서관	용재	
	燕巖集(莽蒼齋本1)	임형택 교수 소장	망창1	
	燕巖集(莽蒼齋本2)	임형택 교수 소장	망창2	
	燕巖文鈔(坤)		연문	
	燕巖文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장1	
	燕巖文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장2	
	燕巖集(滄江初編本)	버클리대, 나카노시마도서관, 국회도서관	창초	
	燕巖續集(滄江初編本)	버클리대, 나카노시마도서관, 국회도서관	창속	
	重編朴燕巖先生文集	국회도서관	창중	
	燕巖集(勝溪文庫本)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승계	
	燕巖諸閣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	
	燕巖山房集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이화	
	燕巖先生書簡帖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박희병 역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참고)	서간	
	并世集	국립중앙도서관	병세	
	東文集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동문	
	麗韓十家文鈔		여한	
		총 48종		

위의 표에 제시된 이본은 48종으로, 『연암집』 초고본 계열에 해당하는 초고류, 산고류, 소집류 계열 등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연암집』 이본들을 거의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별집류 계열과 선집류 계열까지도 확보하였다. 여러 이본을 살펴보면 크게 ‘초고·산고류 계열’, ‘소집류 계열’, ‘별집·선집류 계열’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초고·산고류 계열과 소집류 계열 그리고

일부 별집<sup>8)</sup> 등은 이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2012년에 ‘연민문고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 총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본 연구팀은 이 총서를 중심으로 여타의 이본들을 확보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팀은 확보한 이본에 대해 각각의 ‘약칭’을 부여하였다. 부여된 약칭은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고, 약칭 부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명에서 2자를 따서 사용했는데, 주로 ‘초고·산고류 계열’이 여기에 속한다.

- ☞ ‘燕巖草稿三(연민문고 13)’ → ‘초3’, ‘燕巖散稿二(연민문고 14)’ → ‘산2’
- ☞ ‘鐘北小選’ → ‘종북’, ‘謙軒漫筆(乾)’ → ‘검1’

둘째, 책명의 첫 글자와 소장처 이름의 첫 글자를 합했는데, 주로 소집류 계열 중 동일한 책명에 소장처가 2곳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 ‘百尺梧桐閣集(소장처 : 연민문고)’ → ‘백연’, ‘百尺梧桐閣集(소장처 : 장서각)’ → ‘백장’
- ☞ ‘荷風竹露堂集(소장처 : 연민문고)’ → ‘하연’, ‘荷風竹露堂集(소장처 : 존경각)’ → ‘하존’

셋째, 소장처 이름 또는 소장자 이름에서 2자 만을 따서 사용했는데, 주로 별집류 계열이 여기에 해당한다.

- ☞ ‘燕巖集(동양문고본)’ → ‘동양’, ‘燕巖集(연세대 한씨문고본)’ → ‘한씨’
- ☞ ‘燕巖集(소장처 : 영남대본)’ → ‘영남’

이렇게 부여한 약칭을 가지고 이본을 대조할 때 우선으로 적용하였다.

## 2) 『연암집』 교감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상

연암의 저작은 그의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의 형태로만 유통되다가, 1932년에 이르러서야 朴榮喆(1879~1939)에 의해 『연암집』(17권 6책, 연활자본)이 간행되었다.<sup>9)</sup> 그러나 박영철본 『연암집』은 원문 판독이나 인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연암의 작품들이 적지 않다.<sup>10)</sup> 그런데도 본 연구팀은 박영철본 『연암집』을 저본으로 하여 48종의 이본들에 수록된 연암 작품을 모두 상호 대조하였다. 박영철본 『연암집』을 저본으로 삼은 이유는 그것이 연암이 남긴 작품 전체를 활자로 처음 간행되었고, 또 가장 많이 학자들에게 보급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8) 연민문고 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 총서 15·16으로 간행된 ‘계서본’을 지칭한다.

9) 『『연암집』 정보 사업 연구계획서』, 연암집 정보화 사업팀, 2017, 1면.

10) 『『연암집』 정보 사업 연구계획서』, 13면.

11) 김철조, 『『열하일기』 정보화 작업의 제문제-신자료 소개를 겸하여-』, 2018년도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36면.

본 연구팀이 박영철본 『연암집』을 저본으로 하여 48종의 이본들에 수록된 연암 작품을 모두 상호 대조한 결과 다양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영철본 『연암집』과 모든 이본에는 이체자·이형자·속자 등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많은 이체자·이형자·속자 등을 일일이 교감하여 주석에 명시하면 원고가 너무나 번잡하므로 이들 이체자·이형자·속자 등은 주석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정본에서 바로 대표자로 바로잡았다.

둘째, 다양한 오탃자 및 유의자 등이 너무나 많다. 박영철본 『연암집』과 모든 이본에서 수많은 오자, 탈자, 유의자 등이 있는데, 본 연구팀에서는 일일이 교감하여 이본에 있는 오탃자 및 유의자 등은 교감본에 주석으로 명시하고, 저본인 박영철본 『연암집』에 있는 오자와 탈자의 경우 여러 이본과 『연암집』 번역본<sup>12)</sup> 등을 참고해서 정본에서 바로잡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오자

저본(박영철본) : 余獨言子厚必有子(李子厚賀子詩軸序) → 계서 : 讀

저본 : 木而髯之(李子厚賀子詩軸序) → 용재 : 本

저본 : 侵尋愈荒(陝川華陽洞丙舍記) → 계서, 동양, 자연, 망창창재(1), 승계 : 蒼

저본 : 皆質厚少文(永思菴記) → 계서 : 小

저본 : 發祥垂庥於無窮也(永思菴記) → 계서, 망창창재(2) : 麻

### ② 탈자

저본(박영철본) : 牡丹芍藥是也(李子厚賀子詩軸序) → 운산만첩당집(2) : ‘藥’자 누락.

저본 : 吾亦外裔也 今觀此記(陝川華陽洞丙舍記) → 운산만첩당집(1) : ‘今觀此記’ 누락.

저본 : 有欲以危法中之者(以存堂記) → 엄화계집(2) : ‘有欲以危法中之者’ 누락.

저본 : 一朝謝其所從飲酒徒曰 子姑去(以存堂記) → 엄화계집(2) : ‘子姑去’ 누락

저본 : 其社稷·山川·城隍·馬祖·國殤·旅厲·燎望·壇墀之靈 果皆勿勿焉歆之而不吐  
歟(安義縣屬壇神宇記) → 증편창강본 : 누락

### ③ 유의자

저본(박영철본) : 讀之令人孝悌之心油然而生(永思菴記) → 영대정집(2) : 使

저본 : 我其不容於世乎(以存堂記) → 엄화계집(2) : 吾

저본 : 至死之日(以存堂記) → 하풍죽로당집(연민문고), 하풍죽로당집(존경각) : 歿

저본 : 難着履屨(百尺梧桐閣記) → 『연암집(가제)』(연민문고13) : 屨

저본 : 恒汲汲而不足(獨樂齋記) → 엄화계집(2) : 常

12) 교감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중·하(돌베개, 2007), 박희병 외 옮김, 『연암산문정독』 1·2(돌베개, 2007~2009)와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태학사, 1997), 정민 외 옮김, 『정유각집』(돌베개, 2010) 등의 번역서를 참고하였다.

셋째, ‘圈點’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권점’은 문장이 상당히 아름답거나 빼어난 곳에 傍點(글자 오른쪽에 있는 검은 비침 ‘◡’ 표시), 圓圈(글자 오른쪽에 있는 ‘○’ 표시), 尖圈(글자 오른쪽에 있는 ‘∨’ 표시)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sup>13)</sup> 박영철본 『연암집』과 별집류 계열의 이본<sup>14)</sup>들 대부분은 권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는 ‘초고·산고류 계열’과 ‘소집류 계열’의 상당수 이본<sup>15)</sup>들은 권점이 많이 표시되어 있다. ‘권점’은 교감본에만 주석에 명시하고, 정본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운산만첩당집(2) : ‘吾知子厚有德者也。人之所以憂子厚者。見其年未及衰而髮禿齒頹。儂然一老翁。此似亦岌岌乎嗣胤也。’(李子厚賀子詩軸序) → ‘방점(◡)’이 찍혀 있음.
- 하풍죽로당집(연민문고) : ‘今侯以外裔獨賢。豈非我輩之恥耶。’(陝川華陽洞丙舍記) → 방점이 찍혀 있음.
- 엄화계집(2), 영대정집(1) : ‘而況堪輿禍福之說。勝其孝悌睦任之心。而各私其筮域乎!’(永思菴記) → ‘원권(○)’이 쳐져 있음.
- 영대정집(1) : ‘今仲學懼物之害己也。蟄于密室。欲以自存。而不知自害者存乎其身。則雖息跡閉影。自同拘繫。適足以滋人惑而集衆怒也。其於存身之術。不亦疎乎’(以存堂記) → 원권이 쳐져 있음.
- 연상각집(1) : ‘推一果核。而衆理之實。可驗矣。’(李子厚賀子詩軸序) → ‘침권(∨)’이 쳐져 있음.

넷째, ‘評語’가 다양하고 풍부하다. ‘평어’는 어떤 작품에 대해 미추, 선악, 장단, 시비, 우열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치를 논한 말이다. 박영철본 『연암집』과 여러 이본에 다양하고 풍부한 ‘평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題下評(작품 제목 아래에 적은 비평)’, ‘眉評(작품의 첫머리에 있는, 작품 총평의 성격을 지닌 비평)’, ‘眉批(책 상단 난외에 있는, 작품의 일부 구절에 대한 비평)’, ‘行批(본문의 행간에 있는, 작품의 일부 구절에 대한 비평)’, ‘後評(작품의 맨 끝에 있는, 작품 총평의 성격을 지닌 비평)’ 등이다. 교감본에는 모든 ‘평어’를 주석에 명시하지만, 정본에서는 제하평, 미비, 행비는 주석에 명시하고, 미평과 후평은 본문에 명시하여 박영철본 『연암집』에 일부의 미평과 후평만 기록되어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정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이상으로 박영철본 『연암집』과 여러 이본을 교감하면서 드러난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팀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암 手稿本과 여타의 이본을 총망라

13) 박희병·정길수 외 편역, 『연암산문정독』 1, 돌베개, 2007, 11면.

14) 별집류 계열 중에 滄江 金澤榮(1850~1927)이 선본형태로 간행한 『(증편)朴燕巖先生文集』만 유일하게 권점이 있고, 나머지 이본들은 권점이 없다.

15) 이 중에 『燕巖草稿(九, 補)』(연민문고), 『燕巖散稿(四)』(연민문고), 『孔雀館集書』(연민문고), 『煙湘閣集』(성균관대 존경각), 『煙湘閣集』(개인 소장), 『孔雀館集書』(연민문고), 『沔陽雜錄』(연민문고), 『沔陽集』(한양대 도서관)에는 권점이 없고, 나머지 이본들은 권점이 있다.

하여 교감하고 표점을 가한 뒤에 ‘교감표점본’과 ‘정보표점본’이라는 두 종의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본 연구에 비해 이본의 계통과 그 특징이 더욱 선명하게 규명<sup>16)</sup>될 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평어와 권점’ 전체를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연암집』의 문예성과 사상성이 선명하게 규명될 것<sup>17)</sup>으로 기대하였다.

#### 4. 『연암집』 校勘에 대한 고찰

##### 1) 원문을 새롭게 바로잡은 경우

烏信百鳥黑,	까마귀는 새마다 검은 줄 믿고
鷺訝他不自白.	해오리는 탄 새가 회지 않음을 의아해하네
白黑各自是,	검은 놈 흰 놈이 저마다 옳다 여기니
天應厭訟獄.	하늘도 그 송사에 싫증나겠군
人皆兩目俱,	사람은 다 두 눈이 달려 있지만
曠一目亦覲.	애꾸는 눈 하나로도 능히 보는걸 <sup>18)</sup>

연암의 「髮僧菴記」 중 위에 제시한 부분에서 마지막 구의 ‘覲’은 박영철본에는 ‘觀’로 되어 있다. 그 외의 많은 이본에도 박영철본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한 이본에만 ‘矚’으로 되어 있는 점이 그간 지적된 바 있다. 돌베개 판 『연암집』의 이에 대한 註解는 다음과 같다.

[번역문에서의 주석] 이 구절의 운자로 ‘觀’자가 쓰였으나 入聲이 아니고 上聲이어서 운이 맞지 않는다. 김택영 편 『연암속집』에는 입성인 ‘矚’자로 바뀌어져 있다(이하 생략).

[원문의 교감주] 觀: 『연암속집』은 ‘矚’으로 되어 있다.

‘矚’으로 되어 있는 본을 김택영 편 『연암속집』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책을 보면 박영철본과 동일하게 ‘觀’자로 되어 있다. 착오가 있는 듯하다. 영남대본에 유일하게 ‘矚’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돌베개 판에서는 ‘矚’으로 원문을 수정하지는 않았고 ‘觀’를 그대로 두고 주석으로 교감 사항만 기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정본화 작업 결과, 박영철본이나 영남대본의 글자가 아닌 한양대본 『沔陽集』에 씌어 있는 ‘覲’자로 바로잡았다. ‘覲’자도 입성으로 ‘觀’의 자리에 넣었을 때, 운자로서나 의미로나 문제가 전혀 없다. ‘矚’도 이 같은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박

16) 『『연암집』 정보 사업 연구계획서』, 4면.

17) 『『연암집』 정보 사업 연구계획서』, 3면.

18) 朴趾源, 「髮僧菴記」, 『燕巖集』 卷1. 번역문은 신호열·김명호 옮김(2012 개정판) 『연암집』을 遵用하였으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영철본을 비롯한 수많은 이본에서 ‘靚’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전사 과정에서 字形이 서로 비슷한 탓에 ‘靚’을 ‘靚’로 誤記하게 된 것으로 추단한다.

照應者, 烽堠也.

앞뒤의 조응(照應)이란 봉화요, 19)

‘堠’가 박영철본에는 ‘堠’으로 되어 있는데 오자이다. 돌베개 판 『연암집』에서는 ‘堠’으로 수정하며 “대본에 ‘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승계문고본과 연세대본 등은 ‘堠’로 되어 있다.”라고 교감주를 달았다. 본 『연암집』 정본 사업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감을 수행하였다.

‘謙軒(甲)’, ‘映帶(坤)’, ‘映帶(坤)’, 『연암고략』, ‘百尺(淵)’, ‘百尺(藏)’, ‘荷風(淵)’, ‘荷風(尊)’, ‘燕巖(가)A’, ‘燕巖(가)B’, ‘自然’, ‘韓氏’, ‘庸齋’, ‘莽蒼(甲)’, ‘莽蒼(乙)’, ‘溪西’, ‘東洋’, ‘勝溪’, ‘東文’을 따라 ‘堠’로 바로잡음. ‘煙湘(個)’에는 ‘燧’로 되어 있음.

‘堠’과 ‘堠’의 자형이 유사하며 특히 필사본에서는 판독이나 필사 과정에서 혼동을 쉽게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 자는 서로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박영철본이 만약 ‘堠’을 오독하거나 오식해서 ‘堠’으로 植字한 것이라면, 이본들 중에 ‘堠’으로 되어 있는 본이 있어야 할 터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이본에 ‘堠’로 되어 있으며 ‘봉화대’ 또는 ‘적정을 살피기 위해 쌓은 돈대’라는 의미상으로도 적절하므로 이 글자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吾且不識也, 子之來也, 先左足乎? 先右足乎? 子將仰而思, 俯而不答, 蓋忘於足也, 忘之非爲妄也, 不勉非違道也.

내 또 모르겠네만, 자네가 올 때 왼발이 먼저였던가 오른발이 먼저였던가? 자네는 장차 고개 들어 생각해 보고는 고개 숙인 채 답을 못할 테지. 대개 이는 발에 대해 잊은 때문이니, 잊은 것이지 妄動한 것은 아니요 애써 하지 않은 것이지 길과 동떨어진 건 아니라네.<sup>20)</sup>

‘蓋忘於足也, 忘之非爲妄也’가 박영철본에는 ‘蓋妄於足也, 妄之非爲妄也’로 되어 있다. 앞의 두 ‘妄’자가 문제이다. 돌베개 판 『연암집』에서는 우선 번역문에서 ‘잊을 망’字로 상정하여 번역하였고, “원문은 ‘蓋妄於足也 妄之非爲妄也’인데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妄’자가 ‘忘’자와 상통함을 이용한 語戲로 볼 수도 있다. 김택영의 『연암집』과 『중편연암집』, 승계문고본 등에는 ‘蓋忘於足也 忘之非爲妄也’로 되어 있어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라고 주석을 달았으며, 이 돌베개판

19) 朴趾源, 『驛壇赤幟引』, 『燕巖集』 卷1.

20) 朴趾源, 『答任亨五論原道書』, 『燕巖集』 卷2. 번역문을 본문에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문을 주석에 놓는 常例와 다르게 원문을 본문에 제시하면서 그 위치 또한 번역문 앞에 두었다. 이것이 원문 교감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더 효율적이므로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

의 원문에서는 박영철본의 원문을 그대로 따르고 “妄 : 김택영 편 『연암집』과 『중편연암집』, 승계문고본 등은 ‘忘’으로 되어 있다.”라는 교감주를 달았다.<sup>21)</sup> 실제로 이본 교감을 행해보면 ‘溪西’, ‘自然’에는 저본과 동일하게 두 곳 다 ‘妄’으로 되어 있으나 ‘沔陽(漢)’, ‘燕巖(가)1’, ‘燕巖(가)2’, ‘韓氏’, ‘庸齋’, ‘東洋’, ‘莽蒼(甲)’, ‘莽蒼(乙)’, ‘滄江(初)’, ‘滄江(重)’, ‘勝溪’ 등에는 ‘忘’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김택영 이후에 나온 『연암집』에서만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텍스트들에서도 이미 바르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沔陽(漢)’, ‘燕巖(가)1’, ‘燕巖(가)2’ 등은 연암 당대 또는 연암 사후 머잖은 시기에 나온 필사본들이다. 따라서 박영철본에 ‘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誤記가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오기한 것은 박영철본이 ‘溪西’나 ‘自然’을 모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문헌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김택영이 이 구절을 바로잡은 최초의 제작자가 아니라 그 역시 전대의 선본을 토대로 편찬했으리라는 점도 다양한 이본을 두루 검토한 결과 밝힐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정본 연암집은 이본 교감을 통해 이 대목의 박영철본의 글자를 오자로 판정, 이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과와 차이를 두었다.

言語者, 分別也. 欲其分別, 則不得不形容, 欲其形容, 則援彼證此, 此言語之情實也. 至於性也, 其體本虛, 無可以譬喻形容. 粗言則涉氣, 精言則嫌虛. 不言則情實有在, 欲語則頓泊無所, 謂之衆妙玄玄, 則非可名狀, 謂之成性存存, 則已凝氣質. 故古來言性者, 莫不認氣. 告子之謂生也, 荀子之謂惡也, 揚子之謂混也, 韓子之謂三品也, 佛氏之謂作用也, 皆氣也, 非吾所謂性也. 孔子之言相近也, 喻其氣質之各殊也, 故人心道心之喻, 界限雖嚴, 而本非兩心也. 孟子之養氣也, 以爲難言者是也. 故語其純一不雜之品, 而子思之謂命, 語其自然也, 孟子之道善, 語其本然也, 程子之訓理也, 喻其當然也. 大抵兼之則無辨, 合之則太混, 二之則不可, 孤行則墮虛, 何以明之? 性之爲字, 從心從生.【缺】

언어라는 것은 分別이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부득이 형용하지 않을 수 없고, 형용하려면 저것을 끌어다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언어의 실정이다. 그런데 性의 경우에는 그 體가 본래 虛하기 때문에 비유하거나 형용하여 말할 수 없다. 거칠게 말하면 氣를 건드리게 되고, 정밀하게 말하면 虛가 아닌가 의심받게 된다. 또 말하지 않으면 실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나, 말하려 하면 귀착할 곳이 없다. 그것[性]을 일러 ‘衆妙가 깊고 깊다’ 할 것 같으면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일러 ‘타고난 성을 보존하고 보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氣質에 영겨 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性을 말한 사람 중에 성을 氣로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告子が ‘生’이라 이른 것과, 荀子が ‘惡’이라 이른 것, 揚子が ‘混’이라 이른 것, 韓子が ‘三品’이라 이른 것, 그리고 불씨佛氏의 ‘作用’이라 이른 것이 모두 기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성은 아니다. 공자께서 ‘서로 가깝다[相近]’고 말씀하신 것은 기질이 각기 다름을 설명한 것이다. 때문에 人心과 道心의 설명에 의하면 양자의 한계는 비록 엄격하나 본래 두 마음은 아닌 것이다. 또 맹자가 氣를 기쁨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難言]’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로지 순수하고

21)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 개정판, 2012, 213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성품[品]임을 말하면서, 子思가 命이라고 이른 것은 自然을 말한 것이며, 맹자가 善하다고 말한 것은 그 本然의 性을 말한 것이요, 程子가 理라고 해석한 것은 그 當然(當然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대저 겹하면 分別이 없고 합하면 너무 혼잡하고, 둘로 하면 不可하고 단독으로 행하면 虛에 떨어지니, 어떻게 그것[性]을 밝힐 수 있겠는가? 性이란 글자는 心 자와 生 자의 뜻을 따른 것이다. - 원문 빠짐 -22)

한문에서 흔히 쓰이는 ‘大抵’라는 말이 박영철본에는 ‘大低’로 되어 있다. ‘韓氏’, ‘庸齋’, ‘東洋’, ‘自然’, ‘莽蒼(甲)’, ‘莽蒼(乙)’, ‘勝溪’ 등을 교감하였을 때, 어떤 이본에서도 박영철본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인쇄하는 과정에서의 誤植이었을 듯하다. 비교적 소소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이 ‘大低’의 ‘低’가 오자임을 인지한 선례는 찾아지지 않던 차에 이번엔 비로소 바로잡았다.

## 2) 원문의 수정을 유보한 경우

踐形者, 知命也, 達道者, 自得也, 難罔者, 鬼神也, 窮道之自反也, 塗聽而途說者, 斯道之自棄者也.

타고난 형체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천명을 아는 것이며, 도를 깨우침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고, 속이기 어려운 것이 귀신이며, 이치를 끝까지 밝히는 것은 도를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요, 길에서 주위들은 말을 전하는 것은 斯道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세.<sup>23)</sup>

‘窮道之自反也’를 ‘이치를 끝까지 밝히는 것은 도를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요’라고 옮긴 것은 “원문은 ‘窮道之自反也’인데 뜻이 통하지 않는다. 김택영의 『연암집』에는 “이 구절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를 붙여 놓았고, 다시 『중편연암집』에는 ‘窮理者 道之自反也’로 고쳐 놓았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라는 주해에 밝혀져 있듯이 박영철본에 찍어 있는 대로 옮기지 않고 『중편연암집』에서 고쳐놓은 것을 따라 옮겼기 때문이다. 정본 작업에서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燕巖(가)1’, ‘燕巖(가)2’, ‘溪西’, ‘韓氏’, ‘庸齋’, ‘東洋’, ‘自然’, ‘莽蒼(甲)’, ‘莽蒼(乙)’, ‘滄江(初)’ 등에도 박영철본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 ‘滄江(初)’에는 ‘此句疑有誤’라는 小字雙行註가 붙어 있음. ‘滄江(重)’에는 ‘窮理者, 道之自反也’로 되어 있음. ‘勝溪’에는 저본과 같이 썼다가 ‘窮’과 ‘道’ 사이에 ‘理者’ 2字를 보입하라는 수정표시가 있음.

김택영의 문장가적 명망과 비평가적 견식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중편연암집』과 승계문고본 단 두 본만을 따라 원문을 고치는 것은 저어되기도 한다.<sup>24)</sup> 이 구절 바로 앞의 “達道者, 自得

22) 朴趾源, 「答任亨五論原道書」, 『燕巖集』 卷2.

23) 朴趾源, 앞의 글.

也'가 '沔陽(漢)', '燕巖(가)1', '燕巖(가)2'에는 '達道之自得也'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듯하다. 이 세 이본이 전술했듯이 연암 당대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연암이 초고에서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대목은

○○者, ○○也, ○○之○○也

○○者, ○○也, ○○之○○也

○○○○者, ○○之○○也

와 같은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연암이 의도적으로 구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끔 한다. '窮道之自反也'라는 구절이 이미 '이 구절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나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받은 바 있듯이 실로 난해하다. 본고에서 이 구절을 저대로 두고 명쾌하게 제시할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 구절의 이본을 살펴봤을 때 혹시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연암의 의도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에 문제를 제기해보는 바, 문제의 선명한 해결을 기대한다.

凡使行員役, 宜減冗額至於書狀, 任非專對, 職殊從事, 其糶糧夫馬, 一應煩費, 別添一价, 而多帶僉隸, 寄廚兩房. 其去其來, 本非大國所知, 而凡干宴賚, 隨例冒受, 最是無謂, 於彼於此, 苟且亦甚.

무릇 사행의 수행원도 마땅히 긴요치 않은 인원은 감해야 할 것이다. 서장관(書狀官)의 경우에 그 소임이 외교의 임무를 맡은 것도 아니요 직분이 종사(從事)와도 다른데, 그 식량이며 마부와 말 등 일체 번다한 비용은 따로 사신 한 사람의 몫이 들며 잡심부름하는 하인들을 많이 대동하고 양방(兩房)에 의존하여 취사를 해결한다. 그가 가고 오는 것은 본래 중국 측에서 알 바 아닌데도 무릇 잔치를 베풀고 상을 하사하는 자리에서 전례에 따라 염치 없이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구차스럽기 짝이 없다.

이 인용문에서는 '凡干宴賚'의 '干'자가 논의할 글자이다. 돌베개 판 연암집은 '干'을 '于'의 誤字로 보아 원문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릇 잔치를 베풀고 상을 하사하는 자리에서'라는 번역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일견 '干'자로는 文義가 단번에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人'과 '入'을 혼동하여 글자를 인쇄하는 경우처럼 字形이 유사한 '干'과 '于'를 植字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박영철본을 포함해서 22종의 이본을 검토한 결과 이것을 '于'자로 필사하거나 인쇄한 본은 하나도 없었다. 전부 '干'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干'을 다른 글자로 理校하는 데 머뭇거리지고 '干'의 字義와 用例를 더 고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정보에서는 '干'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24) 승계문고본은 김택영이 만든 『연암집』의 원문을 따른 경우가 많고, 김택영이 가한 평어까지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가 많다. '단 두 본'이라고 했지만 이 구절을 변경한 것은 김택영이므로 '유일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승계문고본은 김택영이 만든 본을 모본으로 하지는 않았던 듯하며, 일차적으로 어떤 필사본을 모본으로 삼아 필사를 마친 후 김택영이 만든 『연암집』을 보면서 원문 수정도 하고 김택영의 평어도 追記했던 것 같다.

### 3) 박영철본 『연암집』에 누락된 작품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면양잡록(4)』와 『연암집초고(보유9)』에 「海印寺唱酬詩」(칠언 율시 2수)가 실려 있다. 또한 『유상곡수정집(곤)』과 『연암집초고(보유9)』에 「題仙玉小影」(오언 절구)이 수록되어 있다. 『연암집초고(보유9)』에는 이 외에도 「司鑰行」(칠언고시 54구), 「夢踏亭」(칠언율시), 「漁翁」(칠언절구), 「絕句 五首」 중 제5수, 「留宿東關」(칠언율시), 「書示李生【鍾穆】」(칠언율시) 등 박영철본 『연암집』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送李懋官朴次修入燕」(오언절구 2수)은 『열하피서록』에 실려 있는 것이 원작으로 운위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박영철본에는 보이지 않는 연암의 ‘逸詩’들의 상당수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필사본자료들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실정인 바, 남아 있는 시편이 적은 연암의 시세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들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sup>25)</sup>

『연암집』에 수록되지 않은 연암의 산문으로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필사본 자료에 수록된 작품으로는 『映帶亭集』의 「映帶亭集序」, 『燕巖草稿(八)』의 「蟬橋堂記後識」, 『燕巖草稿(五)』의 「紙地凡例」 등이 있다. 이 시문들이 모두 연암의 문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26)</sup>

## 5. 『연암집』 평어에 대한 고찰

### 1) 『연암집』 평어의 현황

현재까지 『연암집』의 여러 이본을 교감한 결과 다양한 양상들이 드러났는데, 특히 수많은 평어와 권점들은 연암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이번 장에서는 『연암집』 권1에 들어있는 작품에 대한 평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권점도 함께 소개하면 좋겠으나, 권점은 평어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복잡하며, 또 깊은 분석이 있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평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위의 표는 『연암집』의 여러 이본에 기록되어 있는 평어를 수치화한 것으로, 『연암집』 권1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평어를 제하평, 미비, 행비, 후평 4가지로 분류해서 적용하였고,

25) 김윤조, 「연암초고(보유구)」,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 사업단,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문예원, 2012, 204~211면; 정재철, 「박영철본 『연암집』 미수록 연암시에 대하여 -연민문고 소장 『연암집초고(보유9)』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7, 대동한문학회, 2012;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15~110면.

26) 김문식,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필사본의 자료적 가치」, 『동양학』 4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8;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표 2〉 『연암집』 권1의 작품에 대한 평어

작품	이본	燕巖集(반영전본)	謙軒漫筆乾(겸1)	翟書溪集坤(엄2)	映帶亭集乾(영1)	映帶亭集坤(영2)	煙湘閣集(연상1)	雲山萬壘堂集(운1)	雲山萬壘堂集(운2)	百尺梧桐閣集(백연)	百尺梧桐閣集(백장)	荷風竹露堂集(하존)	流錫曲水亭集乾(유1)	沔陽雜錄(면연)	沔陽集(면하)	燕巖集(연가)	燕巖集(계서)	燕巖集(창초)	燕巖集(창수)	燕巖集(창중)	燕巖集(승계)	燕巖諸閣記(서울)	합계
李子厚賀子詩軸序	題下評																	1					1
	後評									1													1
會友錄序	제하평																	1		1	1		3
	미비				3	10	3			3							1						20
	행비				2		2			2					1								7
	후평		1							1													2
楚亭集序	제하평																	1					1
	미비				2	1	6			3	3						3						18
	행비				11	10	6			10	10				5								52
	후평	2	1							1													4
贈白永叔入麒麟峽序	제하평																	1		1	1		3
	행비				4	4	4			4						3							19
	후평	2	1							1													4
族兄都尉公周甲壽序	제하평																		1				1
	후평	1						1		1													3
洪範羽翼序	제하평																		1	1	1		3
	미비			1			4			4	3						3						15
	행비									1													1
海印寺唱酬詩序	후평	1								1													2
	제하평																		1	1	1		3
澹然亭記	후평	2																					2
	미비						4			3	3												10
	행비						2	1		1	3			2									9
陝川華陽洞丙舍記	후평	3								2													5
	후평	1																					1
永思菴記	후평	2		1						2													5
	제하평																	1		1	1		3
以存堂記	미비				1	1	1			1	1												5
	후평	1		1																			2
安義縣社稷壇神宇記	제하평																	1		1	1		3
	후평	2						1		2													5
安義縣厲壇神宇記	제하평																	1		1	1		3
	미비						1			1	1												3
	행비						3			3	9	9		1									25
百尺梧桐閣記	후평	2								1													3
	미비																						1
百尺梧桐閣記	후평	1								1													2

작품	이본	燕巖集(박지원본)	謙軒漫筆乾(엄1)	罨畫溪集坤(엄2)	映帶亭集乾(영1)	映帶亭集坤(영2)	煙相閣集(연상1)	雲山萬疊堂集(운1)	雲山萬疊堂集(운2)	百尺梧桐閣集(백연)	百尺梧桐閣集(백장)	荷風竹露堂集(하준)	流觴曲水亭集乾(유1)	沔陽雜錄(면연)	沔陽集(면한)	燕巖集(연가)	燕巖集(계서)	燕巖集(창조)	燕巖集(창숙)	燕巖集(창웅)	燕巖集(승계)	燕巖諸閣記(서울)	합 계	
		제하평	미비	후평	미비	후평	제하평	미비	후평	평어가 없음	제하평	행비	후평	제하평	행비	후평	제하평	미비	행비	후평	제하평	행비		후평
孔雀館記	제하평								1										1	1	1		4	
	미비								1												2		3	
	후평	1																					1	
荷風竹露堂記	미비						1	2	1													1	5	
	후평	2																					2	
獨樂齋記	제하평																	1			1		2	
	미비				1	1			1														3	
	후평	1	1						2														4	
安義縣縣司祀郭侯記	제하평																	1		1	1		3	
	후평	1							2														3	
忠臣贈大司憲李公述原旌閭陰記	평어가 없음																							
居昌縣五慎祠記	제하평																	1		1	1		3	
	행비							1															1	
	후평	1							2														3	
咸陽郡學士樓記	제하평																	1		1	1		3	
	후평								2														2	
咸陽郡興學齋記	제하평																	1		1	1		3	
	후평							1	2														3	
髮僧菴記	제하평																	1	1	1	1		4	
	미비			1	5	6	2		8	7						1							30	
	행비				11	11	11		2	9			9											53
	후평	4	1						2														7	
騷壇赤幟引	미비											1					1						2	
	행비				8	8			8	7					5								36	
	후평	3							2														5	
玉璽論	제하평																	1		1	1		3	
	행비				3	3			3							2							11	
	후평	2							2														4	
金孺人事狀	미비				2	1		2	2														7	
	행비				6	7		9								8							30	
	후평				1	1		1	1	2					1								7	
烈女咸陽朴氏傳并序	미비								8	8			18									14	48	
합 계		35	3	6	60	63	51	17	4	103	8	57	9	18	18	19	9	15	4	14	17	15		

각 평어의 내용상 길이는 고려하지 않고<sup>27)</sup> 모두 '1'로 적용하여 수치화한 것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첫째, 이본 중에 상당수의 소집류 계열과 일부 별집류 계열에서 평어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소집류 계열의 경우, 『謙軒漫筆乾(연민문고)』, 『罨畫溪集坤(연민문고)』, 『映帶亭集乾·坤(연민문고)』, 『煙湘閣集(실학박물관)』,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雲山萬疊堂集(개인소장)』, 『百尺梧桐閣集(연민문고)』, 『百尺梧桐閣集(장서각)』, 『荷風竹露堂集(존경각)』, 『流觴曲水亭集乾(연민문고)』, 『沔陽雜錄(연민문고)』, 『沔陽集(한양대)』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百尺梧桐閣集(연민문고)』, 『映帶亭集乾·坤(연민문고)』, 『荷風竹露堂集(존경각)』, 『煙湘閣集(실학박물관)』에 많았다.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연암집』 권1만 살펴본 결과이다. 별집류의 경우 『연암집(박영철본)』, 『연암집(가제)』, 『연암집(계서본)』, 『연암집(창강초편본)』, 『연암속집(창강초편본)』, 『연암집(창강중편본)』, 『연암집(승계본)』, 『燕巖諸閣記』 등이다. 『연암집(박영철본)』은 후평만 존재하고, 滄江 金澤榮(1850~1927)이 편집한 『연암집』은 주로 제하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나머지 이본은 평어가 매우 적다.

둘째, 『연암집』 권1의 작품 중에 「忠臣贈大司憲李公述原旌閭陰記」를 제외한 모든 작품에 평어가 존재하였다. 물론 작품마다 평어의 편차가 존재한다. 연암의 작품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 즉 「會友錄序」, 「楚亭集序」, 「贈白永叔入麒麟峽序」, 「洪範羽翼序」, 「澹然亭記」, 「安義縣厲壇神宇記」, 「髮僧菴記」, 「騷壇赤幟引」, 「玉璽論」, 「金孺人事狀」, 「烈女咸陽朴氏傳」 등의 작품들에서는 평어가 많았고, 특히 「楚亭集序」와 「髮僧菴記」가 평어의 다양성과 개수, 그리고 평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본의 수에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수많은 평어를 통해 조선 후기 문장가들이 연암의 어떤 작품과 어떤 문장에 관심을 가졌으며, 또 연암의 작품과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다. 이는 연암 산문 연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sup>28)</sup>

## 2) 『연암집』 평어의 구체적 사례

『연암집』의 여러 이본에 나오는 수많은 평어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인상비평이랄 것도 없지는 않지만, 연암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작품을 읽고서 단순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느 대목이 어떻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어떠한 감흥을 자아내며 작가가 고심한 대목은 무엇이었는지를 간파하는 글 읽기는 독서 감상과 연구 분석의 측면에서 평판성을 극복하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 평어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작품 이해와 감상 나아가 분석에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하겠다.<sup>29)</sup>

27) 원래 '眉評'도 있으나 『연암집』 권1에는 '미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평'의 경우는 매우 드문데, 대표적으로 『증북소선』에 실려 있는 「夏夜讌記」에 대한 미평이 있다.

28) 김혈조, 「『열하일기』 정보화 작업의 제문제-신자료 소개를 겸하여-」, 2018년도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36면.

29) 김윤조·황동권·김종민, 「『연암집』 교감과 여러 異本の 평어에 대한 고찰-『연암집』 정보화 사업의 중간

이 장에서는 『연암집』의 여러 이본에 나오는 다양한 평어, 즉 ‘제하평’, ‘미비’, ‘행비’, ‘후평’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하평’의 경우는 대부분 창강 김택영이 편집한 『연암집』과 『연암집』(승계본)에서 나오며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에도 보이는데, ‘교감본’과 ‘정본’에 모두 주석으로 명시하였다.

- 「贈白永叔入麒麟峽序」
  - 창강초편본 : 悲壯
  - 창강중편 · 연암집(승계본) : 悲壯. 高阜句以下, 皆述永叔之事, 與篇末壯其志句相應.
- 「海印寺唱酬詩序」
  - 창강초편본 : 悠永
  - 창강중편 · 연암집(승계본) : 文極佳永. 而中含箴規, 亦可見先生不屈勢威之氣槩.
- 「孔雀館記」
  -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 玲瓏
  - 창강속집 : 自喻文章境界, 而文似晚明.
  - 창강중편 · 연암집(승계본) : 先生文雜用駢儷者, 至此爲數處, 亦一閑肆不拘之義趣, 而色光論處, 要眇玲瓏, 似莊似佛, 說盡文章之妙.

둘째, 미비와 행비는 소집류 계열의 이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같은 평어라도 이본에 따라 어떤 것은 미비로, 어떤 것은 행비로 처리한 것도 많았다. 이것 역시 교감본과 정본에 모두 주석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은 「초정집서」의 여러 이본에 기록되어 있는 행비와 미비의 일부 내용이다.

- 「楚亭集序」
  - 爲文章如之何
    - ‘虛心切問’(행비) : ‘映帶亭集(乾·坤\_석주선기념박물관)’, ‘煙湘閣集(실학박물관)’,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荷風竹露堂集(존경각)’, ‘沔陽雜錄(한양대)’
  - 夫然則如之何其可也? 吾將奈何? 無其已乎?
    - 情急意蹙. 不覺其連聲三問, 而三問益親(행비) : ‘映帶亭集(乾\_석주선기념박물관)’
    - 情急意蹙. 不覺其連聲三問, 而三問益親(미비) :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 天地雖久, 不斷生生, 日月雖舊, 光輝日新, 載籍雖博, 旨意各殊. 故飛潛走躍, 或未著名, 山川草木, 必有祕靈, 朽壤蒸芝, 腐草化螢.
    - 讀至此, 令人暢心快樂,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행비) : ‘映帶亭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 故爲文者, 時有摹擬倣像古人, 而亦不無警新生豁(미비) : ‘罨畫溪集(乾\_석주선기념박물관)’

보고서로서-], 2018년도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65면.

셋째, 後評의 경우 평어 중에 유일하게 박영철본 『연암집』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본을 교감한 결과 박영철본에 반영되지 않은 후평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박영철본 『연암집』에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후평을 정본의 대문에 삽입하여 정본의 가치를 높였다. 다음은 박영철본에 없는 후평 일부이다.

〈표 3〉 『연암집』 권1의 작품의 후평

작품명	이본	후평
李子厚賀子詩軸序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可使天下之人讀之, 惕惕然收華, 駸駸乎就實
會友錄序	謙軒漫筆(乾_석주선기념박물관)	超越東方, 擺脫今俗.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千載道不得之議論, 三韓不可無之文字.
楚亭集序	謙軒漫筆(乾_석주선기념박물관)	排比古語成章, 如聯珠補錦.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路.
贈白永叔入麒麟峽序	謙軒漫筆(乾_석주선기념박물관)	如南史曹敬宗語一段.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以奇文摸壯士, 兩悲字而終始之.
族兄都尉周公周甲壽序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未及聞公之風者, 亦足以深識所以爲此作之絕佳.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雅馴典則之中, 意新精逼.
洪範羽翼序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孟氏之學. 文亦孟氏之徒.
澹然亭記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警世之文.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大奇警, 極變化.
永思菴記	罨畫溪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依樣『青鳥』文法, 而命詞藹蔚真摯, 讀此者, 孝悌之心, 油然而生.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因堪輿之說, 救堪輿之弊, 再引『詩』以明孝悌之原.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孰謂此公於文俳諧哉! 若此篇與上「丙舍記」, 有典有則, 可師也.
以存堂記	罨畫溪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上半下半, 亦儒亦禪.
安義縣社稷壇神宇記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百靈洋洋下, 有闔廟旋軀, 祥飈送颿意思.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良長吏好辭命.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南海廟碑」後, 初出之文.
安義縣屬壇神宇記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道得至誠處, 足以感神明.
百尺梧桐閣記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柳記山水, 還覺無情.
獨樂齋記	罨畫溪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把弄掀翻, 似嘲似諷, 要歸至理.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可入昭明之選.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活動跳蕩. 是老也, 愧死坡翁矣.
安義縣縣司祀郭侯記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因郭侯享祀, 備載中外吏舍祀府君之俗, 是爲良史之禮.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使皆如此篇者, 人孰敢議.

작품명	이본	후평
居昌縣五慎祠記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所養非其所用, 所用非其所養, 古人所嗟, 則何足於五慎, 爲之歎歎耶? 然觀五慎之祠, 讀五慎之記, 安得不重爲之歎歎也.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善因題發意, 狀功烈處, 尤警可讀.
咸陽郡學士樓記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綽有風韻, 庶幾遇孤雲仙子.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澹宕飄逸, 其行如雲.
咸陽郡興學齋記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盛增興修勻簡息, 七吐當作刊.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確實中有警發處.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圓實典雅.
髮僧菴記	罨畫溪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偈詩日喻, 得『首楞』之隨.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事蹟清奇, 思致玄遠.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事奇, 文亦絕奇, 奇才奇才.
騷壇赤幟引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筆陣圖之幻化, 黃石公之羽翼. 決勝制敵, 足以破馬服子膠柱之學, 出奇應變, 足以摧封節度市募之師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愚常謂: ‘此老非東國奇才, 乃天下奇才也.’ 神於文至此!
玉璽論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堂堂井井之論, 磊磊落落之文.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正是確論, 結尤典嚴.
金孺人事狀	映帶亭集(乾·坤_석주선기념박물관)	上一段, 如竿頭進步, 下一段, 如屋上建瓴, 老獄吏手法.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雲山萬疊堂集(개인소장)	
百尺梧桐閣集(석주선기념박물관)	寫得從容取義處, 曲盡事情, 文亦從容而曲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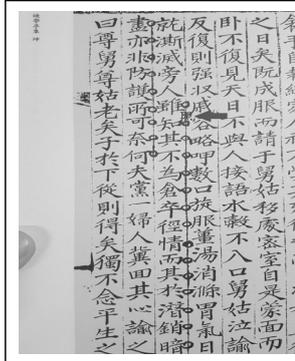
지금까지 『연암집』 권1의 작품을 여러 이본과 교감하면서 확인한 여러 평어를 소개하였다. 이제 제시된 수많은 평어 중의 하나인 ‘照應’이라는 문장 작법을 통해 연암 작품을 감상하고자 한다.

장수의 병법 운용에 비유하여 문장 작법의 원리를 제시한 「騷壇赤幟引」에서 연암은 ‘照應者, 烽堠也.(조응은 봉화대이다.)’라고 하였다. 봉화대는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고, 밤에는 불빛을 이용하여 적의 침략과 같은 급보를 중앙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신 제도이다. 문장 작법의 원리 중의 하나인 ‘조응법’은 앞에서 먼저 말하고 뒤에서 이에 호응하는 것<sup>30)</sup>이기 때문에 연암은 「소단적치인」에서 ‘조응은 봉화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조응법’에 따라 실제 작품의 어느 대목에서 조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옛 문장가들이 연암을 작품을 읽으면서 어느 대목과 어느 대목은 조응을 이루고 있다고 정확하게 평어를 기록한 예가 있어 ‘조응법’의 정확한 용례를 알 수 있다.

30) 정민, 「편장자구법으로 본 「온달전」의 텍스트 분석」,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113면.

## 「金孺人事狀」

## - ‘照應’의 ‘照’를 기록한 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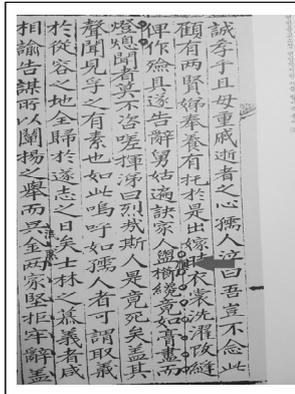


## (照)

旁人雖知其不爲倉卒徑情，而其於潛銷暗盡，亦非防護所可奈何(주위 사람들이 비록 그가 창졸간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목숨이 사그라지는 것은 누가 지키고 막는다고 해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본 : 映帶亭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燕巖集(가제\_석주선기념박물관)

## - ‘照應’의 ‘應’을 기록한 단락



## (應)

鬢櫛纔竟，如膏盡而燈熄(얼굴 씻고 머리 빗기를 겨우 마치더니 마치 기름 다한 등잔이 꺼지듯 목숨을 거두었다.)

이본 : 映帶亭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燕巖集(가제\_석주선기념박물관)

위의 작품은 남편을 따라 죽음으로써 ‘烈’을 실행한 孺人 金氏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지은 「김유인사장」이다. 이 작품의 이본인 映帶亭集(坤\_석주선기념박물관),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 燕巖集(가제\_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照應’이라는 평어가 붙어 있는데, 위치는 세 이본이 동일하지는 않다. ‘조’의 위치는 세 이본 모두 동일하지만, ‘응’의 경우 위에 제시된 『映帶亭集(坤)』(석주선기념박물관)은 ‘鬢櫛’ 옆에, 『雲山萬疊堂集』(실학박물관)과 『燕巖集(가제)』(석주선기념박물관)은 ‘膏盡’ 옆에 붙어 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지 않게 목숨이 사그라지는 것[潛銷暗盡]’에 ‘照’가, ‘기름 다한 등잔이 꺼지듯 목숨을 거두었다.[膏盡而燈熄]’에 ‘應’이라는 평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인 김씨가 남편을 잃은 뒤 곡기를 끊은 것에 대해 연암은 ‘보이지 않게 자신의 목숨이 사그라진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기름 다한 등잔이 꺼지듯 목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대목과 ‘조응’이 되는 순간, 앞에서 미리 베풀어 놓은 한 구절이 갑자기 도약하여 정채를 발한다.<sup>31)</sup>

한편, ‘相應’이라는 평어도 있는데, 이 역시 일종의 ‘조응’과 같은 작법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贈白永叔入麒麟峽序」에 대해 창강 김택영은 「高阜」구 아래는 모두 영숙의 일을 서술했는데,

31) 정민, 위의 책, 122면.

작품 말미의 「壯其志」구와 서로 호응한다.[高阜句以下, 皆述永叔之事, 與篇末壯其志句相應.]라는 제하평을 달았다. 여기에서 ‘저기는 울을 쳐 뽕나무를 심을 만하고,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일 년에 조 천 석은 거둘 수 있겠다.[彼可籬而桑也. 火葦而田, 歲可粟千石.]’고 한 대목은 일종의 ‘照’로,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망정 그의 궁함을 슬피 여기지 않는 바이다.[吾壯其志, 而不悲其窮]’라는 대목은 ‘應’으로 볼 수 있다. 앞의 구는 영숙의 일을 서술한 대목으로 독자들은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품게<sup>32)</sup> 되다가, 뒤의 구에 이르러서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영숙의 그 뜻을 장하게 여길 뿐 그의 궁함을 슬피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sup>33)</sup> 여기에서 ‘조응’의 묘미가 느껴진다.

이상으로 ‘조응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연암이 「소단적치인」에서 밝힌 ‘조응은 봉화대이다.[照應者, 烽堠也.]’라는 작법의 원리를 「김유인사장」과 「증백영숙입기린협서」에 기록되어 있는 평어를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여러 이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평어가 없다고 한다면 연암 산문의 수준 높은 작품성을 쉽게 간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비단 ‘평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圈點’ 역시 연암 산문의 문예미를 啓明시켜 줄 길잡이다.

## 6. 맺음말

김택영이 편찬한 『연암집』은 그동안 박영철본 『연암집』에 가려져 연구자료로서 활발히 채택되지 못한 편이다. 김택영은 연암의 글에 임의로 윤색을 가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가 남긴 평어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터득하기 어려운 하나의 자료로서 평가받고 활용될 가치가 있다. 한문학 종장기 대가의 문장에 대한 식견이 스며있는 수준 높은 지침으로 우대할 만한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追隨할 것이 아니라 허심으로 取捨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정본화 작업에서는 김택영의 題下評을 주석에 부기하여 많은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타의 이본에 보이는 眉批나 行批도 주석에서 명시하였으며, 후평의 경우에는 본문에 부기하여 비평 자료로서의 가치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이는 평어를 집성한다는 취지로서 이로부터 문학비평의 연구 방법 면에서도 또 하나의 法古創新이 실현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단국대학교 연민문고 소장 박지원 필사본 자료들은 기존 연암 연구에서 통행본 텍스트라 할 수 있는 박영철본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장점을 구비하여 그 자료적 가치가 심대하다는 점을 상

32) 『映帶亭集(乾·坤)』(연민문고), 『煙湘閣集』(실학박물관), 『百尺梧桐閣集』(연민문고) 등의 이본들은 이 대목에 ‘그 말이 더욱더 슬퍼할 만하다.[其語更益可悲]’는 행비를 달았다.

33) 『映帶亭集(乾·坤)』(연민문고), 『煙湘閣集』(실학박물관), 『百尺梧桐閣集』(연민문고) 등의 이본들은 이 대목에 ‘그러나 또한 슬퍼하지 않으니 더욱더 오묘하다.[然且不悲, 更妙.]’는 행비를 달았다.

론하였다. 각 자료들에 적혀 있는 평어는 연암 작품의 묘처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적절한 길잡이가 되어줄뿐더러 통행본에는 실려 있지 않은 작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연암 문학의 전모와 정수를 파악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박지원필사본자료들은 우리 문학사에 남은 수많은 자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재로 세계에 유일한 보물이라는 차원에서 잘 보존되고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 “『燕巖集』 교감과 여러 異本의 평어에 대한 고찰 - 散文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 영 진(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실학박물관, 한국실학학회 공동의 “연암 박지원 가(家) 소장 필사본의 가치와 위상” 학술대회를 맞아 여러 감회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들어온 1987년 한국한문학회에서 주최한 연암 탄생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전시회도 같이 열림)와 대학에 처음 취직한 2005년 대동한문학회 주최의 연암 서거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전시회도 같이 열림)를 경험했기에 이번 연암 특집 학술대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의 임무를 맡은 김윤조·황동권·김종민 선생의 발표문은 『열하일기』와 『과농소초』를 제외한 연암의 일반 산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본 조사, 교감, 정본화를 수행한 매우 소중한 보고이자 성과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이 도출한 결론에 이의는 없고 몇 가지 참고자료의 제시와 향후 지속 연구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소임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1. 이본 조사가 방대하게 이루어져서 대교 작업을 하는 데에 매우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확인한 자료 몇 가지를 추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자료들의 면밀한 대교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본으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미지의 상태입니다. ① 『연행음정록』(필사본 1책,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후반부의 「우부초서(愚夫艸序)」 등 10여 편의 산문, ② 『연암문』(박장암 수택본, 필사본 1책, 개인소장) 「일야구도하기」 등 11편 수록, ③ 『연암집』(표제 『연암문초』, 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민중하(1808년생, 수택본), ④ 김택영 선 『여한문선』 내 『연암문』, 발표문의 “〈표 1〉 『연암집』 이본 현황”에 수록된 연상각집(개인소장)은 비고란에 방경각외집만이 수록되어 있음과 필사기가 있음을 적시해야 오해의 우려가 없겠습니다.

2. 발표문의 3장 “박영철본 『연암집』에 누락된 작품”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초고본 계열에 수록된 것인데 과연 연암의 작품인지 미심쩍거나, 아니면 연암의 작품이 분명한데 간행을 위한 『연암집』에 편차하기가 불편해서 의도적 배제를 한 것인지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후자의 경우에 해인사 창수시의 시 작품 2수가 배제된 것은 박종채와 이재성에 의해 『연암집』이 편차 정리될 때에 문(文) 부분과 시(詩) 부분이 분리 수록될 것이기에 만약 이 작품의 시가 시집 부분에 들어가면 시 자체만 읽으면 경상감사 이태영을 조롱하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행음청』에도 『연암

집』에 실리지 않은 시가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왜 실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연상각집』 후반부에 한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암문 목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여 편의 제목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화원서(畵苑序)」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화원서」는 2015년 무렵 발굴 소개된 김광국의 『석농화원』에 실려 있는 연암의 서문을 가리킵니다.

3. 오늘 발표를 통해 연암의 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하평 ... 미평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아니 우리의 전 역사를 통해 연암 산문보다 더 많은 비평이 가해진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문 산문사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비평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와 연암을 전후한 시기 여타 작가들의 한문 산문들에 가해진 비평 양상의 실상과 흐름을 이해해야 연암 산문에 대한 비평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문 비평의 사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연암 산문에 가해진 비평을 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하나 드릴 말씀은 『연상각집』 계열본, 예컨대 『백척오동각집』 등의 경우 비평자들이 각각 친필로 적은 본이 있고, 이후 누군가 한 사람의 필체로 다시 그것을 재필사한 본이 있습니다. 비평자의 친필인 경우, 잘 고증하면 어느 평어가 누구의 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후 작업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필사본 『課農小抄』의 편찬 과정

발표 : 김문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 염정섭(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필사본 『課農小抄』의 편찬 과정

김 문 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課農小抄』(『燕巖集』 권7)     |
| 2. 『沔陽雜錄』 제3책의 초고 | 6.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 |
| 3. 『沔陽雜錄』 제4책의 초고 | 7. 맺음말                  |
| 4. 『課農小抄』(15권 3책) |                         |

## 1. 머리말

『課農小抄』는 1798년(정조 22) 11월 30일에 정조가 반포한 「勸農政求農書繪音」에 화답하여 沔川郡守 朴趾源이 올린 農書이다. 이 무렵 정조는 農家의 大畧을 편찬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에 있는 농서를 널리 수집하였고, 1798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정조의 운음에 응답하는 농서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sup>1)</sup> 박지원은 1799년 3월 25일에 『과농소초』 卷首에 있는 「進課農小抄文」을 작성하였고,<sup>2)</sup>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과농소초』를 완성하여 정조에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현전하는 필사본을 통해 박지원이 『課農小抄』를 편찬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sup>3)</sup>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실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박지원 집 안에서 傳來된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sup>4)</sup> 대부분은 판심 하단에 ‘燕巖山房’이라 새겨진 박지원

1)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 - 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분석」, 『韓國史研究』 12, 1968.  
廉定燮, 「18세기말 正祖의 ‘農書大畧’ 편찬 추진과 의의」 『韓國史研究』 114, 2001.

2) 『課農小抄』 卷首, 「進課農小抄文」.  
“己未三月二十五日, 行沔川郡守臣朴趾源, 伏地頓首謹奏.”

3) 필사본 『課農小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문식, 「연암 박지원의 牧民書, 『七事考』, 『東洋學』 48, 2010.  
염정섭,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김문식, 「박지원의 「限民名田議」 수정 과정」 『문헌과 해석』 69, 태학사, 2014.  
이국진·안세현, 「『課農小抄』 異本 교감과 정본화 작업의 성과와 의미」 『大東漢文學』 59, 2019.

4)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온재문고(朴瑄壽)에 포함된 『課農小抄』 異本에 대해서는 김명호, 「온재문고 소장 『열하일기』와 연암의 여타 저작들」, 『온재문고로 본 박선수 가문의 자료적 가치 조명』, 국립중앙도서관, 2022, 15~16면 참조.

家藏本이며, 박지원의 친필 원고부터 그 아들인 朴宗采(朴宗侃), 그 손자인 朴珪壽와 朴瑄壽의 손을 거치면서 원고가 수정되고 『燕巖集』으로 편집되는 과정이 잘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필사본 『과농소초』는 총 5종이다. 그중에서 2종은 박지원이 면천군수 시절에 작성한 『沔陽雜錄』에 수록된 것으로 가장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2종은 박선수 집안에 전래된 필사본으로 『과농소초』가 단독 저술로 완성된 모습과 『연암집』으로 편집되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1종은 편집이 마무리된 『연암집』에 포함된 『과농소초』이며, 이는 1932년에 朴榮喆이 신할자로 간행한 『연암집』(17권 6책)의 底本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하 본문에서는 5종의 필사본을 박영철본 『연암집』의 수록된 『과농소초』와 비교하면서 각 필사본의 특징을 정리한다.

## 2. 『沔陽雜錄』 제3책의 초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 『沔陽雜錄』은 6책 缺本으로, 제2책, 제3책, 제4책, 제6책, 제7책, 제8책이 남아있다. 판심 하단에 ‘燕巖山房’이라 새겨진 박지원의 家藏本이며, 책의 크기는 23.7×15.5cm이다. ‘沔陽雜錄’이란 제목을 볼 때 박지원이 면천군수로 근무한 1797년 7월부터 1800년 8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2책에 1799년 5월에 작성된 충청 관찰사의 甘結이 있고, 제3책과 제4책에는 1799년 봄에 박지원이 農書를 구한다는 정조의 諭旨에 화답하여 올린 『과농소초』의 초고가 있으므로 1799년부터 18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과농소초』는 제3책과 제4책에 초고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sup>6)</sup>

먼저 『면양잡록』 제3책의 초고를 검토한다.<sup>7)</sup> 책 표지에는 “農書應製”라 기록하고, “農書應製 農書引用書目 抄出次三”이라 기록한 첩지를 붙였다. 본문의 제일 앞에 『과농소초』의 引用書目を 제시했는데, ‘羣書目’이란 제목 아래에 중국 서적 29종과 ‘本朝’라 표시한 조선 서적 6종을 합하여 총 35종의 書目を 기록하였다. 『과농소초』의 인용서목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며 이후 필사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표 1>은 『과농소초』의 인용서목과 인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sup>8)</sup>

<표 1>을 보면 박지원이 『과농소초』 초고에서 제시한 인용서목은 실제로 본문에서 1회 이상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박지원이 초기에 정리한 인용서목에서 필요한 구절을 뽑아 편집하는 방식으로 『과농소초』를 편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박영철의 신할자본은 박지원의 5대손인 朴泳範이 소장한 필사본을 底本으로 하였다.

6) 김문식, 『沔陽雜錄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문예원, 2012, 170~175면.

7) 염정섭,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2012, 157~170면.

8) 인용 양상은 박영철본 『燕巖集』에 수록된 『課農小抄』의 인용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과농소초』의 인용서목과 인용 양상

서적	저자	諸家 總論	授時	占候	田制	農器	耕墾	糞壤	水利	擇種	播穀	諸穀 名品	鋤治	收穫	養牛	계
管子		1				1										2
商子		1														1
呂覽		1														1
亢倉子		1														1
汜勝之書	漢儒										4			1		5
齊民要術	元魏 賈思勰					2	1	1		2	7			2		15
四時纂要	唐 韓鄂									1	1			1		3
勸農文	朱子	1														1
農書	宋 全真子陳秀				1											1
農桑輯要	明 苗好謙									1						1
農說	馬一龍	1														1
農桑通訣	元 王禎				1		2	1	1	2	3		1	2	1	14
山林經濟籍	明 屠隆												1			1
神隱											5			1		6
種樹書	俞貞木										2					2
務本新書											1					1
四民月令	崔寔										2					2
閒情錄							1			1	2		1			5
四時類要							1				1					2
陸桴亭 <sup>9)</sup>	明 陸世儀				1											1
纂文						1										1
纂要補								1								1
傅子													1			1
種蒔直說						1	1						1			3
韓氏直說							1									1
直說補											3		1			4
農桑直說															1	1
田園必考				1												1
居家必用							1				3					4
衿陽雜錄	姜希孟			1							1	1	1			4
穡經	朴世堂										2					2
農事直說	申沔						1	1		1	22			1		26
增補山林經濟	柳重霖(臨)						1	1		1	3					6
攷事新書	徐命膺										2					2
田家月令			1													1
계		6	1	2	3	5	10	5	1	9	64	1	7	8	2	124

9) 염정섭은 陸桴亭은 陸世儀이며, 그가 지은 책은 『思辨錄』이라 밝혔다(「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2012, 158~159면).

그러나 『과농소초』의 최종본이라 할 박영철본의 『과농소초』를 보면 이 인용서목에 나타나지 않은 서적도 다수가 인용되었다. 다음의 <표 2>는 인용서목에 나타나지 않는 『과농소초』의 인용 서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인용서목에 나타나지 않는 『과농소초』의 인용 서적

서명	저자	諸家 總論	授時	占候	田制	農器	耕墾	糞壤	水利	擇種	播穀	諸穀 名品	鋤治	收穫	養牛	계
易						2										2
說文						5			2							7
周官						1										1
釋名						5										5
周禮						2		1	1		1	1				6
呂氏春秋						2										2
耒耜經	陸龜蒙					3										3
通俗文						2			1							3
魏志略 魏略						1			1							2
蘇文忠公序	蘇軾					1										1
廣雅						2						2				4
爾雅						1						7				8
淮南子						1										1
風俗通						1										1
集韻						2			2							4
國語						1										1
方言						2										2
新論	桓譚					1										1
漢書											1					1
後漢書						1										1
唐韻						1										1
世本						1										1
山鄉水利議	徐獻忠								1							1
早田用水疏 看泉法	徐光啓								1 1							2
書傳									2							2
廣韻									1							1
唐韻									1							1
王禎農書													1			1
農政全書 <sup>10)</sup>											1	1				2
孝經											1					1
除蝗方													1			1
相牛經	竇威														1	1
계						38		1	14		4	10	3		1	71

10) 『課農小抄』에는 『農政全書』라는 書名을 인용한 것이 2건, 徐光啓라는 人名을 인용한 것이 11건, (徐)玄扈라는 호를 인용한 것이 31건이 있다. 이국진·안세현, 『『課農小抄』 異本 교감과 정본화 작업의 성과와 의미』,

〈표 2〉를 보면 『과농소초』의 「農器」, 「水利」, 「諸穀名品」 등의 항목에서 처음 인용서목에서 제시한 범위를 넘어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였다.

인용서목 다음에 “課農小抄 / 沔川郡守臣朴趾源 編輯”이라 쓰고, 행을 바꾸어 “經”이라 쓰고 유교 경전에서 농업과 관련된 구절을 뽑아 정리하였다. 그리고 계선 상단에 경전의 구절을 정리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一”부터 “七十四”에 이른다. 박지원이 인용한 경전을 정리하면 『易』, 『禮記』, 『書』, 『詩』, 『月令』, 『周禮』, 『孟子』 등이며, 각 경전을 차례로 읽으면서 농업과 관련된 구절을 뽑아 정리하였다. 그러면 박지원이 뽑은 경전 구절은 『과농소초』에 그대로 반영되었을까?

다음은 박지원이 뽑은 경전 구절 10건을 박영철본 『연암집』에 수록된 『과농소초』에 반영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易·繫辭』】→ 『易·繫』曰: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農器」)
2. 厲山氏之有天下也, 其子曰‘農’, 能殖百穀. 夏之衰也, 周棄繼之, 故祀以爲稷.【『禮記·祭法』】  
○ 厲山氏, 一云‘烈山氏’, 炎帝神農也. 其後世子孫, 有名‘柱’者, 能殖百穀, 作農官, 因名‘農’.】→ 없음
3. 帝曰: “棄! 黎民阻飢. 汝后稷, 播時百穀.”【『舜典』】→ 臣謹按: … 故舜之命棄曰: “黎民阻飢. 汝后稷, 播時百穀.” (「播穀」)
4. 蓺之荏菽, 荏菽旆旆. 禾役穰穰, 麻麥幪幪, 瓜瓞嗶嗶.【『集傳』: “蓺, 樹也. 荏菽, 大豆也. 旆旆, 枝旗揚起也. 役, 列也. 穰穰, 苗美好之貌也. 幪幪然, 茂密也. 嗶嗶然, 多實也.”】  
→ 臣謹按: …「生民」之詩曰: ‘藝之荏菽, 荏菽旆旆, 禾役穰穰, 麻麥幪幪, 維秬維秠.’ (「諸穀名品」)
5. 誕后稷之穉, 有相之道. 芾厥豐草, 種之黃茂. 實方實苞, 實種實褒. 實發實秀, 實堅實好. 實穎實粟, 卽有郃家室.【『集傳』: “相, 助也, 言盡人力之助也. 芾, 治也. 種, 布之也. 黃茂, 嘉穀也. 方, 房也. 苞, 甲而未拆也. 此, 漬其種也. 種, 甲拆而可爲種也. 褒, 漸長也. 發, 盡發也. 秀, 始穰也. 堅, 其實堅也. 好, 形味好也. 穎, 實繁碩而乘末也. 粟, 不秕也. 既收成, 見其實皆栗栗然不秕也.”】→ 없음
6. 誕降嘉種, 維秬維秠. 維糜維芑, 恒之秬秠. 是穫是畝, 恒之糜芑. 是任是負, 以歸肇祀.【『詩·大雅·生民』○『集傳』: “降, 降是種於民也. 秬, 黑黍也. 秠, 黑黍, 一稔二米者也. 糜, 赤梁粟也. 芑, 白梁粟也. 恒, 徧也, 謂徧種之也. 任, 肩任也. 負, 背負也. 既成則穫而棲之於畝, 任負而歸, 以供祭祀也.”】→ 臣謹按: … ‘誕降嘉種’, (「諸穀名品」)
7. 禹曰: “於帝! 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 惟修; 正德、利用、厚生, 惟和. 九功惟敘, 九敘惟歌, 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 俾勿壞.”【『書·大禹謨』○『集傳』: “九功, 合六府與三事也. 敘者言九者, 各順其理, 而不汨陳以亂其常也. 歌者, 以九功之敘而詠之歌也. 言九者, 既已修和, 各由其理, 民享其利, 莫不歌詠而樂其生也. 然始勤終

- 怠者, 人情之常, 恐安養既久, 怠心必生, 則已成之功, 不能保其久而不廢. 故當有以激勸之. 其勤於是者, 則戒諭而休美之, 其怠於是者, 則督責而懲戒之. 然又以事之出於勉強者, 不能久. 故復即其前日歌詠之言, 協之律呂, 播之聲音, 用之鄉人, 用之邦國, 以勸相之. 使其歡欣鼓舞, 趨事赴功, 不能自已, 而前日之成功, 得以久存而不壞也. 葛氏曰: 「洪範」五行, 水、火、木、金、土而已, 穀, 本在木行之數. 禹以其爲民食之急, 故別而附之也.」 → 없음
8. 若農服田力穡, 乃亦有秋.【『集傳』: “勤於田畝, 則有秋成之望.”】→ 없음
9. 惰農自安, 不昏作勞, 不服田畝, 越其罔有黍稷.【『書·盤庚』○『集傳』: “如怠惰之農, 不強力爲勞苦之事, 不事田畝, 安有黍稷之可望乎?”】→ 經曰: ‘**惰農自安, 不昏作勞, 不服田畝, 越其罔有黍稷.**’ 此皆聖賢垂訓明白, 凡厥庶民切宜遵守. (『諸家總論』, 朱子「勸農文」 재인용)
10. 初一日五行, 次三日農用八政. → 없음

이를 보면 10건의 經文 가운데 축약된 형태로 인용한 것이 3건(1, 3, 4), 재인용의 형태로 인용한 것이 1건(9), 한 句만 인용한 것이 1건(6)이고, 나머지 5건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박지원이 “經”에서 정리한 경전 구절은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구절을 미리 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련번호 “七十五”의 글은 『과농소초』 卷首에 있는 「篇題」에 해당하는 글이다. 이는 초서체로 약간 흘려 쓴 글씨에 다수의 수정 표시가 있다. 이글의 첫 부분은 “王若曰 ‘明年己未[止]己丑未正.’[御製勸農政求農書繪音]”인데, 박영철본과 비교하면 “王若曰” 다음에 “臣趾源, 於戊午十二月初九日, 在職次, 祇受頒下印本”이 빠졌고, “明年己未”와 “己丑未正” 사이에는 정조의 「御製勸農政求農書繪音」 全文이 빠졌다. 이는 정조의 운음을 채워 넣으라는 표식으로 보인다.

「篇題」에는 정조의 운음 다음에 박지원의 글이 나오며 상당한 수정이 있었다. 다음은 『면양잡록』 제3책과 박영철본의 「篇題」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한 것이다.

臣我英宗大王**御極**之十五年己未, 聿修耕藉之儀, 親載耒耜于參保介之御間. 冕而青紘, 三發五推. 維時庶民, 歌呼鼓舞, 樂業趨工. 大有之書, 不絕於史氏. 先朝五十載治平殷富之化, 實基於勤民重農之一念也. 洪惟我主上殿下, 承惟精惟一之傳, 致善繼善述之**教**, 肆當舊甲之重熙, 益懋前烈之克篤, 乃茲渙宣絲綸, 咸諭中外, 古人云“欲法堯舜, 當法祖宗.” (『면양잡록』) → 臣**雙擊百讀**, 頓首頓首. 于時郡功曹掾吏等, 稽首跪伏, 恭聽于前. 臣宜讀訖, 謹將聖旨一一曉釋. 言昔粵我英宗大王**御極**之十五年己未, 聿修耕藉之儀, 親載耒耜于參保介之御間. 冕而青紘, 三發五推. 維時庶民, 歌呼鼓舞, 樂業趨工. 大有之書, 不絕於史氏. 先朝五十載治平殷富之化, 實基於勤民重農之一念也. 洪惟我主上殿下, 承惟精惟一之傳, 致善繼善述之**教**, 肆當舊甲之重熙, 益懋前烈之克篤, 乃茲渙宣絲綸, 咸諭中外. 古人云“欲法堯舜, 當法祖宗.” (박영철본)

以臣愚見, 由百世而等之, 今日隆昌之運, 其殆**中華周漢之盛際**乎, 於休盛矣. 斯實後聖制作之嘉會, 而奎璧之章, 信乎發前經之未發也. 而況**重農務本**, 自是聖朝之家法, 而**天何爲哉? 物各付物, 任其自然. 其所以然者, 理也; 其當然者, 道也** 王迹之所由開, 實在於是者乎? 臣故敢不揆猥

越，謹哀經文，並揭造化，墟鞠橐籥，不自爲明，不自爲勞，不自爲大，不自爲高王言，載之編書之首，以備萬世之鴻典云。[若是其費而不自爲恩，物各付物，任其自然] (『면양잡록』) → 以臣愚見，由百世而等之，今日隆昌之運，其殆漢之文景富庶之際乎。於休盛矣。斯實聖代制作之嘉會，奎璧之章，信乎發前經之未發也，與「豳風·七月」、「周書·無逸」相表裏，而允爲萬世之鴻典云爾。(박영철본)

다음은 「進課農小抄文」으로 해서체로 깨끗하게 필사하였다. 『면양잡록』 제3책에는 “進課農小抄文”이란 제목은 없으나 원문은 박영철본과 같으며 몇 글자의 출입이 있다.<sup>11)</sup>

마지막은 『과농소초』 「田制」에 수록된 박지원의 按說이며, 해서체로 깨끗하게 필사하였다. “臣嘗遊平壤外城”로 시작하여 “足以課農矣.”으로 끝나는 안설은 박영철본과 같으며 몇 글자의 출입이 있다.<sup>12)</sup>

이를 보면 『면양잡록』 제3책에 수록된 「인용서목」, 經, 「篇題」는 『과농소초』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며, 깨끗하게 필사된 「進課農小抄文」과 按說은 운문이 진행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沔陽雜錄』 제4책의 초고

『면양잡록』 제4책의 표지에 “農書艸”라 기록하여, 『과농소초』의草本이 있음을 표시하였다.<sup>13)</sup> 본문에서는 「海印寺唱酬詩序」, 「蘇雲卿傳」, 「杜五郎傳」, 「朴烈婦傳」, 「駙汎隨筆序」, 「楊經理[鎬]致祭文[代撰]」, 「邢軍門[玠]致祭文[代撰]」, 「五部八道戶口都數記」, 「玄扈先生井田攷」, 「命使行購朱夫子書真本綸音」이 있고, 다음에 「進課農小抄文」이 나온다. 이 중에서 「海印寺唱酬詩序」, 「朴烈婦傳」, 「駙汎隨筆序」, 「楊經理[鎬]致祭文[代撰]」, 「邢軍門[玠]致祭文[代撰]」은 박지원의 글로 『연암집』에 수록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낀 것이다.<sup>14)</sup>

『면양잡록』 제4책의 「進課農小抄文」은 『면양잡록』 제3책의 「進課農小抄文」과 같으며 한 글자만 차이가 난다.<sup>15)</sup>

다음으로 2종의 「限民名田議」가 있으며, 먼저 나오는 것을 ‘初草’, 뒤에 나오는 것을 ‘中草’라 한다.<sup>16)</sup> 「한민명전의」의 初草가 中草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었다.

11) “特硯田而筆耕已矣”가 “特研田而筆耕已矣”로, “民業首務”가 “民事首務”로 바뀌었다.

12) “今子以爲咄[音戢, 衆口貌]”가 “今子以爲咄[音戢]”로, “鬪[同雷]”가 “鬪[音雷, 只取象形.]”로, “此疇與彼疇相似也.”가 “故天下之疇相似也”로 바뀌었다.

13) 염정섭,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2012, 170~174면.

14) 「玄扈先生井田攷」은 徐光啓 『農政全書』 권4, 「田制·玄扈先生井田攷」의 일부이고, 「命使行購朱夫子書真本綸音」은 『弘齋全書』 권29, 綸音4, 「命使行購朱夫子書真本綸音」이다.

15) 제3책의 “毋敢一人或闕者”가 제4책에는 “無敢一人或闕者”로 되어 있다.

16) 「限民名田議」의 初草와 中草 사이에는 「答巡使書」, 「答巡使論賑政書」, 「答李仲存」 세 편의 글이 필사되어

첫째, 初草에는 다음 3건이 본문 위에 추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中草에는 이 기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 田既分六等, 則胡爲有第八第九之賦也. 此所未聞, 而田政之紊亂, 果皆此等之弊也.
2. 以百畝之制言之, 則一結二負, 似是已多.
3. 湖耕雖兩牛, 一日所辦 無內太多耶.

둘째, 初草와 中草를 비교하면 글자를 수정한 경우와 새 구절을 추가한 경우가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意者, 此其倣周官一易再易之法, → 此其爲一易再易之土 而 (중초, 박영철본)
2. 意者, 此其倣禹貢作賦之法, → 此其本郡作賦之法 (중초, 박영철본)
3. 盖戶非五口無以糞田力作, 不能力作無以相養以生, → 盖戶非五口, 則無以糞田力作, 不能力作, 則無以相養以生, (중초, 박영철본)
4. 則出稻七萬九千七百八十五石, → 則收稻七萬九千七百八十五石, (중초, 박영철본)
5. 又有風霜螟雹不虞之灾乎? → 又有風霜螟雹不虞之患乎? (중초, 박영철본)
6. 不可不先判農地 → 不可不先與農地 (중초) → 不可不先判農地 (박영철본)
7. 而譬如畫者, 丹青雖具, 摹畫雖工, 不有紙絹之質爲之本焉, 則毫墨無可施之地. → 譬如丹青雖具, 摹畫雖工, 不有紙絹之質爲之本焉, 則毫墨無可施之地. (중초, 박영철본)
8. 無地者, 非無田也, 田非公家之有. → 無可耕之地者, 非無田也, 私相販鬻而田非公家之有也. 『詩』云,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民, 莫非王臣’焉. 有王土而擅作己物, 使其率土之民, 不得人人而耕也. (중초, 박영철본)
9. 是故苟究作農之實, 則元籍之中, 半是無土之戶, 貧富之間, 率多遊閑之手, 此曷故焉. 有田者不自耕, 自耕者無其田, 此千古經邦志士之恨, 未嘗不先在於富豪兼并之家. 非苟疾其富豪也, 爲其賊道而有害於百王出治之本也. 如古之諸侯相侵奪以自廣者, 非能一朝行劫於弱國也, 莫不先假仁義, 馴致其道, 所謂稍蠶食之. 而彼弱國者, 始乃奔趨爭自割地獻城之不暇, 富豪兼并之術, 何以異此哉? → 故苟究作農之實, 則元籍之中, 太半是無土之戶, 貧富之間, 率多漫浪之民, 此曷故焉. 有田者不自耕, 自耕者無其田, 一境之內, 游手閑民, 又已過半矣. 此千古志士之恨, 未嘗不先在於富豪兼并之家. 非苟疾其豪富也, 爲其賊道而有害於百王出治之本也. 古之諸侯相侵吞以自廣者, 非亦安能一朝行劫於弱國也哉? 莫不先假仁義, 馴致其道, 所謂稍蠶食之. 而彼弱國者, 不能自立於其間, 始乃割地之不暇. 豪富兼并之術, 何以異此哉? (중초, 박영철본)
10. 故彼富室者, 亦非能勒買貧人之田 → 故彼富室者, 非能勒買貧人之田 (중초, 박영철본)
11. 不自覺其爲壑於富室而折納焉. 富室者, 莫不厚其價而益來之, 既有之矣, 仍使其爲吾之佃作, 而少慰其心. → 不自覺其爲壑於富室而爭自折納焉. 富室者, 莫不厚其價而益來之, 既

있다.

- 有之矣, 仍令佃作, 而少慰其心. (중초, 박영철본)
12. 又去其十之二三矣. 始知兼并之家, 未必專出於一郡一鄉之中矣. → 又去其十之三四矣. 益知兼并之家, 未必專出於一郡一鄉之中矣. 雖欲民之無艱鮮之患, 其可得乎? (중초, 박영철본)
13. 朝家蠲免之政, 欲其均惠澤, 多結者富室也而以爲常, 無土者窮民也而靡所沾, 惡在其均惠澤乎? 此無他, 民之占田無限而賣買由己, 是舉國而聽於兼并之家, 而郡縣徒擁量田之虛簿矣. 民安得不窮而國安得不貧哉? 一鄉之推而通邑可知, 一郡之推而天下國家可知. →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我私者, 民之所受於公, 而一井之內, 不相彼此, 先公而後私, 忠厚之至也. 朝家蠲免之恩, 本如時雨之普施也. 然而多結者富室也而以爲常, 無土者窮民也而靡所沾, 惡在其均惠澤乎? 此無他, 田制不均而大本不立. 民之占田無限而沽買自專, 是舉國而聽於兼并之家, 而郡縣徒擁量田之虛簿矣. 民安得不窮而國安得不貧哉? 一鄉之推而通邑可知, 一郡之推而天下可知. (중초, 박영철본)
14. 天下之百弊痼疾, 罔不在兵, 而有國之愛兵, 恒加於赤子之上, 亦其畏之也, 反有甚於毒蛇猛獸, 則傾天下之半以奉之. → 天下之百弊痼疾在兵, 而究其本, 則兵不寓農故耳. 然而而有國之愛兵, 恒加於赤子之上, 而亦其畏之也, 反有甚於毒蛇猛獸, 則傾天下之半以奉之. (중초, 박영철본)
15. 自漢至皇明之世, 上下數千季間, 非無願治之君, 石畫之臣, 而其日夜謨訃, 迄無善策者何也, 兵不寓農故耳. 然亦不能一日而忘兵也. 若此至於失地游閒之民, 置之度外, → 自漢至皇明之世, 上下數千年間, 非無願治之君, 石畫之臣, 而其日夜謨訃, 迄無善策, 然亦不能一日而忘兵也. 若此至於失土無賴之民, 置之度外, (중초, 박영철본)
16. 匹夫匹婦, 皆兼數人之食, 尙能折天下而通其半, 而況什百其倍者乎. 凡爲天下國家, 莫不有先後本末之序, → 匹夫匹婦, 皆兼兩孟, 則猶爲折天下一日之食而通其半, 而況什百其田者乎. 『詩』云, ‘邦畿千里, 維民所止.’ 是無一民非受田之家, 而皆能土著於所止之域, 莫相踰越也. 豈若後世朝東暮西, 常作浮戶, 豐年樂歲, 莫遏流民乎? 故凡爲天下國家, 莫不有先後本末之序, (중초, 박영철본)
17. 朱子何爲特書其須後遂寢之詔也? 其謂不果行者, 深罪當時之貴戚, 而爲天下惜之也. 由是觀之, 董生所謂‘井田猝難行’者, 且將預憂其貴戚之沮格耶. → 朱子何爲特書其不果行乎? 不果行者, 深罪當時之貴戚, 而爲天下惜之也. 由是觀之, 董生且將預憂其貴戚之沮格, 而以爲猝難行歟. (중초, 박영철본)

이를 보면 글자를 바꾸거나 가감한 경우(1, 2, 3, 4, 5, 6, 7, 10, 11), 구절을 운문한 경우(9, 14, 15, 17), 새 구절을 추가한 경우(8, 12, 13, 16)가 있다. 새 구절을 추가할 때는 특별히 『詩經』에서 토지 제도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였다(8, 13, 16). 이처럼 중초에서 수정된 사항은 박영철본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셋째, 中草의 끝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박지원은 백성의 농토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인별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토지는 친척, 鄉堂, 이웃 마을에 나눠주는 방법이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向臣所謂‘抑其次’者，此也。此非獨自古經邦之士，莫不以此爲生民之本，帝王之有爲者，亦未嘗無是志焉。但知之未深故好之未篤，好之未篤故講之無素，講之無素故節目難詳而思慮未周，驟聞其說，茫無涘岸。民情之怨歡相錯而繹騷預慮，國計之利害交亂而私意先占。由是而歷代之制，治而沿襲爲得，而有國之衆志，以雷同爲悅。所謂貴戚近習，何代無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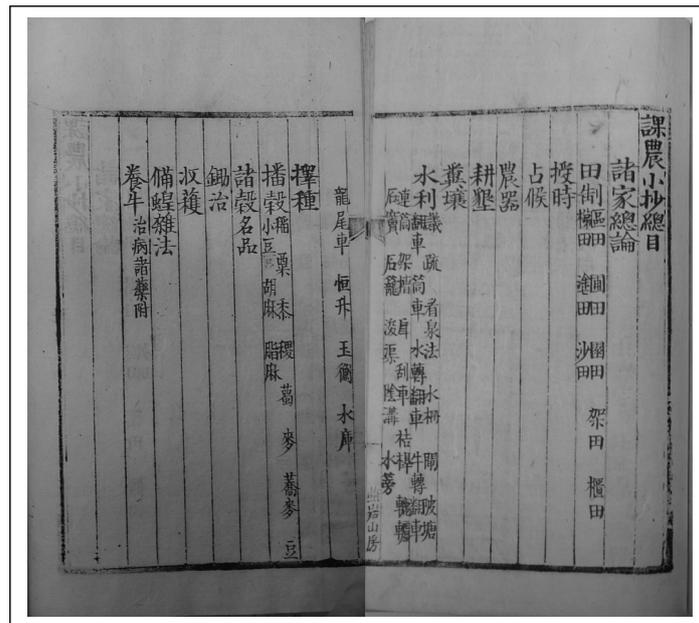
必當以王莽已試之事，有脅其君相者。此則史傳俱在，非可誣也。莽何曾實心行之乎？彼乃貴戚之雄而兼并之魁耳。始兼其四父之資而并其權，中兼阿衡冢宰而并其號，末乃兼天下之亂臣賊子而并其國，此之謂‘不奪不厭’也。雖時假先王，以文其奸言，然彼袒左爲劉之民，寧肯冒其田以大盜之姓耶。

橫渠張子，嘗慨然有志於井田，而猶嫌其亟奪富人，則不無曠世小子之惑。夫奪之爲言，非其有而劫取之謂也。夫帝王者，率土之主也。究其本則孰所有而孰能專之。苟無利民澤物之志則已，如有是志，均之云乎，何劫取之爲哉。

至於我東，偏在海隅，自是中土五服之外，則封疆數千里，初未嘗與於井地。而若爲一王之制，其精一平蕩之法，疆理均民之術，與古昔聖王，未始不同也。故曰，限田而後兼并者息，兼并者息然後產業均，產業均然後民皆土著，各耕其地而勤惰著矣。勤惰著而後，農可勸而民可訓矣。

夫然則，將以何術而能使豪右者，自捐其世傳富有之資，而不怨其有司乎？昔漢之封三庶孽，分天下半，而賈生固已痛哭流涕矣。今其限田，誠如主父偃推恩之策，令有餘者，分其親戚之不足者，親戚既盈其所定之限，又推而分之鄉黨隣里矣。有司則一定其所限而已，夫何與焉。如此則孝悌睦婣任恤之道，已行於一家一鄉之中矣。夫何怨咨警擾之有哉。雖不井其田於八域之內，不遠乎古昔聖王之意，而有以足法於天下也。

다음으로 「課農小抄總目」이 있다. 이를 보면 『과농소초』의 전체적인 체제는 『면양잡록』 제4책에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다. 총목에서 제시한 항목이 최종본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다



[사진 1] 『면양잡록』 제4책의 「과농소초총목」

만 목차의 순서에 차이가 보인다. 『면양잡록』에서 「田制」, 「授時」, 「占候」의 순서가 뒤에 「授時」, 「占候」, 「田制」의 순서로 바뀌었고, 「鋤治」와 「備蝗雜法」이 별개 항목이던 것이 「備蝗雜法」이 「鋤治」의 부록으로 들어갔다.

총목에는 田制, 水利, 播穀의 세부 항목도 나타난다. 이를 박영철본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田制」

면양잡록 : 區田, 圃田, 園田, 架田, 櫃田, 梯田, 塗田, 沙田

박영철본 : 區田, 圃田, 園田, 架田, 櫃田, 梯田, 塗田, 沙田

「水利」

면양잡록 : 議, 疏, 看泉法, 水柵, 閘, 陂塘, 翻車, 筒車, 水轉翻車, 牛轉翻車, 連筒, 架槽, 戽, 刮車, 桔槔, 轆轤, 石竇, 石籠, 浚渠, 陰溝, 水笏, 龍尾車, 恒升, 玉衡, 水庫

박영철본 : 山鄉水利議, 旱田用水疏, 看泉法, 水柵, 水閘, 陂塘, 翻車, 筒車, 水轉翻車, 牛轉翻車, 驢轉筒車, 高轉筒車, 水轉筒車, 連筒, 架槽, 戽斗, 刮車, 桔槔, 轆轤, 瓦竇, 石籠, 浚渠, 陰溝, 水笏, 龍尾, 玉衡, 恒升, 水庫

「播穀」

면양잡록 : 稻, 粟, 黍, 稷, 藟, 麥, 蕎麥, 豆, 小豆, 胡麻, 脂麻

박영철본 : 稻(早稻 晚稻 旱稻 乾播 苗種 乾秧 反種 火耨), 粟, 麥, 蕎麥, 豆(小豆 菘豆 豌豆 扁豆), 胡麻(葉名青囊)

이를 보면 세부 항목에서 빠지거나 추가된 것이 있다. 「田制」의 세부 항목은 같고, 「水利」의 세부 항목은 石竇가 빠지고 驢轉筒車, 高轉筒車, 水轉筒車, 瓦竇가 추가되었다. 「播穀」의 세부 항목은 黍, 稷, 藟, 脂麻가 빠지고 小斗는 豆에 포함되었다. 이는 『과농소초』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세부 항목의 조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 『과농소초』 본문이 나온다. 제목에는 “課農小抄卷之”라 표시하여 卷次가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줄에 “河川郡守臣朴趾源 編輯”이라 기록하였다. 그리고 「諸家總論」, 「占候」, 「農器」의 본문을 권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諸家總論」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管子』曰: “野與市爭”

『商子』曰: “金生而粟”

臣趾源曰: “古人言: ‘民可百年無貨, 不可一朝有饑.’ 夫人之所以不饑不寒者, 財也, 五穀布帛是也. 饑不可食, 寒不可衣者, 貨也, 珠玉金錢是也. 貨者, 所以與財爲輕重之權, 而非所以生財也. 故一家藏之, 可以自豪於平世, 而一遇水旱兵荒, 則其不盡歸於任氏之窖者鮮矣. 然而人知有貨之

可以不饑，而不知徒貨之不足恃也。家猶如此，而況國乎？管·商是佐霸之才，而其能明於本末輕重之辨如此，是豈可以功利之說而忽之哉？”

이 부분의 최종본은 다음과 같다.

『管子』曰：“野與市爭民，金與粟爭貴。”又曰：“民無所遊食，必農。民事農則田墾，田墾則粟多，粟多則國富。”

『商子』曰：“金生而粟死，粟生而金死。金一兩生於境內，粟十二石死於境外；粟十二石生於境內，金一兩死於境外。好生金於境內，則金粟兩死，倉府兩虛，國弱；好生粟於境內，則金粟兩生，倉府兩盈，國強。”

臣趾源曰：“古人言：‘民可百年無貨，不可一朝有饑。’夫人之所以不饑不寒者，財也，五穀布帛是也。饑不可食，寒不可衣者，貨也，珠玉金錢是也。貨者，所以與財為輕重之權，而非所以生財也。故一家藏之，可以自豪於平世，而一遇水旱兵荒，則其不盡歸於任氏之窖者鮮矣。然而人知有貨之可以不饑，而不知徒貨之不足恃也。家猶如此，而況國乎？管·商是佐霸之才，而其能明於本末輕重之辨如此，是豈可以功利之說而忽之哉？”

이를 보면 『면양잡록』에서는 인용할 책의 첫 부분 몇 글자만 간략하게 표시하고, 박지원의 按說을 충실히 기록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諸家總論」, 「占候」의 본문을 검토하면, 인용문의 순서와 박지원의 안설은 최종본과 같다.

다만 「農器」의 본문에 변화가 있다. 「農器」에서 耒耜, 犁, 耨, 耨車, 瓠種, 礪磳, 礪磳, 撻, 砵車, 鐵刀杵, 鐵搭, 秧馬, 耨, 耨鋤, 耨鋤, 鎌, 鏟(鬮), 連枷, 碓, 礮磨, 輾, 海青輾, 連磨, 礮, 颶扇의 순서로 정리한 것은 같다. 그러나 박영철본에서 礪磳에 관한 내용은 “又作礪磳. 與礪磳之制同. 但外有列齒, 獨不於水田, 破塊滓, 溷泥塗.”이 추가되었다.

박지원의 안설에도 변화가 있다. 耒耜, 秧馬, 連枷, 颶扇의 안설에서 몇 글자를 수정하는 경우(2)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1, 3, 4)가 있다.

1. [臣]趾源曰：“耒耜，神農氏之遺制也，其田器之鼻祖乎。直句磬折，應於三地，尺寸脩廣，皆有意義。制之不如其度者，非耒耜也。孔子曰：‘觚不觚，觚哉觚哉？’推發之利，雖不及牛犁，貧無牛畜者，尚可用之。”(『면양잡록』耒耜) → 臣趾源曰：“耒耜，神農氏之遺制也，其田器之鼻祖乎。直句磬折弓彎，應於三地，尺寸脩廣，皆有意義，制之不如其度者，非耒耜也。臣嘗出長城外，時方仲秋初旬，見塞上耕者，或驢或騾，耒耜皆體纖。又有對立兩架於田首支木，以防其內顛，貫索架腰而循環如轆轤以輓耒。耒挾雙輪而一人扶耒而後驅，兩人插杙於軸以籠索，如船頭收碇。不徐不疾，耒耜自進細陸，如從繩推墮之利。更勝於牛，既夕而放牛數千頭，闐溢街巷，各識其家而入戶不下十頭，則蓋亦非無牛而代耕也。”(박영철본)

2. [臣]趾源曰：“秧馬，水田移秧之器也。其形如梭，貯秧其中，跨踞如鞍股，挾臀推則泥水油滑，

其進如船。其曰‘日行千畦’，則比之帶秧磬腰，偃僂而種，其勞佚不啻倍蓰。[臣]曩於燕行 數千里間無水田。故未見其器，然嘗憧憧于中也。其騎坐運行之法，似當有機括，如篙師之刺船，然難可臆解也。後見東坡「秧馬歌」，略論其槩，如或倣而用之，果能雀躍泥中，一日千畦乎？其詞曰：‘春雲濛濛雨淒淒，春秧欲老翠剡齊。嗟我婦子行水泥，朝分一壠暮千畦。我有桐馬手自提，頭尾軒昂腹脇低。以我兩足爲四蹄，聳踊滑汰如鳧鷖。歸來掛壁從高棲，了無蒨秣飢不啼。’錢塘人畫示桌面，其形又似船也。”(『면양잡록』秧馬) → 臣趾源曰：“秧馬，水田移秧之器也。其形如梭，貯秧其中，跨踞如鞍股，挾臂推則泥水油滑，其進如船。其曰‘日行千畦’，則比之帶秧磬腰，偃僂而種，其勞佚不啻倍蓰。臣曩於燕行，數千里間無水田。故未見其器，然常憧憧于中也。其騎坐運行之法，似當有機括，如篙師之刺船，然難可臆解也。後見東坡「秧馬歌」，略論其概。如或倣而用之，果能雀躍泥中，一日千畦乎？其詞曰：‘春雲濛濛雨淒淒，春秧欲老翠剡齊。嗟我婦子行水泥，朝分一壠暮千畦。我有桐馬手自提，頭尾軒昂腹脇低。以我兩足爲四蹄，聳踊滑汰如鳧鷖。歸來掛壁從高棲，了無蒨秣飢不啼。’錢塘人有畫示桌面者，其形蓋似船也。”(박영철본)

3. [臣]趾源曰。“我國亦有連枷，其制大略相似。但柄頭之槌，只用兩條木，又不以生革編之。故搗穗之功，固不如也。”(『면양잡록』連枷) → 臣趾源曰，“我國亦有連枷，其制大略相似。但柄頭之槌，只用兩條木，又不以生革編之，故搗穗之功，固不如也。世傳牧隱李穡之入元也，科試以孤竹君之二子命題，莫解其義，有一人屬草稿曰：‘瞻之在前，忽焉在後。’穡始解枷柄爲竹，而二子即枷頭兩條木也。遂高詠云云，‘若先占者中國人，乃改爲從天降乎？從地出乎？’此說近『齊東野語』，而古時中土連枷，想是兩條，亦不編革，似我東鞭枷之制歟。”(박영철본)

4. [臣]趾源曰。“中土人又呼風櫃子，家家有之。我國本無此器，凡簸穀只用箕。如欲打穀揚稭，則但用小席。一人足踏其半，手執兩端而立，兩手相拍，如鷄鼓翼。一人盛穀於箕，垂注席邊。如此而風安得猛，而盡揚其塵稭稗乎？又盡日搗拍，已弊破不用，不得不將莞沈溪，夜縮繩，終晝織席，已虛度三再日矣。又其鼓席，非健夫熟手，不能。故十家一村，才有二三人，其雇賃酒飯必倍焉，爲農家病之者久矣。[臣]待罪嶺邑時，爲造颺扇。一稚僮倚櫃踏括，微躡其足，則百斛之穀，一朝能簸也。然而竟無效造者，佃夫故喜麤穀，而不樂其精，恐田主之無所隱蔽而責其常數也。又恐納糴之難容麤稭，而責其精實也。此，非獨鄉曲匠手之難得，而工費之未可容易也。”(『면양잡록』颺扇) → 臣趾源曰：“中土又號颺扇，爲風櫃子，家家有之。我國本無此器，凡簸穀只用箕。如打穀揚稭，則但用小席，一人足踏其半，手執兩端而立，兩手相拍，如鷄鼓翼，一人盛穀於器，垂注席邊。如此而風安得猛而盡颺其麤稭稗乎？又盡日扇拍，席已弊破，臂力亦罷矣。不得不將莞沈溪，夜縮繩，終晝盡夜織席，已虛度三再日矣。又其鼓席，非健夫熟手，則不能也。故十家一村，裁有二三人。其雇賃酒飯必倍焉，爲農家病之者久矣。臣待罪嶺邑時，倣造其制，一稚僮倚櫃踏括，微躡其足，則百斛之穀，一朝盡簸。然而竟無效造者，蓋佃夫故喜麤穀，而不樂其精，恐田主之無所隱蔽而責其常數也，又恐納糴之難容稭稗，而責其精實也。此非獨下鄉匠手之難得，而工費之難辦也。”臣謹按：古語曰：“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器械不利而能善其事者，未之有也。上古聖人作爲耒耜，教民稼穡，創物之初，未必能便盡便巧。故後人爲之損益潤色焉。民俗之所習用，隨方不同。故古人又爲之參証而取其長，令天下之人，通用而互利焉。此耒耜之經，農器之譜，所以作也。此其意於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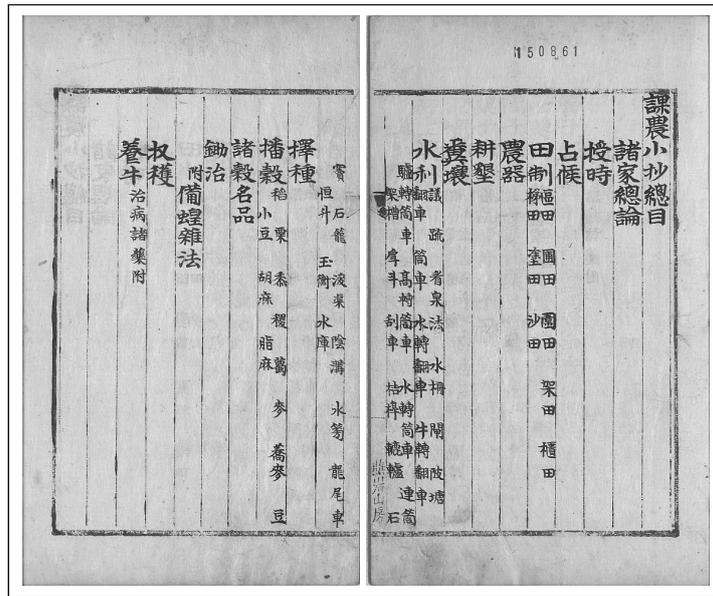
民之事，靡所不用其極也。我國之農器，與中國之農器，其同異得失，未如果何如也。其始果出於東國之神農歟？抑亦學之於中土歟？數千年來，猶能辟土而食粟，則如斯，亦云可矣。然中世以來，疆域有限，利用不通，則安知今日中國之所用，其便利更有倍勝於此者乎？故如欲利其器械，則莫如學中國，學中國者，學古聖人之法也。將謂今日之中國，非古之中國而恥學焉，則是竝與古聖人之法而賤棄之也。『周禮·考工』曰：‘粵無鎛，粵之無鎛也，非無鎛也，夫人而能爲鎛也。’鎛果善也，雖粵人學之可也。如恥其粵而不學，則是真無鎛也。昔者，趙過爲搜粟都尉，教田於太常三輔大農，置工巧奴與從事，作爲田器。二千石遣令丞三老力田及里父老善田者，受田器學耕稼養苗狀。誠因使者之行，購得中國之農器，如果勝也，使如趙過者，依式鍛造，廣頒八路，亦善其事之道也。趙過之於農，可謂能矣。然其時平都令光，教過以人輓犁。令民無牛者，得以趨澤，過善其法。奏光爲丞，夫能虛心取人如此，嗚呼！此其所以益專其能也歟？’ (박영철본)

이를 보면 박지원은 『면양잡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과농소초』의 체제와 순서를 어느 정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글인 「篇題」, 「進課農小抄文」, 按說은 계속 수정하고 있었다.

#### 4. 『課農小抄』(15권 3책)

『과농소초』(15권 3책)은 박지원의 손자인 溫齋 朴瑄壽(1823~1899)의 집에서 나온 필사본이다.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도서 번호는 온재古 9100-10이다. 판심 하단에 ‘燕巖山房’이라 새겨진 박지원 家藏本이며, 책의 크기는 23.2×15.2cm이다. 이 필사본은 擡頭法과 格子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정성을 들여 필사한 것으로 보아 정조에게 올린 『과농소초』와 같은 형태로 판단된다. 본문의 필체는 다양하게 나타나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3책의 卷首에는 책별 目錄이 있다. 그런데 3책의 목록이 “課農小抄目錄” “課農小抄卷之二” “課農小抄卷之三”으로 표현되고, 제1책의 “課農小抄目錄”에서 「編題」와 「進課農小抄文」이 빠져 있어 편집 체제가 마무리되지 않는 듯하다. 또 각 권의 처음에 “課農小抄, 沔川郡守臣朴趾源 編輯”이라 기록하여 권을 구분하였으나 卷次는 기록되지 않았다. 권을 구분한 곳에 권차를 부여하면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책 卷首에 「編題」, 「進課農小抄文」, 「總目」이 있고, 권1에 「諸家總論」, 권2에 「授時」, 권3에 「占候」, 권4에 「田制」가 있다. 제2책 권5에 「農器」, 권6에 「耕墾」, 권7에 「糞壤」, 권8에 「水利」가 있다. 제3책 권9에 「擇種」, 권10에 「播穀」, 권11에 「諸穀名品」, 권12에 「鋤治[備蝗雜法]」, 권13에 「收穫」, 권14에 「養牛[治病諸藥]」와 「限民名田議」이 있다. 마지막의 「養牛」와 「限民名田議」는 권을 구분하지 않고, 「한민명전의」가 시작되는 곳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써 두었다.



[사진 2] 『과농소초』(15권 3책)의 「과농소초총목」

이 필사본의 안설을 『면양잡록』 제4책의 안설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다. 앞서 耒耜, 秧馬, 連枷, 颶扇의 안설이 박영철본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필사본에 수록된 안설의 해당 부분은 박영철본과 같다. 이는 『면양잡록』 제4책의 『과농소초』가 작성되는 단계에서 이 필사본이 작성되는 단계로 오면서 박지원의 안설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 필사본의 본문과 박영철본을 비교하면, 인용문의 배치 순서와 내용이 같다. 다만 박지원이 작성한 「進課農小抄文」과 按說에는 글자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구절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特硯田而筆耕已矣(「進課農小抄文」) → 特研田而筆耕已矣(박영철본)
2. 而不能少展爲終歲之憂(「授時」按說) → 而不能少展其終歲之憂(박영철본)
3. 『詩』曰“月離于畢，雨霧沱矣”. 又曰“有豕白蹄”，曰“鶴鳴于埗”(「占候」按說) → 『詩』曰“有滄萋萋”，曰“出日杲杲<sup>17)</sup>”，曰“有豕白蹄”，曰“鶴鳴于埗”，曰“月離于畢，雨霧沱矣”. (박영철본)
4. 清溪·冠岳諸山，近在江外.(「田制」按說) → 清溪·冠岳諸山，近在京江外.(박영철본)
5. 今子以爲雷[音戢，衆口貌.]雷[音雷]者何也?(「田制」按說) → 今子以爲雷[音戢]雷[音雷]，只取象形.]者何也?(박영철본)
6. 如船頭收碇. 不徐不疾，耒耜自進細陸，如從繩推墮之利. … 戶不下數十頭，(「農器」按說) → 如船頭收碇. 不徐不疾，耒耜自進細陸，如從繩推墮之利. … 戶不下十頭，(박영철본)
7. 俗習好用(「農器」按說) → 習俗好用(박영철본)
8. 作畦種苗，其直如弦.(「農器」按說) → 作畦種苗，其直如絃.(박영철본)

17) 出日杲杲：『詩經·衛風·伯兮』에는 “杲杲出日”이다.

9. 金麗刀, 形如牛犁, (「農器」按說) → 麗刀, 形如牛犁, (박영철본)
10. 一人盛穀於箕 (「農器」按說) → 一人盛穀於器 (박영철본)
11. 然而『孟子』曰‘今夫水激而揚之, 可使在山’, 其所以‘激而揚之’, 當有其具意者 (「水利」按說) → 然而『孟子』曰‘今夫水激而行之, 可使在山’, 其所以‘激而行之’, 當有其具意者. (박영철본)
12. 聖人於利用厚生之道, 唯恐其巧之未盡也. (「水利」按說) → 聖人之利用厚生之道, 唯恐其巧之未盡也. (박영철본)
13. 又沙水渾入, 窒其螺孔, 斷不可用也. (「水利」按說) → 又沙水渾入, 窒其螺道, 斷不可用也. (박영철본)

마지막에 있는 「限民名田議」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면양잡록』 제4책의 中草와 이 필사본을 비교하면, 추가된 문장이나 문장의 위치가 달라진 곳이 많다. 이는 박지원이 증초를 작성한 이후 이 필사본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수정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크게 변화한 부분만 소개한다.

먼저 박지원은 豪富가 토지를 兼并하는 방법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彼豪富兼并者, 亦非能勒賣貧人之田而一朝盡有之也. 自藉其富强之資, 安坐而無爲, 則四隣之願鬻者, 自持其券而日朝於富室之門矣. 何則? 夫人衣食之外, 既不無吉凶大事焉, 或迫於債督, 或牟利逋欠. 窘渴逼塞, 無處著手, 則如干農地有之, 無足以繼富, 無之亦未必加貧於此. 遂乃不覺其以彼富室爲逋藪淵叢, 而爭自折納焉. 彼富室者, 勉強厚其價而益來之, 既有之矣, 仍令佃作而姑慰其心. 貧戶則既利其一時之厚價, 又德舊土之猶食其半. 由是而土價日增, 而附近之寸畦尺塍, 盡歸富室矣. 誠以法制不立, 故是學國而聽於兼并之家, 而郡邑徒擁量田之虛簿矣. 然兼并者, 亦豈苟欲厲貧民而賊治道耶?

다음으로 漢, 隋, 唐에서 限田을 시행한 역사를 개관하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중에서 증초에 나온 구절은 “董生言於武帝曰, ‘井田雖難猝行, 宜少近古, 限民名田.’” 뿐이었다.

漢之極盛, 定墾田八百二十七萬五千三百三十六頃. 據元始二年, 戶千二百二十三萬三千, 則每戶合得田六十七畝四十二步有奇. 可謂人多地少, 至不敷矣. 然董生言於武帝曰, ‘井田雖難猝行, 宜少近古, 限民名田.’ 建平初, 史丹又建議限田, 孔光何武, 覆其議, 請令諸王侯公主及吏民名田, 皆無過三十頃, 期盡三年, 犯者沒入官. 是必以當時之田, 與民較絜而得其分也, 非苟厚王公而薄於齊民也.

隋開皇中, 墾田千九百四十萬四千二百六十七頃, 戶總八百九十萬七千五百三十六, 每戶合得田二頃餘. 然而史稱文帝發使四出, 均天下田. 其狹鄉, 每丁纔至二十畝, 老少又少焉, 此何故也. 是必豪富占田不以實, 而吏法有所擁蔽也.

至唐天寶中, 以戶計田, 合得一頃六十餘畝. 而武德定制, ‘凡天下丁男給田一頃, 廢疾寡妻, 口分有差.’ 其所爲鉅室防閑無過. 則未聞其有定數也.

大抵歷世以來，從未有人多地少之患，而惟患法制未盡與法不必行也。夫三十頃之限，可謂已厚矣，年之期，可謂不迫矣。然而丁傅董賢輩，猶以爲不便，則貴戚近習，何代無之，蹊壑之欲，亦何厭之有哉。

「限民名田議」의 결론도 새로 작성하였다. 이 중 중초에 나온 구절은 “一王之制，則其精一平蕩之法，疆理均民之術，與古昔聖王，未始不同也。故曰限田而後，兼并者息；兼并者息，然後產業均；產業均，然後民皆土着，各耕其地而勤惰著矣。勤惰著而後，農可勸而民可訓矣。”이었다.

以今之事勢言之，則所謂豪富兼并，其傑然可畏而不可制者，亦豈有其人哉？以臣犬馬之齒，亦嘗觀人數世矣。其能保守父祖之田業而不賣與人者，十居其五。其歲歲割土者，十常七八。則其畜贏餘以益占者，數可知矣。誠立爲限制曰：“自某年某月以後，多此限者，無得有加。其在令前者，雖連阡跨陌不問也。其子孫有支庶而分之者聽，其或隱不以實及令後加占過限者，民發之與民，官發之沒官。”如此，不數十年而國中之田可均。此蘇老泉所謂“端坐於朝廷，下令於天下。不驚民，不動衆，不用井田之制，而獲井田之利。雖周之井田，無以遠過於此”者，誠篤論也。

噫！天下之百弊痼疾在於兵，而究其本，則兵不寓農故耳。然而有國之愛兵，恒加於赤子之上，而亦其畏之也，反有甚於毒虺猛獸，則傾天下之半以奉之。自漢至皇明之世，上下數千年間，非無願治之君，石畫之臣，而其日夜謨訐，迄無善策。然亦不能一日而忘兵也。若此至於失土無賴之民，寘之度外，漠然若忘者，何也？蓋其身離壘畝類，非一朝一夕之故，而無簿籍錄其數，所以浸浸然半天下，而又不覺若是其多也。勒此民，將安所歸乎？何以知其半天下也，此易知耳。

漢之黃巾，赤眉，唐之龐勛，黃巢，使其徒，果皆土着專業之民，則亦惡能一朝嘯聚其百萬之衆耶？故兼并之害，不必在大。匹夫匹婦，能兼兩孟，則猶爲折天下一日之食而通其半，而況什百其田者乎？故自秦漢以來，百世無善治者，豈有他哉？大本既壞，而使民志不定，莫不出於僥倖之途。上之所以出治者，日不暇給，而卒未免因循姑息之歸。下之所以承令者，朝不慮夕，而亦不過苟且彌縫而止。此固天下之通患，而歷代之得失可知矣。然則貴戚、近習，不須深罪，豪富兼并，不可痛惡，而惟在求治之志，制治之本，立不立如何耳。於皇我東，提封數千里，初未嘗與於井地區畫之中，而亦不被阡陌毀開之烈。幸值大有之世，自爲一王之制，則其精一平蕩之法，疆理均民之術，與古昔聖王，未始不同也。故曰限田而後，兼并者息；兼并者息，然後產業均，產業均，然後民皆土着，各耕其地而勤惰著矣。勤惰著而後，農可勸而民可訓矣。臣於農務之策，不當更贅他說，而譬如畫者，丹青雖具，摹畫雖工，不有紙絹之質爲之本焉，則毫墨無可施之地。故不避僭越，敢爲之說焉。

이 필사본과 박영철본의 「限民名田議」를 비교하면, 박영철본의 첫 부분에 나오는 “臣趾源誠惶誠恐因進農書而獻議曰”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하의 글자의 수정만 있고 내용은 같다.

而附近之寸哇尺田，盡歸富室矣。(『과농소초』 「限民名田議」) → 而附近之寸哇尺墜，盡歸富室矣。(박영철본)

而況什伯其田者乎？(『과농소초』 「限民名田議」) → 而況什百其田者乎？(박영철본)

이를 보면 필사본 『課農小抄』(15권 3책)이 작성된 단계에서 『과농소초』의 편찬은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課農小抄』(『燕巖集』 권7)

『課農小抄』 1책(64장)은 박선수의 집에서 나온 필사본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도서 번호는 온재古 3648 25-455이다. 『연암집』을 편집하는 단계에서 작성한 필사본으로, 표지가 없고 판심의 기록도 없다. 책의 크기는 31.0×19.3cm이다. 본문은 “燕巖集卷第七 / 潘南朴趾源美仲 / 奏議”라고 쓰고, 「進課農小抄文」으로 시작한다. 「課農小抄按說」이란 제목 아래에 細註로 “原書別行, 而只載按說. 男宗采謹編.”이란 기록이 있어, 이 필사본을 편집한 사람은 박지원의 아들인 朴宗采로 판단된다.<sup>18)</sup>

『연암집』 권7에 『과농소초』를 편집한 필사본에 대해서는 『燕巖集目錄』이 참고가 된다. 『燕巖集目錄』 1책(16장)도 박선수의 집에서 나온 필사본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9)</sup> 이를 보면 『연암집』은 28권 12책으로 편집되었고, 外集에 『열하일기』 15권과 雜文, 遺文이 있었다.<sup>20)</sup> 『과농소초』는 제3책 권7의 狀奏에 포함되었고, 「進課農小抄文」, 「課農小抄篇題」, 「課農小抄按說」, 「限民名田議」의 순서로 편집되었다. 그리고 「課農小抄按說」에서는 항목별로 按說의 숫자를 ○則이라 표시하였다.<sup>21)</sup> ○則의 숫자는 『課農小抄』(『燕巖集』 권7)와 일치한다.

『課農小抄』(『燕巖集』 권7)는 「進課農小抄文」, 「課農小抄篇題」, 「限民名田議」와 『과농소초』에 있던 박지원의 按說만 간추려 편집한 것이다.<sup>22)</sup> 이 중 「課農小抄篇題」에는 원래 정조의 어제 운음(御製勸農政求農書繪音)을 베낀 후 자신의 글을 썼는데, 이 필사본에서는 정조의 운음을 삭제하고 박지원의 글만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 필사본에 수록된 글은 박지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

18) 『課農小抄』(『燕巖集』 권7)에서는 按說의 처음을 “臣某”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후대에 “臣趾源曰”로 바뀌었다. “臣某”라는 표현은 박종채의 견해였다(『課農小抄』, 「諸家總論按說五則」, “宗采按「昌黎集」狀奏, 編書者方便稱臣某, 今此鈔載之文, 謹行其例.”).

19) 도서 번호는 온재古 3648 25~452이다. 김명호, 「온재문고 소장 『열하일기』와 연암의 여타 저작들」, 18~21면.

20) 『연암집』 28권 12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책은 권1 詩, 권2 論, 권3 序, 권4 記, 제2책은 권5 記, 권6 書 尺牘, 제3책은 권7 狀奏 疏狀, 제4책은 권8 碑誌, 권9 狀 傳, 권10 祭文 哀辭 致祭文 進香文, 제5책은 권11 題跋 書事, 권12(外集) 雜著 日記鈔編上, 권13(外集) 雜著 日記鈔編下, 제6책은 권14(外集) 雜著 皇圖紀略, 권15(外集) 雜著 謁聖退述, 권16(外集) 雜著 蝨葉記, 제7책은 권17(外集) 雜著 傾蓋錄, 권18(外集) 雜著 忘羊錄, 제8책은 권19(外集) 雜著 鵠汀筆談, 권20(外集) 雜著 審勢編, 제9책은 권21(外集) 雜著 扎什倫布記 黃教問答 班禪始末, 권22(外集) 雜著 行在雜錄, 제10책은 권23(外集) 雜著 幻戲記 山莊雜記, 권24(外集) 雜著 避暑錄, 제11책은 권25(外集) 雜著 口外異聞, 권26(外集) 雜著 銅蘭涉筆, 제12책은 권27(外集) 雜文, 권28(外集) 遺文이다.

21) 구체적으로는 “諸家總論五則, 授時一則, 占候一則, 田制二則, 農器二十一則, 耕墾一則, 糞壤一則, 水利八則, 擇種三則, 播穀一則, 諸穀名品一則, 鋤治一則, 備蝗一則, 收穫一則, 養牛一則”이라 기록하였다.

22) 『燕巖集』 권7은 奏議에 『課農小抄』에 있는 박지원의 글을 편집하고, 疏狀에 「代忠清監司辨謗疏」를 편집하였다.

며, 『연암집』을 편집하는 단계에서 『과농소초』에 있는 박지원의 글만 간추려 필사하였다.

『課農小抄』(15권 3책) 필사본과 『課農小抄』(『燕巖集』 권7) 필사본은 같은 계열의 필사본으로 보인다. 앞서 『課農小抄』(15권 3책) 필사본과 박영철본을 비교하면서 글자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구절이 13건이 있음을 밝혔다. 같은 방법으로 『課農小抄』(『燕巖集』 권7) 필사본과 박영철본을 비교하면 13건 가운데 11건의 내용이 일치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特硯田而筆耕已矣(「進課農小抄文」) → 特研田而筆耕已矣(박영철본)
2. 而不能少展爲終歲之憂(「授時」按說) → 而不能少展其終歲之憂(박영철본)
4. 清溪·冠岳諸山, 近在江外.(「田制」按說) → 清溪·冠岳諸山, 近在京江外.(박영철본)
6. 如船頭收碇. 不徐不疾, 耒耜自進細陸, 如從繩推墘之利. … 戶不下數十頭,(「農器」按說)  
→ 如船頭收碇. 不徐不疾, 耒耜自進細陸, 如從繩推墘之利. … 戶不下十頭,(박영철본)
7. 俗習好用(「農器」按說) → 習俗好用(박영철본)
8. 作耨種苗, 其直如弦.(「農器」按說) → 作耨種苗, 其直如絃.(박영철본)
9. 金麗刀, 形如牛犁,(「農器」按說) → 劊刀, 形如牛犁,(박영철본)
10. 一人盛穀於箕(「農器」按說) → 一人盛穀於器(박영철본)
11. 然而『孟子』曰‘今夫水激而揚之, 可使在山’, 其所以‘激而揚之’, 當有其具意者(「水利」按說) → 然而『孟子』曰‘今夫水激而行之, 可使在山’, 其所以‘激而行之’, 當有其具意者.(박영철본)
12. 聖人於利用厚生之道, 唯恐其巧之未盡也.(「水利」按說) → 聖人之利用厚生之道, 唯恐其巧之未盡也.(박영철본)
13. 又沙水渾入, 窒其螺孔, 斷不可用也.(「水利」按說) → 又沙水渾入, 窒其螺道, 斷不可用也.(박영철본)

다음은 『課農小抄』(15권 3책)와 『課農小抄』(『燕巖集』 권7)가 같은 계열의 필사본임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첫 번째의 경우 『과농소초』(15권 3책) 필사본에서 작은 글자로 추가한 구절이 『과농소초』(『燕巖集』 권7) 필사본에 같은 방식으로 추가되고(1-1, 1-2), 박영철본에서 본문에 반영되었다(1-3). 두 번째의 경우 『과농소초』(15권 3책)와 『과농소초』(『燕巖集』 권7) 필사본에서 2개의 按說이 하나의 안설로 합쳐져 있었으나(2-1, 2-1), 박영철본에서 이를 구분하여 「養牛」의 제일 앞과 제일 뒤에 편집하였다(2-3).

#### 1. 「糞壤」按說

1-1. 臣謹按: 字書, 糞字從采從華[音畢]. 采獸掌爪華拚除器也, 謂拚除之餘, 皆可掌帚而壅田也. 故曰“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 以箕自向而扱之”, 此掃除之容也. 『荀子』曰: “堂上不糞, 郊草不贍, 曠其耘[籽].” 由是觀之, (『課農小抄』(15권 3책))

1-2. 臣謹按, 字書, 糞字從采[音辨]從華[音畢]. 采獸掌爪華拚除器也, 謂拚除之餘, 皆可掌帚而壅田也. 故曰“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 以箕自向而扱之”, 此掃除之容也. 『荀子』曰: “堂上不糞, 郊草不贍, 曠其耘[籽].” 由是觀之, (『課農小抄』(『燕巖集』 권7))

1-3. 臣謹按: 字書, 糞字從采從華[音畢]. 采獸掌爪華拚除器也, 謂拚除之餘, 皆可掌芻而壅田也. 故曰“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 以箕自向而扱之”, 此掃除之容也. 『荀子』曰: “堂上不糞, 郊草不瞻, 曠其耘耔.” 由是觀之, (박영철본)

2. 「養牛」按說

2-1. 臣趾源曰: “牧養之方, 六畜五字備矣. 而稼穡之用牛, 如兵家之有馬, 不可分二. 故今特以養牛一方, 編于稼穡之末云爾. 臣謹稽: 牛耕之法, 始於趙過. … (『課農小抄』(15권 3책))

2-2. 臣趾源曰: “牧養之方, 六畜五字備矣. 而稼穡之用牛, 如兵家之有馬, 不可分二. 故今特以養牛一方, 編于稼穡之末云爾. 臣謹稽: 牛耕之法, 始於趙過. … (『課農小抄』(『燕巖集』 권7))

2-3. 臣趾源曰: “牧養之方, 六畜五字備矣. 而稼穡之用牛, 如兵家之有馬, 不可分二. 故今特以養牛一方, 編于稼穡之末云爾. (박영철본)

『과농소초』(15권 3책)와 『과농소초』(『연암집』 권7)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다음은 『과농소초』(15권 3책), 『과농소초』(『연암집』 권7), 박영철본의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이를 보면 『과농소초』(15권 3책)와 박영철본이 일치하고 『과농소초』(『연암집』 권7)가 다른 경우(1, 4)와 『과농소초』(『연암집』 권7)와 박영철본이 일치하고 『과농소초』(15권 3책)가 다른 경우(2, 3)가 있다.

1. 「進課農小抄文」

種於庭中, 以待其方包也. → 種於庭中, 以待其方苞也. → 種於庭中, 以待其方包也.

2. 「田制」按說

今子以爲雷[音戢, 衆口貌.]雷[音雷]者何也? → 今子以爲雷[音戢]雷[音雷, 只取象形.]者何也?  
→ 今子以爲雷[音戢]雷[音雷, 只取象形.]者何也?

3. 「占候」按說

『詩』曰“月離于畢, 雨霧沓矣”. 又曰“有豕白蹄”, 曰“鶴鳴于埵” → 『詩』曰“有滄萋萋”, 曰“杲杲出日”, 曰“有豕白蹄”, 曰“鶴鳴于埵”, 曰“月離于畢, 俾霧沓矣”. → 『詩』曰“有滄萋萋”, 曰“出日杲杲<sup>23)</sup>”, 曰“有豕白蹄”, 曰“鶴鳴于埵”, 曰“月離于畢, 雨霧沓矣”.

4. 「收穫」按說

驢[負]駝載者, 乃用布囊. → 驢駝載者, 乃用布囊. → 驢負駝載者, 乃用布囊.

이를 종합하면 『課農小抄』(15권 3책)와 『課農小抄』(『燕巖集』 권7)는 같은 계열의 필사본이고, 두 필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課農小抄』(『燕巖集』 권7)에서 수정된 내용이

23) 出日杲杲: 『詩經·衛風·伯兮』에는 “杲杲出日”이다.

박영철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면, 『課農小抄』(15권 3책)가 먼저 나오고 『課農小抄』(『燕巖集』 권7)가 나중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 6.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는 15권 3책으로 편집된 필사본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 『燕巖集』(53권 20책)의 落帙에 포함되어 있고, 2권 1책(권7, 권8)이 빠졌다. 책의 크기는 22.7×15.0cm이다. 판심 하단에 “溪西藏”이라 새겨져 있어 “溪西本 『燕巖集』”이라고도 하며, 卷首에 “溪西” “準汝” 藏書印이 찍혀있어 溪西 李羲平(1772~1839)의 手澤本으로 판단된다.<sup>24)</sup>

『過庭錄』을 보면, 박종채가 주도한 『연암집』 편집본은 文稿 16권, 『熱河日記』 24권, 『課農小抄』 15권을 합하여 총 55권으로 구성되었고, 1829년(순조 29) 가을에 孝明世子의 명령으로 奎章閣에 올렸다가 1830년에 돌려받았다.<sup>25)</sup> 『燕巖集』(53권 20책)은 1829년 이전에 편집된 『연암집』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6)</sup>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는 『燕巖集』 別集에 편집되어 있으며, 제1책에 「目錄」, 「篇題」, 「進課農小抄文」, 권1에 「諸家總論」, 권2에 「授時」, 권3에 「占候」, 권4에 「田制」, 제2책 권5에 「農器」, 권6에 「耕墾」, 권7에 「糞壤」, 권8에 「水利」, 제3책 권9에 「擇種」, 권10에 「播穀」, 권11에 「諸穀名品」, 권12에 「鋤治[附備蝗雜法]」, 권13에 「收穫」, 권14에 「養牛[治病諸藥附]」, 권15에 「限民名田議」가 있다. 이 필사본을 박영철본과 비교하면, 卷首의 目錄을 제외하고 나머지 편집 순서는 완전히 같다.<sup>27)</sup> 각 권의 처음은 “燕巖集卷之〇 / 別集 / 課農小抄卷〇 / 河川郡守臣朴趾源編輯”이라 기록하고, 권15의 「限民名田議」는 “燕巖集卷之五十五 / 別集 / 課農小抄卷十五 / 河川郡守臣朴趾源進”이라 기록하여 ‘編輯’과 ‘進’을 구분하였다.

앞서 『課農小抄』(15권 3책) 필사본과 『課農小抄』(『燕巖集』 권7) 필사본을 박영철본과 비교하여 글자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구절이 13건에서 11건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

24) 정길수, 「燕巖集 1~3, 5~21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문예원, 2012, 224~230면.

25) 『過庭錄』 권4.

“先君文稿十六卷、『熱河日記』二十四卷、『課農小抄』十五卷共五十五卷、既未屬剞劂、尙以稿本藏于家、不肖所日夜憂懼者。歲己丑秋、我孝明世子遣閣屬官命進先臣遺文。賤臣不敢以市衍未定之本而隱祕也、以全部進呈。臣庶無祿、翌歲庚寅、鶴駕賓天、諸家書籍之曾入內府者、聖上悉命出賜本家、先臣遺文亦蒙還下。”

26) 金榮鎭은 溪西本 『연암집』을 孝明世子에게 진상한 55권본을 필사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승계문고본 『연암집』을 박종채가 편집한 『연암집』 계열로 본다. 승계문고본의 권1~55는 溪西本과 같고, 권56에 考槃堂祕藏, 권57에 罨畫溪蒐逸이 편집되어 있다(「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大東漢文學』 23, 2005, 51~53면; 67면).

27) 다만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는 15권 3책이고, 박영철본 『연암집』에서 『과농소초』는 2권(『연암집』 권16~17)으로 편집되어 있다.

은 방식으로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 필사본을 박영철본과 비교하면 다시 6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 필사본이 박영철본에 더욱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6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特硯田而筆耕已矣 (「進課農小抄文」) → 特研田而筆耕已矣 (박영철본)
2. 而不能少展爲終歲之憂 (「授時」按說) → 而不能少展其終歲之憂 (박영철본)
4. 清溪·冠岳諸山, 近在江外. (「田制」按說) → 清溪·冠岳諸山, 近在京江外. (박영철본)
7. 俗習好用 (「農器」按說) → 習俗好用 (박영철본)
9. 金麗刀, 形如牛犁, (「農器」按說) → 鬪刀, 形如牛犁, (박영철본)
11. 然而『孟子』曰‘今夫水激而揚之, 可使在山’, 其所以‘激而揚之’, 當有其具意者 (「水利」按說) → 然而『孟子』曰‘今夫水激而行之, 可使在山’, 其所以‘激而行之’, 當有其具意者. (박영철본)

마지막에 있는 「한민명전의」도 이 필사본과 박영철본을 비교하면 몇 글자의 수정이 있을 뿐 같은 내용이다.<sup>28)</sup> 따라서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은 박영철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의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 7. 맺음말

지금까지 현전하는 5종의 필사본을 분석하여 『과농소초』가 편찬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본문에서 다른 5종의 필사본과 박영철본의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필사본 『과농소초』의 체제

卷	면양잡록 제3책	면양잡록 제4책	과농소초 (15권 3책)	과농소초 (연암집 권7)	과농소초 (연암집 권41~55)	박영철본
卷首	羣書目					
	經				目錄	
	編題		編題		編題	編題
	進課農小抄文	進課農小抄文	進課農小抄文	進課農小抄文	進課農小抄文	進課農小抄文
		限民名田議		編題		
	總目	總目				
1		諸家總論	諸家總論	5則	諸家總論	諸家總論

28)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 필사본에는 “其能保守父祖之田業”이 “其能保守父祖之傳業”으로, “兼并者息, 然後產業均.”이 “兼并者著, 然後產業均.”로 나타난다.

卷	면양잡록 제3책	면양잡록 제4책	과농소초 (15권 3책)	과농소초 (연암집 권7)	과농소초 (연암집 권41~55)	박영철본
2		田制	授時	1則	授時	授時
3		授時	占候	1則	占候	占候
4		占候	田制	2則	田制	田制
5		農器	農器	21則	農器	農器
6		耕墾	耕墾	1則	耕墾	耕墾
7		糞壤	糞壤	1則	糞壤	糞壤
8		水利	水利	8則	水利	水利
9		擇種	擇種	1則	擇種	擇種
10		播穀	播穀	3則	播穀	播穀
11		諸穀名品	諸穀名品	1則	諸穀名品	諸穀名品
12		鋤治	鋤治 [備蝗雜法]	1則 1則	鋤治 [備蝗雜法]	鋤治 [備蝗雜法]
13		收穫	收穫	1則	收穫	收穫
		備蝗雜法				
14		養牛 [治病諸藥]	養牛 [治病諸藥]	1則	養牛 [治病諸藥]	養牛 [治病諸藥]
15			限民名田議	限民名田議	限民名田議	限民名田議

이를 보면 『과농소초』는 단독 저술로 편찬된 시기와 『연암집』으로 편집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면양잡록』 제3책과 제4책의 초고와 『과농소초』(15권 3책)는 단독 저술에 해당하고, 『과농소초』(『연암집』 권7)와 『과농소초』(『연암집』 권41~55)는 박영철본과 함께 『연암집』으로 편집된 것이다.

『과농소초』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았던 것은 卷首에 해당하는 「羣書目」, 「經」, 「編題」, 「進課農小抄文」, 「總目」과 「目錄」이었다. 「羣書目」과 「經」은 『면양잡록』 제3책에만 있고, 「總目」과 「目錄」은 3종의 필사본에 있으며, 『면양잡록』 제4책에서는 「限民名田議」가 卷首에 편집되기도 하였다. 「編題」와 「進課農小抄文」의 순서는 대체로 일치했으나 『과농소초』(『연암집』 권7)에서는 「進課農小抄文」 다음에 「編題」가 편집되었다.

『과농소초』 본문은 초기에 작성된 『면양잡록』 제4책에서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 「田制」, 「授時」, 「占候」의 순서이던 것이 「授時」, 「占候」, 「田制」의 순으로 조정되고, 「鋤治」와 「備蝗雜法」이 2개의 항목으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제외하면 전체 목차는 같았다.

박지원이 작성한 「編題」, 「進課農小抄文」, 「限民名田議」의 내용과 본문의 按說에는 변화가 있었다. 「編題」는 『면양잡록』 제3책에 수록된 내용과 『과농소초』(15권 3책)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進課農小抄文」은 『면양잡록』 제3책과 제4책에 수록된 것이 거의 같았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限民名田議」에 있었다. 『면양잡

록』 제4책에 수록된 初草와 中草의 내용이 크게 달랐고, 『과농소초』(15권 3책)에 수록된 글에서도 추가 수정이 있었다. 「限民名田議」는 박지원이 제안하는 토지개혁안인 限田論을 담겨 있어 가장 고심을 기울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이 『과농소초』를 편찬하는 방식은 經 및 農家流 서적에서 농사와 관련된 문장을 뽑아 정리하는 작업과 박지원이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이를 합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농사와 관련된 문장을 뽑는 작업의 상당 부분은 농서를 구하는 정조의 율음이 나오기 이전에 이뤄졌고,<sup>29)</sup>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작업은 정조의 율음이 나온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sup>30)</sup>

박지원이 『과농소초』의 권별 첫머리에 “河川郡守臣朴趾源編輯”이라 표현한 것은 이상의 두 가지 작업을 합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농소초』에는 박지원의 저작인 「編題」, 「進課農小抄文」, 「限民名田議」와 按說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암집』을 편집하는 초기에서 이들만 뽑아서 편집하는 작업도 있었다.<sup>31)</sup> 현전하는 『과농소초』의 필사본을 보면, 박지원이 일찍부터 農書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록을 뽑아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려고 수정을 거듭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29) 『課農小抄』 卷首, 「進課農小抄文」.

“及中歲落拓, 始有志歸農, 求所謂農家者流而鈔錄之. 然實無田可歸, 特研田而筆耕已矣. … 幸從蔭路, 出宰百里. 辭陞之日, 莊誦七事, ‘農桑’二字, 乃其首務也.”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課農小抄 種藝』(1책, 온재 古9100-11)는 주로 徐光啓의 『農政全書』와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발췌하였다. 이 필사본은 자료를 뽑아 정리하고, 박지원의 按說은 작성되지 않았다(김명호, 「온재문고 소장 『열하일기』와 연암의 여타 저작들」, 16~17면). 염정섭은 박지원이 정조의 율음이 나오고 정조의 독촉을 받은 이후에는 주로 徐光啓의 『農政全書』 구절을 뽑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았다(「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2012, 173~174면).

30) 박지원의 按說에는 安義縣監과 河川郡守로 있을 때의 경험이 나온다. 또한 그가 「進課農小抄文」을 작성한 시점은 1799년 3월 25일이다.

『課農小抄』, 「農器·颶扇」 按說. “臣待罪嶺邑, 時倣造其制, 一稚僮, 倚櫃踏括, 微躡其足, 則百斛之穀, 一朝盡簸.”

『課農小抄』, 「農器·水利」 按說. “以臣所守河川一郡言之, 土品墳墟, 而稭稌粘潤.”

『課農小抄』, 「農器·播穀」 按說. “臣待罪安義時, 每春邑民齊力踏田, 以爲秧基, 謂之踏秧之役, 此不知礪礪之用故也.”

31) 이와 관련하여 1900년에 金澤榮이 편집한 『燕巖集』 권4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沔陽雜錄』

『課農小抄』

『燕巖集』

『過庭錄』

『農政全書』

『弘齋全書』

김명호, 「온재문고 소장 『열하일기』와 연암의 여타 저작들」, 『온재문고로 본 박선수 가문의 자료적 가치 조명』, 국립중앙도서관, 2022.

김문식, 「연암 박지원의 牧民書, 『七事考』, 『東洋學』 48, 2010.

김문식, 「沔陽雜錄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문예원, 2012.

김문식, 「박지원의 「限民名田議」 수정 과정」 『문헌과 해석』 69, 태학사, 2014.

金榮鎭,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大東漢文學』 23, 2005.

金容燮, 「十八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 - 正祖末年의 應旨進農書의 분석」, 『韓國史研究』 12, 1968.

廉定燮, 「18세기말 正祖의 ‘農書大全’ 편찬 추진과 의의」 『韓國史研究』 114, 2001.

염정섭,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이국진·안세현, 「『課農小抄』 異本 교감과 정본화 작업의 성과와 의미」 『大東漢文學』 59, 2019.

정길수, 「燕巖集 1~3, 4~21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문예원, 2012.

# “필사본 『課農小抄』의 편찬 과정”에 대한 토론문

염 정 섭(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문식선생님(이하 필자)의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과농소초』 5종의 필사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과농소초』가 편찬되는 과정을 검토한 연구성과입니다. 논문 내용이 5종의 필사본 서술 내용의 자구 비교 작업을 꼼꼼하게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뚜렷한 연구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課農小抄』(『燕巖集』 권7), 『課農小抄』(『燕巖集』 권41~55)에 대한 소개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2012년에 『과농소초』에 대한 검토 작업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필자의 후의로 『면양잡록』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에도 박영철본 『과농소초』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농소초』를 살펴 보면서 해독에 난감한 대목을 만나면 적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타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필자의 논문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론자는 『과농소초』라는 農書의 서술 내용에 주목하였다면 오늘 필자는 『과농소초』의 편찬 과정에 집중하고 있어, 그동안 선후 관계가 바뀐 연구에 커다란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필자의 논문을 읽을 수 있었던 특혜를 발판으로 삼아 오늘 참석하지 못한 연구자 여러분을 대신하여 필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필자가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7. 맺음말에 보입니다. 필자는 5종의 필사본과 박영철본의 체제를 비교하면서 “『과농소초』는 단독 저술로 편찬된 시기와 『연암집』으로 편집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면양잡록』 제3책과 제4책의 초고와 『과농소초』(15권 3책)는 단독 저술에 해당하고, 『과농소초』(『연암집』 권7)와 『과농소초』(『연암집』 권41~55)는 박영철본과 함께 『연암집』으로 편집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자는 <표 3>에서 『면양잡록』 제3책의 체제가 다른 필사본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양잡록』 3책에 ‘經’이라는 항목명 아래 農에 관련된 부분을 儒學經傳에서 뽑아내 기록하였습니다. 각 조목의 끝에 작은 글자로 출전을 기록하였고, 界線의 상단에 항목별 일련번호를 붙였는데 ‘一’에서 ‘七十四’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一’에서 ‘七十四’, ‘七十五’에 이르는 일련 번호는 박지원 당대에 박지원이 붙인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같습

니다. 특히 ‘一’에서 ‘七十四’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끊기는 부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七十四’에서 ‘七十五’로 넘어가는 부분은 같은 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나뉘어 있어, 일련번호는 나중에 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經 항목 아래 정리한 내용의 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sup>1)</sup>

1. 『周易』 繫辭傳
2. 『禮記』 祭法 第二十三
3. 『書經』 堯典
- 4~6. 『詩經』 大雅
7. 『書經』 大禹謨
- 8~9. 『書經』 盤庚
- 10~14. 『書經』 洪範
15. 『書經』 酒誥
16. 『書經』 梓材
- 17~18. 『詩經』 豳風 七月
19. 『詩經』 臣工
20. 『詩經』 噫嘻            39. 『月令』 孟春
21. 『詩經』 豐年            40. 『月令』 仲春
22. 『詩經』 載芟            41. 『月令』 孟夏
23. 『詩經』 良耜            42. 『月令』 仲夏
24. 『詩經』 楚茨            43. 『月令』 季夏
- 25~27. 『詩經』            44. 『月令』 孟秋信南山
- 28~31. 『詩經』            45. 『月令』 孟冬甫田
- 32~35. 『詩經』            46. 『月令』 仲冬大田
36. 『詩經』 甫田            47. 『月令』 季冬
- 37~38. 『禮記』            48. 『禮記』 郊特牲王制
- 49~62. 『周禮』 (상세 조목 생략)
- 63~74. 『孟子』 (상세 조목 생략)

위의 내용은 박영철본 『과농소초』에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양잡록』 3책의 『과농소초』는 면천군수로 부임한 이후 박지원이 본격적인 농서 편찬을 기획하면서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777년 금천 연암협에 은거하게 된 뒤에 여러 농서에서 뽑아낸 초록抄錄을 만들어 둔 것도 참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양잡록』 3책의 『과농소초』를 제외하면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면양잡록』 제4책의 초고, 『과농소초』(15

1) 염정섭, 「燕巖의 『課農小抄』에 대한 綜合的 檢討」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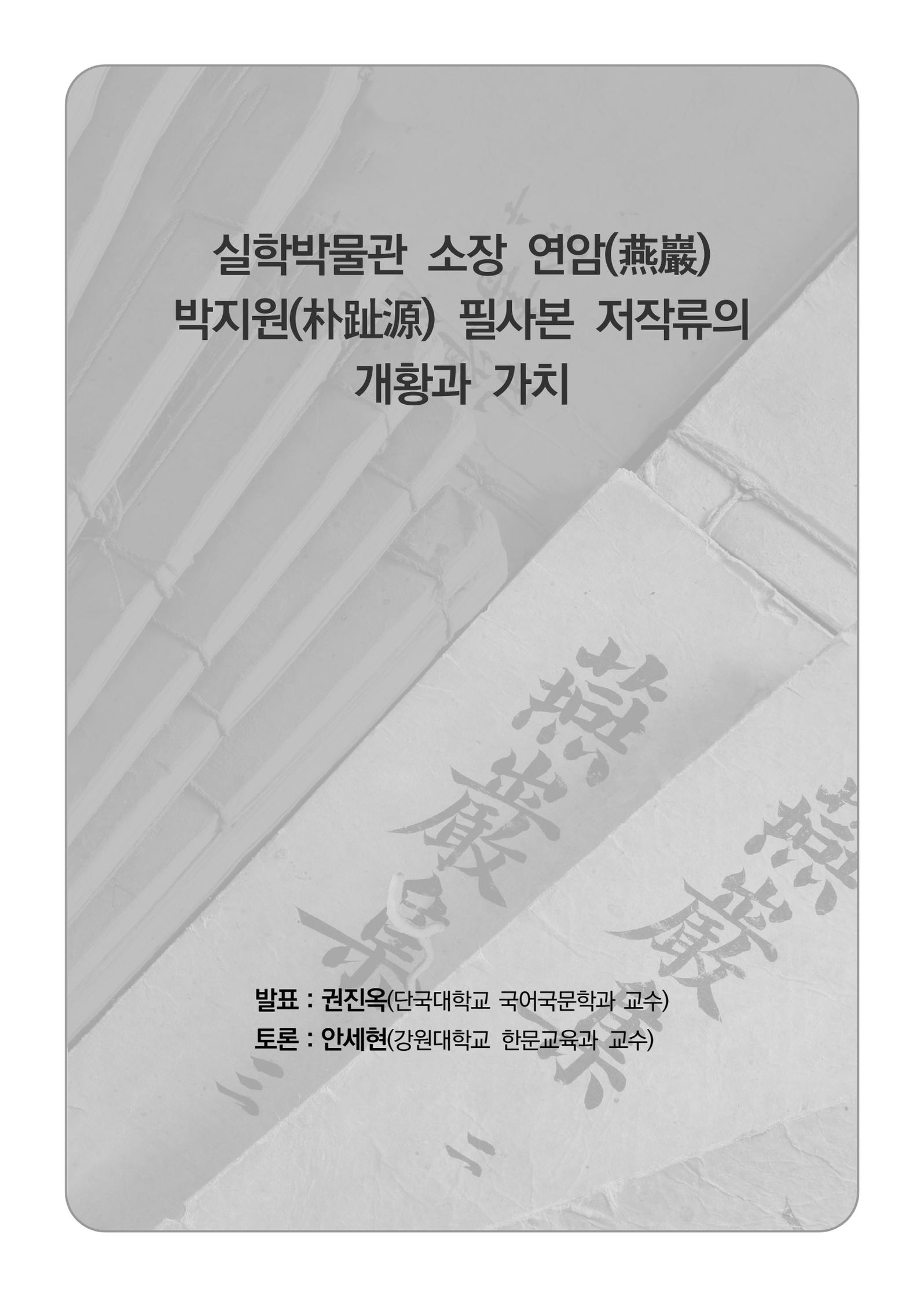
권 3책), 『과농소초』(『연암집』 권7), 『과농소초』(『연암집』 권41~55)는 모두 박영철본과 함께 『연암집』으로 편집된 것과 동질적인 체제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자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조에게 進呈한 『과농소초』를 저술한 시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798년 11월 정조가 「권농정구농서윤음」을 내려 전국 각지에서 응지농서를 구하자 박지원은 『과농소초』를 만들어 올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799년 1월 정조의 독촉을 받은 연암은 앞서 연암협 은거 이후에 작성한 농서 초록을 바탕으로 삼고, 서광계의 『농정전서』를 발췌 인용하는 방식으로 초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과농소초』에 註釋이나 按說로 들어가 있는 자신의 주장 등도 정리하여 『면양잡록』 4책에 들어 있는 초본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지원이 「進課農小抄文」을 작성한 시점은 1799년 3월 25일이라는 점에서 1798년 11월 정조의 윤음이 반포되고, 1799년 1월 정도의 독촉이 내려진 시기부터 본격적인 진정본 『과농소초』가 저술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정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박지원이 정조에게 올린 『과농소초』는 책자 형태를 띠고 있었음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정조가 「권농정구농서윤음」에서 요구한 것은 京外의 大小 臣庶들에게 農政과 農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농서윤음」에 호응하여 應旨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례 깊고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었는데, 하나는 章疏의 형식으로 上疏文을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簿冊의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각지의 應旨人은 혹은 章疏를 올리거나, 혹은 冊子를 올렸습니다. 박지원의 『과농소초』도 책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면양잡록』 4책에 수록된 『과농소초』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제목에는 「課農小抄卷之」라 표시하여 卷次가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줄에 “沔川郡守臣朴趾源 編輯”이라 기록하였다. 그리고 「諸家總論」, 「占候」, 「農器」의 본문을 권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管子』曰: “野與市爭” 라는 대목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자도 밝힌 바와 같이 『管子』曰: “野與市爭民, 金與粟爭貴.” 又曰: “民無所遊食, 必農. 民事農則田墾, 田墾則粟多, 粟多則國富.”라는 최종본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면양잡록』 제4책의 『과농소초』는 정조에게 올리기 위해 저술 작업 중이던 당시 『과농소초』의 본문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양잡록』 4책의 『과농소초』 초고는 정조에게 올려진 『과농소초』 책자(進呈本 『課農小抄』)를 작성하기 위해 지침으로 만든 초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론자가 과감하게 한발 더 나아가서 해석해보는다면 『면양잡록』 4책의 초고와 『과농소초』(15권 3책)이 정조에게 올려진 진정본 『과농소초』에 가장 근접한 필사본이고, 『과농소초』(『연암집』 권7)와 『과농소초』(『연암집』 권41~55), 박영철본 등은 필사본에 박지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정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

**발표 : 권진옥(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론 : 안세현(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

권진옥(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 목 차 | —

1. 머리말
2. 실학박물관 소장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
3. 맺음말

## 1. 머리말

이 발표문은 실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을 점검하고 이 자료들이 지니는 종합적인 가치를 살펴본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연암 박지원의 저작류는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 형태로만 유통되다가,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이 주도하여 『연암집(燕巖集)』(1900년, 금속활자본), 『연암속집(燕巖續集)』(1901년, 금속활자본), 『중편연암집(重編燕巖集)』(1917년, 신활자본) 등을 선본(選本) 형태로 간행하였고,<sup>1)</sup> 박영철(朴榮喆, 1879~1939)이 17권 6책의 『연암집(燕巖集)』(1932년, 연활자본)을 완본(完本) 형태로 최종 간행하였다. 이 박영철본은 일반 문집 형태와는 크게 다른데, 박지원이 안의 현감(安義縣監) 시절에 정리한 소집(小集)인 『연상각집(煙湘閣集)』을 시작으로 여러 소집들을 차례대로 배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영철본이 박지원의 차남 박종채(朴宗采, 1780~1835)가 편집한 『연암집』을 저본으로 하고, 박종채 편집본의 저본은 박지원 당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소집들이었기 때문이다.<sup>2)</sup> 요컨대 박지원은 초장년기와 중만년기에 여러 소집의

1) 김택영의 여러 간행본에 대해서는 정재철의 「김택영의 『연암집』 편찬과 그 의미」(『한국한문학연구』 63, 한국한문학회, 2016)에서 상세하고 다루고 있음.

2) 『燕巖集』의 刊本과 筆寫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김현조의 「燕巖集 異本에 대한 考察」(『한국한문학연구』 17, 한국한문학회, 199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필사본 小集들의 존재 양상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진의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과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동양학』 4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0)에서 상세하고 다루고 있음.

형태로 자신의 글을 정리하였고 또 이를 후손이나 주변인들이 전사(轉寫)하였기 때문에 현재 매우 다양한 종류의 필사본 저작류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사본 소집들 외에도, ‘초고(草稿)’ 혹은 ‘산고(散稿)’ 형태의 필사본 『연암집』, 『열하일기(熱河日記)』의 다양한 필사본 이본들 등이 저마다의 복잡다단한 사연을 지닌 채 현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희귀본이자 귀증본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연민문고<sup>3)</sup>(이하 ‘단국대 박물관’으로 약칭)와 실학박물관이다.

이미 단국대 박물관 소장본 연암 박지원 저작류 관련 사업의 성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연암 저작류 36종 포함, 문예원, 2012), 『연민문고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 총서』(총 20책, 문예원, 2012) 등을 간행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암집』 정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연암집』 및 『열하일기』 이본의 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원문 교감 및 표점을 진행하여 정보를 완성한 바 있다. 이 사업에서는 『연암집』 및 『열하일기』 이본의 계열을 ‘초고 계열’, ‘소집 계열’, ‘문집 계열’로 구분하였는데, 실학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이 3가지 이본 계열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종수도 많다. 이러한 사업 성과 외에도 단국대 박물관 및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저작류는 많은 학술 논문들을 통해 그 자료적 중요도와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sup>4)</sup>

아래 2장에서는 단국대 박물관 소장 자료에 비해 비교적 주목을 못받았던 실학박물관 소장 자료에 집중하여 연암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sup>5)</sup>의 개황을 점검하고 이 자료들이 지니는 종합적인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박지원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종의 小集들을 自編했는데, 이들 自編 手稿本들은 차남 朴宗采, 처남 李在誠 등에 의해 수습되었다. 이 필사본들은 박지원의 현손 朴泳範에게 전해졌고, 淵民 李家源이 그 일부를 입수하여 보관하다가 단국대에 기증하여 현재 ‘연민문고’로 분류되어 있다.

4) 단국대 박물관 및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저작류가 연구의 중심이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김문식,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필사본의 자료적 가치」, 『동양학』 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8; 김철조, 「燕巖 朴趾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연구-개작 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정재철, 「박영철본 『연암집』 미수록 연암시에 대하여-연민문고 소장 『연암집초고보유 9』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7, 대동한문학회, 2012; 김명호, 「연암의 逸詩 <司鑰行>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정재철, 「연암의 『면양잡록』 수록 윤가기 시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40, 근역한문학회, 2015; 정재철, 「연암 문학에 대한 당시대인의 인식-이재성의 「제박연암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7, 열상고전연구회, 2017.

한편 단국대 박물관 및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저작류를 연구에 참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김윤조, 「朴榮喆本 燕巖集의 ‘錯誤脫落’에 대한 검토-‘文’ 부분을 대상으로 ‘勝溪文庫本 연암집’과 비교하여-」, 『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1992; 김철조, 「燕巖集 異本에 대한 考察」, 『한국한문학연구』 17, 한국한문학회, 1994;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서현경, 「『열하일기』 정보의 탐색과 서술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 『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0; 현안옥, 「박지원의 <족손증홍문정자박근묘지명> 개작과정 연구-이본 간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2, 국어문학회, 2016; 정재철, 「김택영의 『연암집』 편찬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63, 한국한문학회, 2016.

5) 실학박물관에는 활자본 『燕巖集』 자료도 소장되어 있는데, 1900년 金澤榮이 校編한 금속활자본 『연암집』, 1932년 朴榮喆이 간행한 연활자본 『연암집』 등이다.

## 2. 실학박물관 소장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

실학박물관에 소장된 연암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를, 편이상 박지원 자신의 저작류 9종 그리고 그의 후손이나 주변인에 의해 만들어진 박지원 관련 저작류 5종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 ○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서명 가나다순)

01. 『과농소초(課農小抄)』(소장 번호 : 000202)
02. 『삼동집(三洞集)』(소장 번호 : 000208)
03. 『연상각집(煙湘閣集)』(소장 번호 : 000205)
04. 『연암집(燕巖集)』(소장 번호 : 000192-000194)
05. 『연암초고(燕岩草稿) 7』(소장 번호 : 000205)
06. 『열하일기(熱河日記)』(소장 번호 : 000207)
07. 『운산만첩당집(雲山萬疊堂集)』(소장 번호 : 000439)
08. 『향북우필(香北偶筆)』(소장 번호 : 000201)
09. 『혹정필담(鶻汀筆談)』(소장 번호 : 000195)

### ○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관련 필사본 저작류(서명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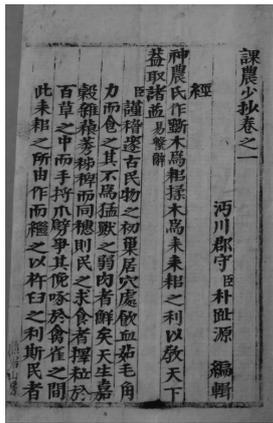
10. 『과정록수초(過庭錄手抄)』(소장 번호 : 000197)
11. 『봉운여성집(鳳韻餘聲集)』(소장 번호 : 000200)
12. 『선산시초(船山詩鈔)』(1책, 『양봉시초(兩峯詩鈔)』 합철, 소장 번호 : 000199)
13. 『야천선생자손록(冶川先生子孫錄)』(1책, 소장 번호 : 000198)
14. 『잡고(雜稿)』(소장 번호 : 000203)

### 01. 『과농소초(課農小抄)』(1책, ‘연암산방(燕岩山房)’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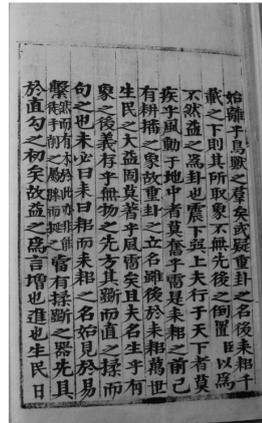
권수제(卷首題)를 보면 『과농소초』 권1에 해당하는 책이지만, 전반부의 일부만 기록하고 그친 형태이다. 박영철본 『과농소초』에는 경전(經傳)에서 발췌한 글을 모아 놓은 「경(經)」이 누락되어 있지만, 『과농소초』의 초고본에 해당하는 단국대 박물관 소장 『면양잡록(沔陽雜錄)』 권3 「과농소초」에는 「경」이 수록되어 있다. 『면양잡록』 「과농소초」의 「경」은 총 7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의 「경」은 8개만 수록되어 있다.

6) 실학박물관(<https://silhak.ggcf.kr>) 소장 자료 현황에 따르면, 朴趾源과 관련된 자료들은 ‘연암 박지원 및 환재 박규수 가문 소장 자료’에 귀속되어 있다. 본 발표문에서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 및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관련 필사본 저작류’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목록들은 실학박물관에서 연암 박지원의 자료로 분류해 놓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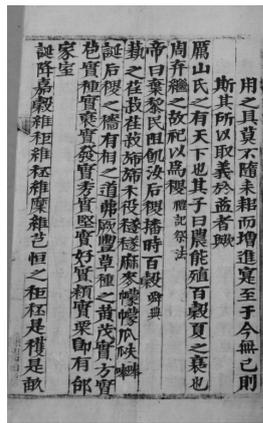
7) 『課農小抄』를 비롯하여 아래의 필사본 사진 자료들은 실학박물관에서 제공해 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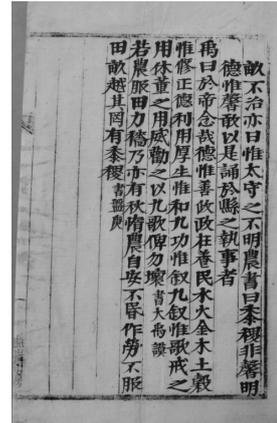
『課農小抄』 1면



『課農小抄』 2면



『課農小抄』 3면



『課農小抄』 마지막 면

課農小抄卷之一

沔川郡守 【臣】朴趾源 編輯

經

神農氏作，斲木爲耜，揉木爲耒。耒耨之利，以教天下，蓋取諸益。【易繫辭】

【臣】謹稽 ……

厲山氏之有天下也，其子曰農，能殖百穀。夏之衰也，周棄繼之，故祀以爲稷。【禮記祭法】

帝曰，棄！黎民阻飢，汝后稷，播時百穀。【舜典】

蓺之荏菹，荏菹旆旆。禾役穰穰，麻麥幪幪，瓜瓞嗶嗶。

誕后稷之穡，有相之道。芴厥豐草，種之黃茂。實方實苞，實種實稂。實發實秀，實堅實好。實穎實粟，卽有郇家室。

誕降嘉種，維秬維秠。維糜維芑，恒之秬秠。是穫是畝，恒之糜芑。是任是負，以歸肇祀。【詩大雅生民】

【臣】謹按 ……

禹曰，於帝！念哉。德惟善政，政在養民。水火金木土穀，惟修，正德利用厚生，惟和。九功惟敘，九敎惟歌，戒之用休，董之用威，勸之以九歌，俾勿壞。【書大禹謨】

若農服田力穡，乃亦有秋。【書盤庚】

8개만 기록되어 있지만, 『면양잡록』 「과농소초」의 「경」과 비교하면 구성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출전을 소주로 처리한 부분이다. 예컨대 2번째 경전의 글에 대해서 이 책은 “禮記祭法”으로 출전을 밝히고 있지만, 『면양잡록』 「과농소초」에서는 “禮記祭法” 뒤에 “○厲山氏，一云烈山氏，炎帝神農也。其後世子孫，有名柱者，能殖百穀，作農官，因名農。”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4번째 경전의 글에 대해서 이 책은 출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면양잡록』 「과농소초」에서는 “集傳. 蓺，樹也. 荏菹，大豆也. 旆旆，枝旆揚起也. 役，列也. 穰穰，苗美好之貌也. 幪幪然，茂密也. 嗶嗶然，多實也.”라고 출전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5번째 경전의 글에 대해서도 이 책은 출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면양잡록』 「과농소초」에서는 “集

傳. 相, 助也, 言盡人力之助也. 莠, 治也. 種, 布之也. 黃茂, 嘉穀也. 方, 房也. 苞, 甲而未拆也. 此, 漬其種也. 種, 甲拆而可爲種也. 裒, 漸長也. 發, 盡發也. 秀, 始穰也. 堅, 其實堅也. 好, 形味好也. 穎, 實繁碩而乘末也. 栗, 不秕也. 既收成, 見其實皆栗栗然不秕也.”라고 출전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한편 『면양잡록』 「과농소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책에만 기록된 것이 “[臣]謹稽 ……”, “[臣]謹按 ……” 부분으로 박지원의 계설(稽說)과 안설(按設)이다. 격일자(隔一字)로 기록하고 그 내용의 분량도 매우 길다.

이 책이 비록 『과농소초』 권1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몇 가지 정황을 통해 『면양잡록』 「과농소초」와 마찬가지로 『과농소초』 초고본 계열의 이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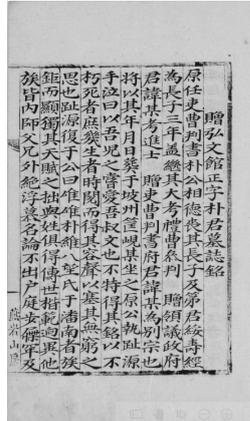
## 02. 『삼동집(三洞集)』(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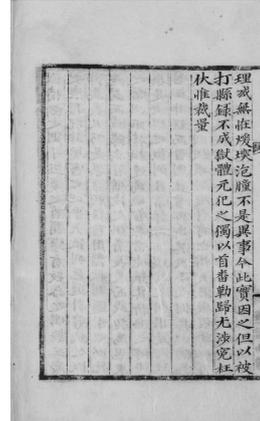
『삼동集』 표지



『삼동集』 1면



『삼동集』 7면



『삼동集』 마지막 면

‘삼동(三洞)’은 안의현(安義縣)의 삼동(三洞)으로 화림동(花林洞)·심진동(尋眞洞)·원학동(猿鶴洞)을 가리킨다. 박지원이 안의 현감(安義縣監) 시절 1791년(정조 15)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지은 글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에 지은 글 일부 등 총 20편이 수록되어 있다.<sup>8)</sup> 그 작품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贈司憲府持平芮君墓碣銘」

「族孫贈弘文正字朴君墓誌銘」

「參奉王君墓碣銘」

「李子厚賀子詩軸序」

「族兄都尉公周甲壽序」

「洪範羽翼序」

8) 김영진, 위의 논문, 2010, 5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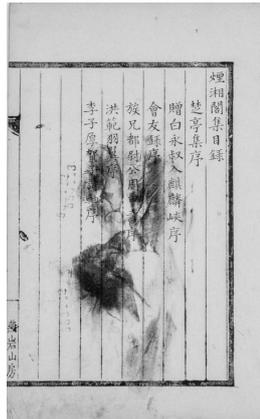
- 「陝川華陽洞丙舍記」
- 「安義縣屬壇記」 ※ 박영철본 「煙湘閣選本」에는 「安義縣屬壇神宇記」
- 「居昌縣五慎祠記」
- 「安義縣社稷壇記」 ※ 박영철본 「煙湘閣選本」에는 「安義縣社稷壇神宇記」
- 「咸陽郡興學齋記」
- 「安義縣縣司祀郭侯記」
- 「澹然亭記」
- 「答大丘判官李侯【端亨】論賑政書」
- 「答丹城縣監李侯【榮祚】論賑政書」 ※ 박영철본 「煙湘閣選本」에는 「答丹城縣監李侯論賑政書」
- 「賀族姪拜相因論寺奴書」 ※ 박영철본 「煙湘閣選本」에는 「賀族姪【宗岳】拜相因論寺奴書」
- 「答巡使論玄風縣殺獄元犯誤錄書」
- 「答巡相論密陽金貴三疑獄書」
- 「答巡使論咸陽張水元疑獄書」
- 「答巡使論密陽疑獄書」

이 책은 증만년기 박지원의 필사본 소집(小集)으로 『연상각집(煙湘閣集)』 계열<sup>9)</sup>의 하나이다. 하나의 작품이 시작되는 면이 반드시 왼쪽에 오도록 배치하였고 필체 역시 정사(淨寫)한 것으로 보면 매우 각별하게 공을 들인 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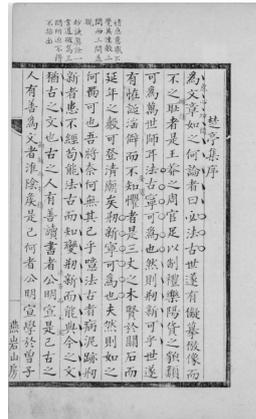
### 03. 『연상각집(煙湘閣集)』(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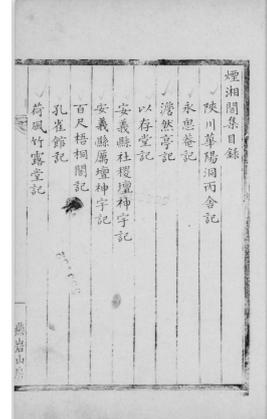
『煙湘閣集』 표지



『煙湘閣集』 序 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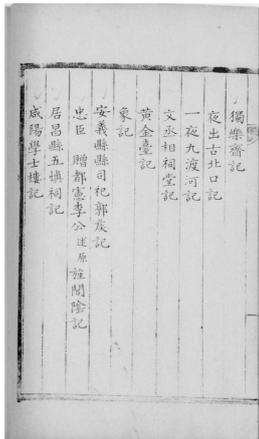
『煙湘閣集』 3면



『煙湘閣集』 記 目錄(1)

박지원의 서(序) 7편, 기(記) 21편이 수록되어 있다. 각 작품에 권점(圈點), 두평(頭評), 협비(夾批), 미평(尾評) 등이 붙어 있다. 이 책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해인사창수시서(海印寺唱酬詩

9) 『煙湘閣集』 계열본들은 『映帶亭集』부터 『沔陽集』까지 총 8종인데, 이에 대한 것은 김영진의 위의 논문, 2010, 54~61면에 상세하다.



『煙湘閣集』記 目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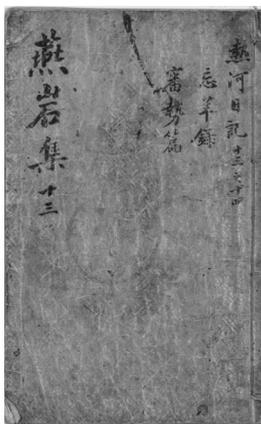
『煙湘閣集』記 目錄(3)



『煙湘閣集』「海印寺唱酬詩序」

序)는 서(序)의 목록에는 없고 박지원의 친필로 추기(追記)된 것이다. 『삼동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이 시작되는 면이 반드시 왼쪽에 오도록 배치하였고 필체 역시 정사(淨寫)한 점, 박지원의 친필 작품이 수록된 점, 권점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평비(評批)가 풍성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sup>10)</sup>

04. 『연암집(燕巖集)』(3책, 소장 번호 : 000192-000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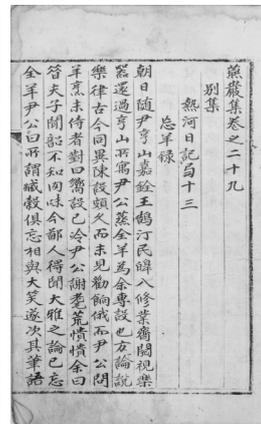
『燕巖集』 책13 표지



『燕巖集』 책15 표지



『燕巖集』 책18 표지



『燕巖集』 책13 3면

『열하일기』가 『연암집』의 별집으로 통합된 형태의 책인데, 『열하일기』의 일부가 수록된 책 13, 책15, 책18의 총 3책이다. 3책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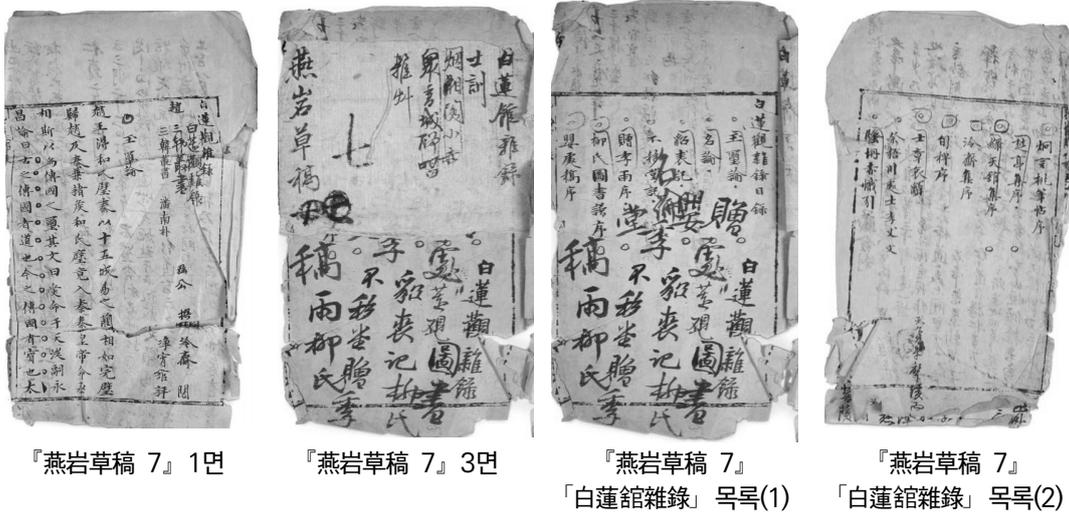
『燕巖集』 卷之二十九 別集 熱河日記 十三 忘羊錄

10) 김영진, 위의 논문, 2010, 55~56면; 실학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실학박물관 소장품 도록 '법고창신의 길을 잇다』, 2019, 50~51면.

- 『燕巖集』 卷之三十三 別集 熱河日記 十四 審勢編
- 『燕巖集』 卷之三十三 別集 熱河日記 十七 幻戲記
- 『燕巖集』 卷之三十四 別集 熱河日記 十八 避暑錄
- 『燕巖集』 卷之四十 別集 熱河日記 二十四 銅蘭涉筆

『연암집』의 권차 안에 별집의 형태로 『열하일기』가 순차적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이 책들은 이른바 『연암집』 별집 계열의 『열하일기』에 속한다.<sup>11)</sup> 또한 이 책들은 박종채가 편집한 『연암집』 후손가장본이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sup>12)</sup>

05. 『연암초고(燕岩草稿) 7』(소장 번호 : 000205)<sup>13)</sup>



『燕岩草稿 7』 1면      『燕岩草稿 7』 3면      『燕岩草稿 7』      『燕岩草稿 7』  
 『白蓮館雜錄』 목록(1)      『白蓮館雜錄』 목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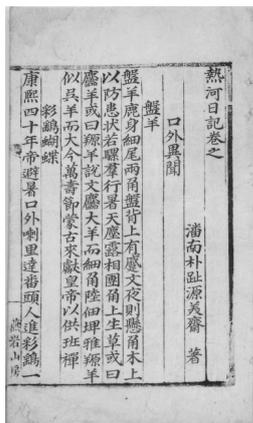
‘연암초고(燕岩草稿)’라는 이름으로 일련번호를 붙인 자료들<sup>14)</sup> 가운데 하나이고, 단국대 박물관 소장 『연암초고(燕岩草稿) 8』과 매우 관련이 있다. 『연암초고 8』은 「벽매원잡록(碧梅園雜錄)」과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 두 소집(小集)을 묶은 책으로, ‘공작관집(孔雀館集)’이란 판심이 새겨진 무사란(無絲欄) 원고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내제(內題) 아래에 “弦公 撰, 種北大隱 閱,

11) 김명호는 『열하일기』 이본들을 초고본 계열, 『열하일기』 계열, 『연암집』 외집 계열, 『연암집』 별집 계열 4개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연암집』 별집 계열은 『열하일기』가 『연암집』의 ‘별집’으로 통합되면서 『연암집』의 권차가 부여된 이본들로 규정하였다(김명호, 『『연암집』 텍스트의 재검토』,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233면).  
 12) 김영진, 위의 논문, 2010, 46면.  
 13) 실학박물관 소장 『煙湘閣集』의 소장 번호와 동일한데, 『연상각집』을 박물관에서 매입할 당시 그 안에 이 자료가 끼워져 있었다고 함.  
 14) 단국대 박물관에는 『燕岩草稿 3』, 『燕岩草稿 4』, 『燕岩草稿 6』, 『燕岩草稿 8』, 『燕岩草稿 補遺 9』 등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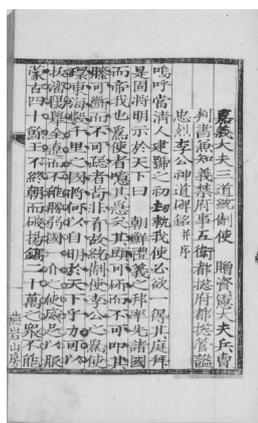
塔東癡人較”라고 적혀 있다. 현공(弦公)은 박지원이 초년에 사용한 호이고, 종북대은(種北大隱)과 탑동치인(塔東癡人)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로 추정된다.<sup>15)</sup> 『연암초고 7』은 표지 우측에 ‘백련관잡록(白蓮觀雜錄)’, ‘사훈(土訓)’, ‘연상각소적(烟湘閣小赤)’, ‘중향성수창(衆香城酬唱)’, ‘잡초(雜艸)’가 적혀 있으나, 「백련관잡록」의 목록과 본문의 첫 면만이 겨우 남아 있다. 이 목록에는 「옥새론(玉璽論)», 「명론(名論)», 「초구기(貂裘記)», 「불이당기(不移堂記)», 「증계우서(贈季雨序)», 「유씨도서보서(嬰處稿序)», 「영처고서(嬰處稿序)», 「형언도필첩서(炯言桃筆帖序)», 「조정집서(楚亭集序)», 「녹천관집서(綠天館集序)», 「영재집서(泠齋集序)», 「순패서(旬穉序)», 「사장애사(士章哀辭)», 「제오천처사이공문(祭梧川處士李公文)»,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이 수록되어 있다. 『연암초고 8』과 마찬가지로 ‘백련관잡록’ 내제 아래에 “弦公撰, 泠齋閱, 淨宵館評”이라 적혀 있는데, 영재(泠齋)는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고, 정소관(淨宵館)은 미상이다.<sup>16)</sup>

이 책은 초장년기 박지원의 필사본 소장(小集) 가운데 하나로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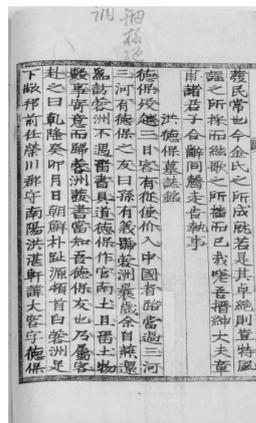
06. 『열하일기(熱河日記)』(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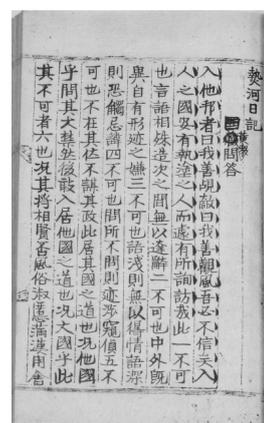
『熱河日記』 1면



『熱河日記』 「……論忠烈李公神道碑銘」



『熱河日記』 「洪德保墓誌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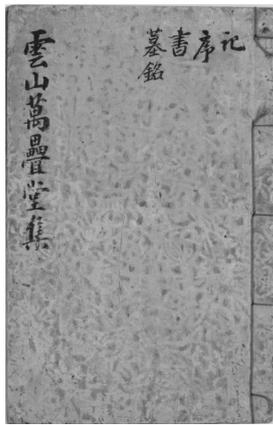
『熱河日記』 「黃教問答」

권수제(卷首題)가 “熱河日記卷之”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열하일기』에 권차를 부여하기 전의 자료이다. 그런데 이 책은 『열하일기』 외에도 중간에 2개의 묘도 문자가 수록되어 있다. 『열하일기』 「구외이문(口外異聞)」의 「반양(盤羊)」부터 「서화담집(徐花潭集)」까지의 일부 분, 그 뒤로 이학(李廓, 1590~1665)을 대상으로 쓴 신도비명,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을 대상으로 쓴 묘지명, 그 뒤로 다시 『열하일기』 「황교문답(黃教問答)」, 「산장잡기(山莊雜記)」의 「희본명목(戲本名目)», 「행재잡록(行在雜錄)», 「반선시말(班禪始末)」 등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15) 김윤조, 『『燕岩草稿 9』 해제』(『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문예원, 2012, 196~203면).  
 16) 김영진, 위의 논문, 2010, 51면; 실학박물관, 위의 도록, 2019, 46~49면.

또한 「황교문답」부터는 ‘연암산방’ 원고지가 아니다. 『열하일기』의 내용들이 일정한 체계가 없이 혼재되어 있어 『열하일기』 이본들 계열 어디에도 귀속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중간에 수록된 「홍덕보묘지명(洪德保墓誌銘)」은 특히 붉은색의 권점(圈點)과 두주(頭註)가 많이 부기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07. 『운산만첩당집(雲山萬疊堂集)』(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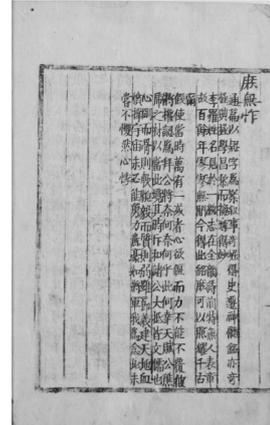
『雲山萬疊堂集』 표지



『雲山萬疊堂集』 목록(1)



『雲山萬疊堂集』  
「澹然亭記」



『雲山萬疊堂集』  
마지막 면

『연상각집』 계열의 책으로 박지원의 안의 현감 시절 필사된 것이다. 기(記) 14편, 서(序) 3편, 편지글 9편, 사장(事狀) 1편, 묘도 문자 6편 등 총 33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記(14편) : 「澹然亭記」, 「居昌縣五慎祠記」, 「安義縣社稷壇記」, 「安義縣屬壇記」, 「陝川華陽洞丙舍記」, 「安義縣縣司祀郭侯記」, 「夜出古北口記」, 「一夜九渡河記」, 「象記」, 「文丞相祠堂記」, 「黃金臺記」, 「以存堂記」, 「咸陽郡興學齋記」, 「髮僧菴記」

序(3편) : 「洪範羽翼序」, 「李子厚賀子詩軸序」, 「族兄都尉周公甲壽序」

書(9편) : 「答丹城縣監李侯榮祚論賑政書」, 「答大邱判官李侯端亨論賑政書」, 「賀族姪入相因論寺奴婢書」, 「賀金右相(履素)因論錢幣書」, 「答南直閣【公轍】書」, 「答巡使論玄風縣殺獄元犯誤錄書」, 「答巡使論密陽府疑獄書」, 「答巡使論密陽府疑獄書」, 「答巡使論咸陽郡疑獄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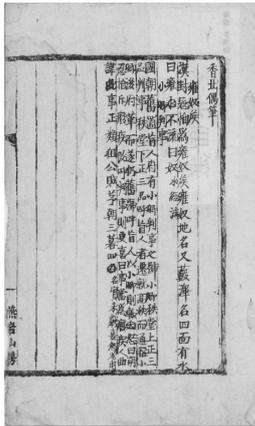
事狀(1편) : 「金孺人烈事狀」

碑誌(6편) : 「癡庵崔翁墓碣銘」, 「贈持平芮君墓碣銘」, 「顯陵參奉王君墓碣銘」, 「贈弘文館正字朴君墓誌銘」, 「洪德保墓誌銘」, 「李忠烈公神道碑銘」

이 책은 『연상각집』에서 선별되었거나 아니면 이 책을 기반으로 확장해 만든 것이 『연상각집』 일 가능성이 높다.<sup>17)</sup> 실학박물관 소장 『삼동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이 시작되는 면이 반

드시 왼쪽에 오도록 배치하였고 필체 역시 정사(淨寫)한 점, 권점(圈點)·두평(頭評)·미평(尾評) 등의 부가 정보들이 풍성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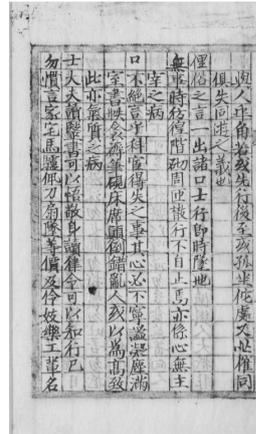
08. 『향북우필(香北偶筆)』(1책, ‘연안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1)



『香北偶筆』 1면



『香北偶筆』 3면



『香北偶筆』 4면



『香北偶筆』 5면

별도의 표지는 없고 ‘향북우필(香北偶筆)’이라는 내제(內題)에 이어 바로 ‘옹노후(雍奴侯)’와 ‘소경과 판사[小卿判事]’ 2가지 조목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첫 번째 조목인 ‘옹노후’는 박영철본 『열하일기』 「구외이문(口外異聞)」과 단국대 박물관 소장 『면양잡록(沔陽雜錄)』 권6 「연상우필(烟湘偶筆)」에도 보이는데, 「연상우필」에서는 본 책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목으로 수록되어 있다.<sup>18)</sup> 그런데 이 3가지 책에 각각 수록된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

〈『열하일기』 「구외이문·옹노후」〉

童子時讀史，竊怪漢封寇恂爲雍奴侯，侯號何限而何必曰雍奴侯？按雍奴地名，在漁陽右北平。余曩入燕薊，道出漁陽北平，今未知雍奴變作何名，而儻亦經行其地否也。雍奴又數澤名，水經注，四面有水曰雍，不流曰奴。

〈『면양잡록』 「연상우필·옹노후」〉

童子時讀史，竊怪漢封寇恂爲雍奴侯，侯號何限而何必曰雍奴侯？後按雍奴地名，在漁陽右北平。余嘗遊燕薊，道出漁陽北平，今未知雍奴變作何名，而儻亦經行其地否也。雍奴又數澤名，水經注，四面有水曰雍，不流曰奴。

〈『향북우필』 「옹노후」〉

漢封寇恂爲雍奴侯。雍奴地名，又數澤名，四面有水曰雍，不流曰奴。【水經注】

17) 김영진, 위의 논문, 2010, 58면; 실학박물관, 위의 도록, 2019, 52~53면.

18) 『沔陽雜錄』 권6 「烟湘偶筆」은 ‘雍奴侯’부터 ‘武庫火’까지 총 50개의 조목을 수록하고 있다.

『열하일기』 「구외이문·옹노후」와 『면양잡록』 「연상우필·옹노후」 사이에는 ‘竊’과 ‘窃’, ‘侯’와 ‘後’, ‘曩入’과 ‘嘗遊’ 등의 사소한 차이만 보이지만, 『향복우필』 「옹노후」는 그 내용이 대폭 축약되고 ‘水經注’를 소주로 처리하고 있다. 두 번째 조목인 ‘소경판사’는 『면양잡록』과 『향복우필』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면양잡록』 「연상우필·소경판사」〉

今號盲人爲小卿，則怒其指斥，改號判事，則喜其曲諱，其實皆盲府舊號也。小卿，秩堂上正三品，判事，秩堂下正三品。俗號盲人，本爲遷就高秩，而通稱小卿，後府革而遂仍舊號，則所謂名實未虧，喜怒爲用也。

〈『향복우필』 「소경판사」〉

國朝舊置盲人府，有小卿判事之號，小卿，秩堂上正三品，判事，秩堂下正三品，號盲人者，遷就高秩，而通稱小卿，後府革而遂仍舊號。號盲人以小卿，則輒怒曰胡忍指斥廢疾？改號判事，則更喜曰事當爲廢疾人曲諱。事正類狙公賦茅朝三暮四。

맹인을 소경(小卿)이나 판사(判事)로 호칭하는 유래, 소경 혹은 판사의 호칭에 따른 맹인의 반응, 이러한 현상을 조삼모사(朝三暮四) 고사에 비유한 것들이 2개의 글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의 순서나 표현에 있어 대폭 변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에는 격자형 과선의 원고지에 선비가 경계해야 하는 언행을 각각의 칙(則)으로 구분하여 기록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선비의 출입과 진퇴에 대해 언급한 1칙<sup>19)</sup>부터 옛 책을 읽는 효용을 언급한 마지막 칙<sup>20)</sup>까지 총 14칙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 가운데 「사전(士典)」<sup>21)</sup>의 일부분을 초록한 것이다. 다만 초록하면서 「사전」의 내용을 빼거나 축약하기도 하였다.<sup>22)</sup> 이덕무가 「사소절서(士小節序)」을 지은 시기가 1775년(영조 51)이니, 『향복우필』의 작성 시기는 1775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 책은 단국대 박물관 소장 『면양잡록』 「연상우필」과 매우 관련이 높은 자료라 판단되고, 후반부에 「사소절」을 초록한 내용은 박지원의 「사훈(士訓)」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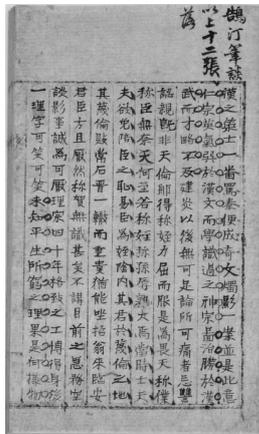
19) 『香北偶筆』, “出入進退，有信有漸，不可來如驟雨去如飄風。”

20) 『香北偶筆』, “古與今，事行皆同，善讀古書，則一一符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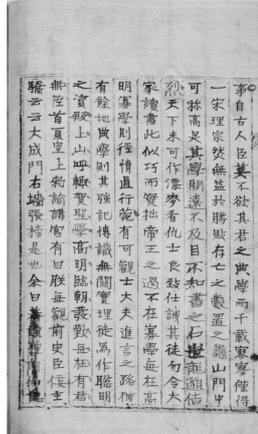
21)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27, 「士小節·士典」.

22) 예컨대 다음과 같다. 『靑莊館全書』 「士小節」, “口不絕言於科宦得失之事者，其心必不寧謐，亦使人搖動心志。故君子罕言榮利，甘於澹泊。” → 『香北偶筆』, “口不絕言於科宦得失之事者，其心必不寧謐。” / 『靑莊館全書』 「士小節」, “士大夫讀醫書，可以悟敬身，讀律令，可以知行己。以其怵惕恐懼，病與罪，若將逼焉。心常警戒，以遠害也。” → 『香北偶筆』, “士大夫讀醫書，可以悟敬身，讀律令，可以知行己。” / 『靑莊館全書』 「士小節」, “癡獸人，貧窮人，癡疾人，鄉野人及衰麻者，人必嘲諧，此非仁心也。尤當謹起居，誠意溫言以待之，童子尤易笑此輩，宜深責之。謹避狡童醉人悍馬獠犬。” → 『香北偶筆』, “謹避狡童醉人悍馬獠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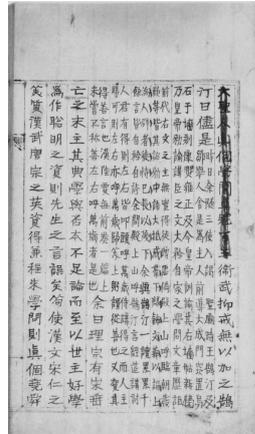
09. 『흑정필담(鵠汀筆談)』(1책, 원고지, 소장 번호 : 000195)



『鵠汀筆談』 1면



『鵠汀筆談』 2면



『鵠汀筆談』 3면



『鵠汀筆談』 24단락

상란(上欄)에 “鵠汀筆談以上十二張落”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앞부분이 결락된 책이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권점(圈點)이 찍혀 있는 곳이 많다. 1면의 시작 부분 “漢之策士, 一番罵秦, 便成奇文.”은 박지원과 흑정(鵠汀) 왕민호(王民皐) 사이의 대화 가운데 왕민호의 말이다. 박영철본 『열하일기』 「흑정필담」은 서문과 총 29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12단락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단국대 박물관 소장 『행계집(杏溪集)』의 「흑정필담」이 11단락 일부분까지 누락되어 있고, 동일 기관 소장 『잡록 하(雜錄下)』의 「흑정필담」이 12단락 전 반부까지 누락되어 있는 사실<sup>23)</sup>과 유사하다.

한편 2~3면은 「흑정필담」의 12단락 부분인데, 이 가운데 일부분의 내용이 박영철본을 비롯한 한 여타 이본들과 비교 대상이 된다.

〈실학박물관 『흑정필담』〉

仇士良致仕, 誠其徒勿令大家讀書. 此似巧而實拙, 帝王之過, 不在寡學, 每枉高明. 寡學則徑情直行, 苑有可觀, 士大夫進言之路, 猶有餘地. 典學則其強記博識, 無關實理, 徒爲作聰明之資. 殿上山呼, 輒賀聖學高明, 臨朝發歎, 每枉有君無臣. 首夏皇上勅諭講官, 有曰朕每觀前史, 臣佞主驕云云, 大成門右墻張榜是也. 余曰, 恭讀聖諭, 仰認大聖人眞個學問, 卓冠百王. 衛武抑戒, 無以加之.

〈박영철본 『열하일기』 「흑정필담」〉

仇士良致仕, 誠其徒勿令大家讀書. 然如寶慶景定之間, 天地四十年, 昏霧四塞, 坐窮今古掩書堂, 二頃湖田一半荒, 正道此時也. 道君皇帝, 儘是名士, 雖乏個東坡先生松筠氣節, 其風流鑑賞, 未必遽讓于陳黃諸公. 亨山大笑曰, 勝比諸漢成, 尤其是浪蕩. 首夏皇上勅諭講官, 有曰朕每觀前史, 臣佞主驕云云, 大成門右墻張榜是也. 余曰, 衛武抑戒, 無以加之.

23) 김명호, 『『杏溪集』 해제』(『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문예원, 2012, 28~34면); 김명호, 『『雜錄下』 해제』(앞의 책, 40~50면).

“誠其徒勿令大家讀書” 이하 부분이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恭讀聖諭” 이하 부분은 원래의 원문을 삭제한 것이다. 실학박물관 소장 『혹정필담』의 “誠其徒勿令大家讀書” 이하 부분은 「행계집」의 「혹정필담」 및 『잡록 하』의 「혹정필담」과도 원문이 다르고, “恭讀聖諭” 이하 부분은 「행계집」의 「혹정필담」 및 『잡록 하』의 「혹정필담」에는 삭제되지 않았다. 또한 박영철본 「혹정필담」 24단락의 “上國”과 “傳受心法”이 실학박물관 소장 『혹정필담』에는 “聖清”과 “聖神相傳之心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행계집」의 「혹정필담」과 『잡록 하』의 「혹정필담」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실학박물관 소장 『혹정필담』은 『열하일기』의 초고본 계열<sup>24)</sup>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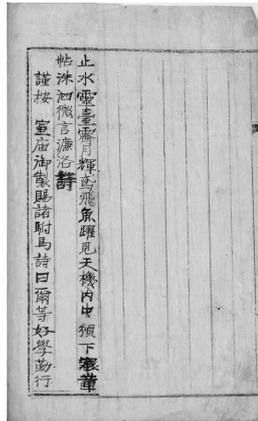
### 10. 『과정록수초(過庭錄手抄)』(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197)

박종채(朴宗采, 1780~1835)의 『과정록(過庭錄)』은 4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산총서(西山叢書)’의 한 권인 『과정록』,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단국대 박물관 소장본 그리고 실학박물관 소장의 『과정록』 수초본(手抄本)이다. 이 수초본은 여기저기 지우고 빼고 고치고 끼워 넣는 흔적이 많이 보이므로 정리되기 전의 초고본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소장본은 이 책의 1차 수정본이고, 단국대 박물관 소장본은 최종 완성본에 해당한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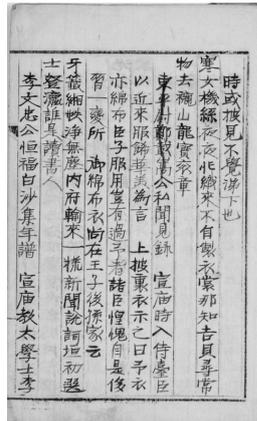
### 11. 『봉운여성집(鳳韻餘聲集)』(1책, 소장 번호: 00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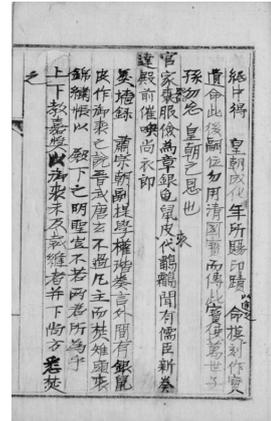
『鳳韻餘聲集』 1면



『鳳韻餘聲集』 2면



『鳳韻餘聲集』 5면



『鳳韻餘聲集』 개작 흔적

24) 김명호는 『열하일기』 이본들을 초고본 계열, 『열하일기』 계열, 『연암집』 외집 계열, 『연암집』 별집 계열 4개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초고본 계열은 가장 초창기에 필사되고 아직 『열하일기』의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이본들로 규정하였다(김명호, 「『연암집』 텍스트의 재검토」,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233면). 단국대 박물관 소장 『杏溪集』, 『雜錄 下』 등은 『열하일기』의 초고본 계열에 속한다.

25) 김혈조, 「『過庭錄』 해제」(『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문예원, 2012, 263면).

별도의 표지는 없고, 변란(邊欄) 오른쪽에 ‘봉운여성집(鳳韻餘聲集)’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의 서명으로 삼았다. 2면 중간부터 7언절구 한시와 이에 대한 자주(自註) 형식으로 계속 한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총 53수의 한시가 보인다. 이 작품들은 바로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의 「봉소여향절구(鳳韶餘響絕句)」<sup>26)</sup> 100수 가운데 48번째 작품부터 끝까지를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1면의 서명이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봉소여향절구」 100수는 박규수가 1829년(순조29)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명으로 지은 7언절구 100수의 궁사체(宮詞體)의 장편 한시이다. 태조(太祖) 이후 정조(正祖)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선 임금들의 고사를 차례로 노래하고, 하나의 고사를 노래할 때마다 반드시 문헌에 근거한 자세한 자주를 부기하였다.<sup>27)</sup>

1913년 연활자본으로 간행된 『환재집(瓊齋集)』에 수록된 「봉소여향절구」의 53수 한시 원문 및 자주가 이 책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간혹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발견된다. 예컨대 51번째 선조(宣祖)를 노래한 한시에 대해 부기한 자주의 내용이, 「봉소여향절구」에는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 선조 때에 입시한 대신(臺臣)이 근래의 복식이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말을 올렸다. 임금이 속옷을 들추고 보여주며 “내 옷도 면포이니, 신하의 복식이 어찌 나보다 좋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여러 신하들이 두렵고 부끄러워하였다. 이로부터 사치하는 풍습이 완전히 변했다.[公私聞見錄. 宣廟時, 入侍臺臣以近來服飾華美爲言. 上披裏衣示之曰, 予衣亦綿布, 臣子服用, 豈有過予者? 諸臣惶愧, 自是侈習一變.]”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에는 “公私聞見錄” 앞에 “東平尉鄭載崙”을 적었다가 삭제한 흔적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때 선조가 입었던 면포 옷이 아직도 왕자 후손의 집에 전한다고 한다.[所御綿布衣, 尙在王子後孫家云.]”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한시 작품을 개작한 흔적을 통해 개작 이전과 이후의 변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75번째 숙종(肅宗)을 노래한 한시는, 「봉소여향절구」에는 “관가의 기명과 복식이 검약함을 법도로 삼아 은서피 갖옷을 숙상 갖옷으로 대신했네. 들으니 유신이 새로 간언하자 대궐 앞에 상의원 관원을 급히 불렀다네.[官家器服儉爲章, 銀鼠皮裘代鸚鵡. 聞有儒臣新奏達, 殿前催喚尙衣郎.]”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에는 “裘服”을 “器服”으로 고치고 “銀色鼠皮”를 “銀鼠皮裘”로 고친 흔적이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이 책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봉소여향절구」의 초고로 추정된다.

## 12. 『선산시초(船山詩鈔)』(1책, 『양봉시초(兩峯詩鈔)』 합철,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199)

청(淸)나라의 문인이자 화가인 장문도(張問陶, 1764~1814)와 나빙(羅聘, 1733~1799)의 한시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책이다. 이 두 사람의 한시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사람은 ‘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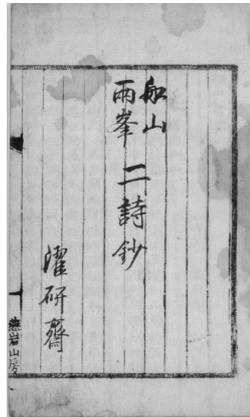
26) 朴珪壽, 『瓊齋集』 권2, 「鳳韶餘響絕句【一百首○并】」.

27) 朴珪壽의 「鳳韶餘響絕句」에 대한 연구는 김명호의 「朴珪壽의 宮詞 「鳳韶餘響」에 대하여」(『한국한문학회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를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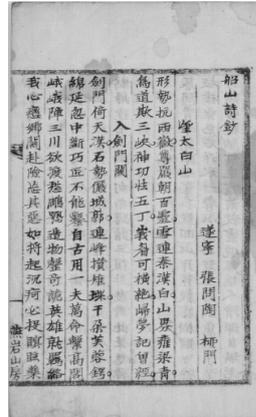
연재(漣研齋)로 보이는데, ‘곽연재’는 박종채의 당호(堂號)이다. 장문도는 수령(遂寧) 출신으로 자가 유문(柳門)이고 호가 선산(船山)이다. 그래서 그의 한시 작품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것을 『선산시초(船山詩鈔)』라 명명하고 출신지, 성명, 자 순서로 부기하여 놓았다. 「망태백산(望太白山)」부터 「미인여의가제화(美人如意歌題畫)」까지 총 65제 72수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한편 나방의 한시 작품들을 선별한 것은 그의 호를 따라 『양봉시초(兩峯詩鈔)』라 명명하고 「동심선생화불가(冬心先生畫佛歌)」부터 「한후조대증목(韓候釣臺極目)」까지 총 19제 21수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그 뒤에 바로 『이라시초(二羅詩抄)』라고 별도로 표제를 삼아 나방의 작품들 12제 13수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船山詩鈔』 표지



『船山詩鈔』 1면



『船山詩鈔』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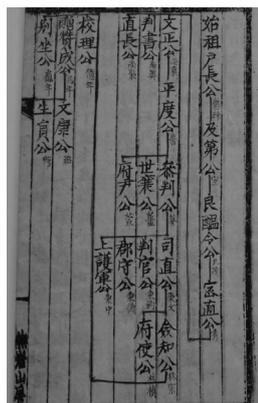


『兩峯詩鈔』 첫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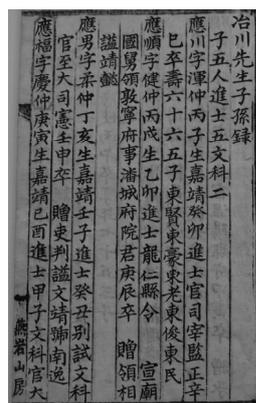
13. 『야천선생자손록(冶川先生子孫錄)』(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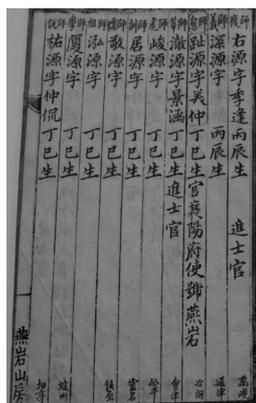
『冶川先生子孫錄』 표지



『冶川先生子孫錄』 1면



『冶川先生子孫錄』 3면



『冶川先生子孫錄』 ‘朴趾源’ 수록 면

박소(朴紹, 1493~1534)<sup>28)</sup>의 다섯 아들 박응천(朴應川), 박응순(朴應順), 박응남(朴應男), 박응복(朴應福), 박응인(朴應寅)의 순서로 간략한 인물 정보를 기록한 다음, 다시 박응천부터 박응

인까지 순서대로 그 아들들을 마찬가지로 간략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박소의 10대손까지 기록해 두었다.<sup>29)</sup> 또한 같은 항렬의 자손들을 기록할 때 직계로 구분하여 배열하지 않고, 생년으로 구분하여 생년이 빠른 순서대로 자손들을 배열하였다. 예컨대 박지원의 경우 박소의 9대손 가운데 정사년(1737)에 태어난 자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박응복을 시작으로 그 아들 박동량(朴東亮, 1569~1635), 박동량의 아들 박미(朴瀾, 1592~1645), 박미의 아들 박세교(朴世橋, 1611~1663), 박세교의 아들 박태길(朴泰吉, 1654~1689), 박태길의 아들 박필균(朴弼均, 1685~1760), 박필균의 아들 박사유(朴師愈, 1703~1767), 박사유의 아들 박희원(朴喜源, 1722~1787)<sup>30)</sup>과 박지원(朴趾源, 1737~1805)<sup>31)</sup>의 경우 그 이름과 자에 주묵(朱墨)으로 별도의 표시를 하였다. 요컨대 박소의 8대손인 박지원을 기준으로 그 직계 선조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9대손과 10대손까지 망라되어 있지만 정작 박지원의 두 아들인 박종의(朴宗儀, 1766~1815)와 박종채(朴宗采, 1780~1835), 그의 손자인 박규수(朴珪壽, 1807~1877), 박주수(朴珠壽, 1816~1835), 박선수(朴瑄壽, 1821~1899)는 누락되어 있다. 『야천선생자손록』 수록 인물 가운데 10대손은 총 17명이고, 몰년까지 명시된 경우는 가장 먼저 수록된 박종수(朴宗壽)<sup>32)</sup> 한 명뿐이다. 그의 몰년이 182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이 현재의 상태로 일단락된 시기의 하한선은 1826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태어나거나 죽은 박지원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박지원의 경우 생년만 명시되어 있고 몰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14. 『잡고(雜稿)』(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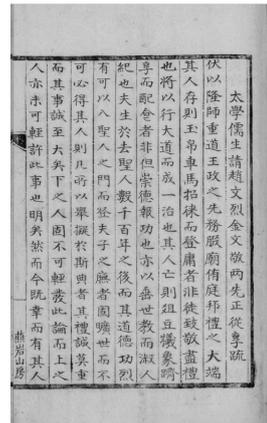
『雜稿』 1면



『雜稿』「御製策問·還翰」



『雜稿』「策·南靈草」



『雜稿』太學儒生上疏

28) 朴紹의 자는 彥胃, 호는 冶川, 시호는 文康이다. 潘南朴氏의 시조 朴應珠의 10대손이다.  
 29) 이 책은 박소의 10대손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추가되는 자손들의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10대손 朴玄壽 이후로 패선만 있는 16면을 마련해 놓았다.  
 30) 『冶川先生子孫錄』에 기록된 朴喜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字聖俱, 壬寅生, 丁未卒. 【治洞】”  
 31) 『冶川先生子孫錄』에 기록된 朴趾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字美仲, 丁巳生, 官襄陽府使, 號燕岩. 【治洞】”  
 32) 『冶川先生子孫錄』에 기록된 朴宗壽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字士仰, 丙辰生, 丙戌卒. 【平洞】”

표지를 비롯한 앞부분이 잘려 나가고 첫 면이 어떤 글의 중간부터 시작되는데, 첫 면의 상란(上欄)에 ‘잡고(雜稿)’라는 용어가 기재된 것으로 인해 이 책의 서명을 『잡고』라고 하였다. 중간부터 수록된 이 글은 바로 1795년(정조 19) 음관(蔭官)의 응제(應製) 및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에 정조가 환향(還餉 還穀과 糧餉)을 주제로 출제한 책문(策問)이다.

그 뒤에는 「경신사월이십일일도부(庚申四月二十一日到付)」라는 공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공문은 1800년(정조 24) 정조의 명으로 전국에 새로 인출한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과 『어정아송(御定雅誦)』을 반포한<sup>33)</sup> 경위와 해당 관청이나 향교에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공문의 수신처는 공주(公州)를 비롯한 정산(定山), 청양(靑陽), 홍주(洪州), 덕산(德山), 면천(沔川), 당진(唐津), 해미(海美), 서산(瑞山), 태안(泰安) 등지이다.

그 뒤에는 이 책의 맨 처음에 수록되었던 정조의 책문 전문(全文)이 다시 수록되어 있다. ‘환향(還餉)’이라는 책제(策題) 아래의 소주에 “을묘년(1795) 9월 초8일 출제한 것이고 기한은 20일 동이 틀 때까지[乙卯九月初八日發策, 限二十日開東時.]”라고 되어 있다. 당시 이 정조의 책문은 내각(內閣)에서 인쇄하여 반포하여 대책문(對策文)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sup>34)</sup>

그 뒤에는 1726년(영조2) 10월 8일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이 경연(經筵)에서 『송사(宋史)·이종기(理宗紀)』에 대해 강(講)한 내용<sup>35)</sup>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주희(朱熹), 진덕수(陳德秀) 등의 남송(南宋)의 성리학, 정몽주(鄭夢周)부터 송시열(宋時烈)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도통(道統)을 강론한 것이다.

그 뒤에는 1796년(정조 20) 신구선(新舊選) 초계문신의 친시에 정조가 남령초(南靈草 담배)를 주제로 출제한 책문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는 「태학유생청조문렬김문경양선정종향소(太學儒生請趙文烈金文敬兩先正從享疏)」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은 1796년(정조 20) 성균관 유생들이 조헌(趙憲, 1544~1592)과 김집(金集, 1574~1656)을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기를 청하는 상소<sup>36)</sup>의 전문이다.

그 뒤에는 정구(鄭矩, 1350~1418)를 대상으로 쓴 「설학재정공신도비명(雪壑齋鄭公神道碑銘)」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 신도비를 세운 날짜 등 부차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비석은 1761년(영조 37) 8월에 세워졌고, 비문은 정존겸(鄭存謙, 1722~1794)이 짓고 비문의 글씨는 이최중(李最中, 1715~1784)이 썼고 전액(篆額)은 조엄(趙曠, 1719~1777)이 썼다. 또한 이 글은 단국대 박물관 소장 『면양잡록(沔陽雜錄)』 권8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는 「태학유생상【여강회천】서(太學儒生上【驪江懷川】書)」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은 앞의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김인후(金麟厚), 조헌, 김집 세 사람을 문묘에 종향하는 일을 가지고 여강(驪江 미상)과 회천(懷川 송환기(宋煥箕, 1728~1807)를 가리킴)에게 올린 편지글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여강과 송환기가 답장한 편지글을 수록해 놓았다. 그 뒤

33) 『承政院日記』 정조 24년 4월 13일 기사 참조.

34) 『日省錄』 정조 19년 9월 8일 기사 참조.

35) 동일한 내용을 『承政院日記』 영조 2년 10월 8일 기사, 그리고 韓元震의 『南塘集』 권6 「경연설 하(經筵說下)」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承政院日記』 정조 20년 6월 20일 기사에도 보인다.

에는 「소청재상성담서(疏廳再上性潭書)」, 「성담답서(性潭答書)」, 「성담답태학서(性潭答太學書)【七月十八日】」, 「성담문답(性潭問答)【初次儒生去時】」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들 또한 문묘 종향과 관련하여 성균관 유생들과 송환기가 주고받은 편지글이고 마지막 글은 뒷부분이 잘려 나갔다.

### 3. 맺음말

상술한 2장을 통해서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 그리고 그 나름의 크고 작은 자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편의상 박지원 자신의 저작류 9종 그리고 그의 후손이나 주변인에 의해 만들어진 박지원 관련 저작류 5종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하나씩 고찰하였는데, 이를 종합한 가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암집』 및 『열하일기』의 초고본 계열의 이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둘째, 초장년기 및 중만년기에 정리된 소집 계열로서 중요도가 높은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셋째, 이른바 박종채 편집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후손가장본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단국대 박물관 소장본 가운데서도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는 『면양잡록』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박지원 관련 혹은 주변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본 발표문은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필사본 자료들을 개괄하여 정리한 간략 해제의 글이기 때문에, 이들 필사본 각각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그 가치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단국대 박물관과 실학박물관은 박지원 관련 필사본 저작류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장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우선 일정한 기준 아래에 포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박지원 자신의 수고본 및 수택본, 후손이나 주변인이 주관하여 필사한 후손 필사본과 전사본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이 필사본들을 『연암집』 및 『열하일기』 이본 계열, 초장년기 및 중만년기 소집 계열, 초고 및 산고 계열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각주로 같음함.

##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박지원 필사본 저작류의 개황과 가치”에 대한 토론문

안 세 현(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연암 박지원은 우리 문학과 지성사에서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의 독립된 저술은 물론 시문 한 편도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연암의 저작은 필사본 형태로 전해오다가 20세기에 들어 김택영에 의해 산문 위주의 선본(選本) 형태로 몇 차례 간행되었습니다. 그 후 1932년에 박영철에 의해 『열하일기』·『과농소초』 등이 포함된 『연암집』(17권 6책)이 연화자로 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영철본 『연암집』은 박지원의 저작을 모두 수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간이나 오자 등으로 일찍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연암 저작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는 2차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많은 보완과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연암 관련 필사본의 해제 작성과 『연민문고 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필사본 총서(총20책)』(단국대 동양학연구원 편, 문예원, 2012)의 출간입니다. 둘째는 2017~2020년에 진행된 <『연암집』 정보 사업>인데, 이 결과물이 책으로 출간되거나 DB로 제공되지 않아 학계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쉽습니다.

저도 『연암집』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실학박물관에서 2019년에 간행한 『법고창신의 길을 묻다』를 통해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저작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정록수초』의 이미지 자료를 제공 받아 대교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실학박물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권진옥 선생의 발표는 실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연암 필사본 저작류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가치를 탐색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난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설령 오랜 시간 발품을 팔고 눈을 혹사하며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끝내 고증을 하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연암의 저작은 연암 생존 당대부터 여러 이본이 유통되었고, 정보화 사업 당시 참고한 이본만 해도 41종에 달했습니다. 권진옥 선생은 선행 성과를 참고하면서 실학박물관 소장 연암 필사본 저작류 9종과 연암 관련 필사본 저작류 5종, 모두 14종의 계통과 자료적 가치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본과의 대교를 통해 글자의 출입이나 내용의 차이, 개작의 과정 등까지 논의하였습니다.

권진옥 선생의 발표는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연암집』 정보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오늘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의견을 두서없이 제안합니다. 논문을 보완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01. 『과농소초(課農小抄)』(1책, ‘연암산방(燕岩山房)’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

「경」의 첫 번째 조목에 붙어 있는 “臣謹稽 ……”와 여섯 번째 조목에 붙어 있는 “臣謹按 ……”은 실학박물관 소장 『과농소초』 외 여타 이본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섯 번째 조목의 경우 앞의 4줄 “臣謹按 …… 爲文而記之曰”을 제외하고는 「안의현 사직단 신우기(安義縣社稷壇神宇記)」의 전문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안의현 사직단 신우기」는 연암이 안의 현감 시절 현의 사직단을 중수하고 지은 글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목의 “臣謹按 …… 斯其所以取義於益者歟”는 『연암집』(이본 포함)뿐만 아니라, 한국고전종합DB나 한국사DB를 검색해 보아도 확인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실학박물관 소장 『과농소초』에만 유일하게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고증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을 제시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 06. 『열하일기(熱河日記)』(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7)

아래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 책은 일단 표지와 장정이 최근의 것으로 보입니다(표제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음). 「서화담집(徐花潭集)」 다음 장의 “大清門內……如夢中矣” 이하는 앞과는 필체가 다르며, 이학의 신도비명과 홍대용의 신도비명에는 권점이나 평어도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열하일기』 「황교문답(黃敎問答)」 이하는 ‘燕巖山房(연암산방)’이라 적혀 있는 원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필체 역시 앞과는 또 달라 보입니다. 곧 이 책은 3종의 서로 다른 저작을 최근에 한 책으로 묶어 장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大清門內……如夢中矣”와 ‘文華殿’(글이 중간에 잘렸음)은 『열하일기』 「황도기략(黃圖紀畧)」의 ‘皇城九門’과 ‘文華殿’의 일부로 보이는데, 현 박영철본 『열하일기』와 내용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 홍덕보의 묘지명에는 붉은색으로 권점과 비점이 많이 찍혀 있고, 또 상단에는 “勑格絕調.” “壯哉東人有此語也”, “…… 此史漢長處”, “一筆收斂.” 등의 평어가 4개 정도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평어 다음에는 같은 필체로 ‘青城評(청성평)’이라 되어 있는데, ‘성대중(成大中)’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 평어들은 다른 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자료입니다.

□ 08. 『향북우필(香北偶筆)』(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201)

- 1면의 ‘향북우필(香北偶筆)’과 3면 이하 격자형 패선의 원고지에 이덕무의 「사소절」을 초록한 것은 동일 인물이 필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둘 다 ‘燕巖山房’이란 원고지를 사용했으나 원고지의 형태와 크기가 다릅니다. ‘연암산방’ 원고지는 박지원 본인뿐만 아니라

라 후손들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서로 다른 자료를 후인이 묶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덕무의 『사소절』을 근거로 『향복우필』의 작성 시기를 1775년 이후로 추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복우필』의 첫 번째 조목이 『열하일기』 「구외이문·옹노후」와 내용이 거의 같은데, 박지원이 열하를 간 것이 1780년입니다. 두 번째 조목은 『면양잡록』 「연상우필·소경판사」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면양잡록』은 박지원이 1797~1800년 면천 군수로 재직할 때 쓴 것입니다. 이덕무의 『사소절』 편찬 시기를 근거로 할 것도 없이, 『향복우필』의 2개 조목이 1775년 이후 작성된 것은 당연합니다.

□ 10. 『과정록수초(過庭錄手抄)』(1책, ‘연암산방’ 원고지, 소장 번호 : 000197)

『과정록』은 연암의 저작은 아니지만 연암의 생애와 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학박물관 소장 『과정록수초』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민문고본이나 규장각본 등에는 없지만, 실학박물관 소장 『과정록수초』에만 있는 조목이 12개 정도 발견됩니다. 최종 완성본인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연민문고본에는 없으나 규장각본에만 있는 조목이 1개밖에 없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실학박물관본은 다른 본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초초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해당 조목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自在童叟時，氣岸已過人，遇事邁往，先輩有識者已許以國器。八歲時，嘗與兒伴遊戲比鄰武官家，武官家苦之，並告諸兒伴家，使禁止之。先君亦被長者訶責，乃日造其門而語之曰：“吾輩士大夫遊戲君家，君當敬接之，今何許也？君既厭苦人，可速撤去也。”武官摧謝，竟不能得遂搬移焉。諸兒伴爲之增氣。(연민문고본 기준으로 권1의 ‘時曾王考章簡公爲畿伯’ 조목 다음에 수록)
- ② 時每有儒臣等遊讌之事，時李公明淵，金公羲淳每折簡，奉邀先君及芝溪公，屢會於池亭或江榭，追聞每有邀致某某之旨云。時年少學士如金公近淳，邁淳與焉。當時會者，未能盡記，而朝紳外，惟先君及芝溪公而已云。(연민문고본 기준으로 권3의 ‘築桂山草堂’ 조목 다음에 수록)
- ③ 管仲之於齊，夫子小其器而大其功，誠不可更論已。至於商鞅之殘暴，誠非管仲之倫。然至於立制度，行法令，強公杜私，富國裕民，亦有可取而不可棄者。假使如管仲者，周公、孔、孟處在九五之位，委任而責成，則彼管仲者未必非伯益、臯陶之流亞，而商鞅之類亦當隨才任職，各事其事，豈必擯棄斥逐如共工、驩兜之類乎？(연민문고본을 기준으로 할 때 권4의 ‘在嶺邑論寺奴婢宜罷’ 조목 다음에 수록)

①은 연암의 8세 때 일화인데 기개가 넘치는 기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세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사대부를 운운하며 어른인 무관을 야단치는, 당돌하면서도 호기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대부와 무관 사이라 하더라도 연암의 행동은 버릇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종본에서는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②는 연암이 안의 현감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와 지낼 때, 홍문관 관료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참석했다는 일화입니다(60세 무렵). 당시 홍문관의 소장 관료들이 모임을 개최하면서 조정의 관리 외에 초대된 사람은 연암과 지계(연암의 처남 이재성(李在誠))뿐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이른바 문체반정이 이후의 일인데, 연암이 당대 홍문관 소장 관료들 모임에 초대받아갈 정도로 중앙 문단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②가 최종본에서 빠진 이유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③은 관중(管仲)에 대한 연암의 평가인데, 연암은 공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관중의 공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관중은 제 환공(齊桓公)을 도와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룩한 인물인데,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중을 법가(法家)의 시조로 여겨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연암은 「증계우서(贈季雨序)」·「마장전(馬駟傳)」·「우상전(虞裳傳)」 및 『열하일기』·『과농소초』 등에서도 관중을 언급했는데, 『열하일기』 「관재정사」와 『과농소초』 「제가총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거론한 정도입니다. 한편 「홍범우익서(洪範羽翼序)」(『연암집』 권3)에 대해 이재성은 ‘관중(管仲)과 상앙(商鞅)의 학설이다.’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③은 『열하일기』와 『과농소초』에 비해 관중에 대한 논평이 자세합니다. 연암의 실학적 면모, 나아가 조선 후기 관중에 대한 재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③의 두주에는 ‘刪去(산거)’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 최종 완성본인 연민문고본에는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박종채가 이 조목을 삭제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관중에 대한 유가의 부정적인 평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